제27회 학술회의

6.25전쟁시 의사단(義死團) 활동과 추모사업 추진방안

일 시 : 2022년 10월 24일(월) 오후 1:00
장 소 :성남문화원 3층 전시실

주최 : 성남문화원
주관 : (부설)성남학연구소
후원 : 성남시

제27회 학술회의 개회사

김 대 진
(성남문화원장)

오늘은 국제연합(UN) 창립 77주년이 되었습니다.

UN은 1950년 6월 25일 터진 한국전쟁 때 남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었습니다. 당시 남한은 3일 만에 서울을 공산군에게 빼앗겼고, 불과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후퇴하였는데, UN군의 참전과 지원으로 반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UN-day를 맞이하여 <6.25전쟁시 의사단(義死團) 활동과 추모사업 추진방안>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호국 안보의 도시인 우리 고장 성남에서 현대사의 의병단체인 의사단(義死團)이 6.25때 결성되어 공산군과 맞서 싸우려다 희생된 역사적 사실이 지하철 이매역 1번출구에 세워져 있는 <殉命義士倡義碑>에 새겨져 있습니다.

성남문화원에서는 지난해에 의사단 관련 자료를 수집한 결과 의사단 단원들이 거주했던 주소지와 직업, 공산군에게 피살된 날짜와 장소 그리고 일부 유가족까지 밝혀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오늘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기조발표를 해주실 양영조 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님과 주제발표를 해주실 윤시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 윤종준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 상임위원, 서승갑 동서울대학교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학술회의를 통해 성남지역에서 전개된 전쟁의 상황과 민간인들의 구국활동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조상들께서 피땀 흘려 지키고 가꾸어 온 이 땅을 온전하게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상들께서 이 땅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지 그 빛나는 업적을 기억하고 널리 알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학술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서 선열들의 희생을 추모하고 기념하는 일에 앞장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학술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성남시와 시의회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10월 24일

제27회 학술회의

6.25전쟁시 의사단(義死團) 활동과 추모사업 추진방안

목 차

1. 개 회 사　김 대 진 (성남문화원장)

제27회 학술회의 개회사 …… 3

2. 학술회의 일정표 …… 6

3. 학술회의 논문

○ 기조발표 : 양 영 조(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6.25전쟁 과정의 성격 …… 7

■ 주제발표1 : 윤 시 원(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

한국전쟁 시 성남(광주) 지역의 전투상황 …… 35

■ 주제발표2 : 윤 종 준(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 상임위원)

6.25민간인 희생자 義死團 활동 …… 47

■ 주제발표3 : 서 승 갑(동서울대 외래교수)

성남지역 6.25 한국전쟁의 사회 문화적 영향 …… 85

4. 종합토론문 …… 103

※ 부록 …… 111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 연혁

【제27회 학술회의 일정표】

6.25전쟁시 의사단(義死團) 활동과 추모사업 추진방안

○ 일　시 : 2022년 10월 24일(월) 13:00
○ 장　소 : 성남문화원 3층 전시실
○ 주　제 : 6.25전쟁시 의사단(義死團) 활동과 추모사업 추진방안

□ **참석자 등록 및 방역(12:30~13:00)**

□ **개회식(13:00)**..... **사회 김정진**(사무국장)
- ○ 국민의례
- ○ 개 회 사..... **김대진**(성남문화원장)

□ **학술회의(13:10)**

○ 기조발표 : **양 영 조**(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6.25전쟁 과정의 성격

■ 주제발표1 : **윤 시 원**(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
한국전쟁 시 성남(광주) 지역의 전투상황

■ 주제발표2 : **윤 종 준**(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 상임위원)
6.25민간인 희생자 義死團 활동

■ 주제발표3 : **서 승 갑**(동서울대 외래교수)
성남지역 6.25 한국전쟁의 사회 문화적 영향

○ **지정토론** : 1. **김용달**(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2. **최명숙**(성남학연구소 소장)
3. **조남두**(신구대 명예교수)

□ **폐회(16:30)**

(기조발표)

6.25전쟁의 전개과정과 성격

양 영 조

(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성남문화원 세미나 / 2022. 10. 24】

6·25전쟁의 전개과정과 성격

양 영 조
(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1. 문제의 제기
2. 전쟁의 배경과 책임 문제
3. 전쟁의 전개과정과 각 국면별 특징
4. 전쟁의 중지 : 국제정세의 변화와 정전협정 체결
5. 전쟁의 결과와 성격
6. 휴전체제의 의미와 전망

1. 문제의 제기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어 1953년 7월 27일 종전이 아닌 정전(또는 휴전)으로 불안하게 마무리되었다. 이 전쟁은 북한과 중국, 그리고 소련의 공모에 의해 준비되고 시작되었으며, 유엔군이 위기에 처한 한국을 지원하면서 곧 공산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 간의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양측 진영은 3년 1개월 2일(1,129일)간의 전쟁을 통해 엄청난 인적, 물적 손실을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전쟁을 잠시 멈추고 향후 정치회담을 통해 완전히 전쟁을 종식시킨다는 내용의 정전협정에 서명하게 되었다.

6·25전쟁은 세계 냉전의 심화 과정에서 북한이 무력으로 한반도를 공산 통일하려는 의도에서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받아 일으킨 침략전쟁이다. 그리고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유엔은 유엔의 결의를 통해 수립된 대한민국을 구원하기 위해 16개국이 직접 참전하고 5개국이 의료부대를 파병하였으며, 다수의 유엔회원국들이 물자를 보내 지원하였다.[1] 공산권도 유엔군의 반격으로 북한군이 위기에 몰리자 중공군과 소련군이 직접 참전하여 북한을 지원하였고 많은 동구권 국가들이 의료품과 물자를 지원하였다.

1) 6·25전쟁 중 한국에 물자를 지원한 유엔회원국이 총 67개국으로 2010년 9월 3일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세계대전에 버금갈 정도로 많은 국가들이 참전하였고 결국 공산진영과 자유진영간의 국제전 대결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양쪽 진영 모두는 중공군의 5차 공세까지 많은 희생을 통한 힘겨루기를 하고 난 이후 군사력에 의해서는 도저히 전쟁을 마무리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1951년 7월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긴 기간 평화체결을 위한 휴전협상에 들어갔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휴전협정) 체결 이후는 소위 정전체제(휴전체제)였으며, 양쪽이 정전협정에 합의한 내용을 이행해야 하는 시기였다. 그러나 전후 한반도 냉전뿐만 아니라 세계냉전의 골이 더욱 깊어짐으로 인해 어떤 정치적 협상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현재 한반도의 평화 문제는 6·25전쟁 정전체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극복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을 갖고 있다. 정전체제 하에서의 안보불안을 극복하고 평화체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6·25전쟁의 개전과 전개 과정, 그리고 휴전과정 등의 냉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되짚어 보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1953년 7.27정전협정 체결까지의 과정은 전쟁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주제이며 결코 1950년 6·25 개전문제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2)]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6·25전쟁이 발발하게 된 배경과 전쟁의 전개과정 그리고 정전협정의 체결과 향후 영향 등을 통해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쟁의 배경과 개전, 전쟁의 전개과정의 특징, 정전체제(휴전체제)의 형성 등의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전쟁의 배경과 책임 문제

1) 북·중·소 군사회담과 전쟁 준비

북한의 정부수립 직후 1948년 12월 25일 소련은 북한에 주둔한 소군의 최종 철수를 보도하였다. 그 후 북한 내부에서는 '소련군 철퇴는 전 세계인민의 평화를 실현하고 미 제국주의의 야망을 폭로하는 길'을 주요 주제로 하는 군중집회가 전국적으로 개최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공개된 러시아 국방문서에 의하면 군사고문단과 별도로 소련군 군사전문가 등 4천여 명이 북한에 잔류하여 지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최근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 포격 사건은 북한이 정전체제를 위반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유엔군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서해 5도 해상을 관할하였고 북한도 이를 사실상 인정해 왔다. 1992년 남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여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정전협정의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제2장 11조)고 규정하였다. 북한은 대체로 1990년대 중반까지 서해 북방한계선을 준수해 왔으나, 그 이후 존재를 무시하고 자신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수차례 군사도발을 야기해 왔다. 북한의 주장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즉, 당시 군사전문가 잔류상황은 소련군 총참모부가 작성한 1949년 2월 18일자 보고서 '군철수 이후 잔류인원'에 총 4,298명이 북한에 남아 있으며, 이중 4,020명은 군인이고 나머지 273명은 군무원임을 밝히고 있다.[3] 소군의 북한 잔류는 인민군의 전력증강을 위한 조치였다고 분석된다.

소련군 철수 보도를 전후하여 김일성은 주북한 소련대사 스티코프를 통해 스탈린을 방문하겠다고 문의하였다. 이에 스탈린으로부터 1949년 1월 17일 수락 받게 된다. 그런데 김일성이 사전에 제출한 방문목적 가운데 한반도의 무력통일 방안에 대해 문의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4] 이에 의하면, 스탈린을 방문하여 한반도 무력통일 방안에 대해 토의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미루어 보면, 김일성이 이미 1948년 말 시점 무력통일 방안을 구상하고 있었고, 또 실제 방문 시 박헌영과도 동행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그 방안에 관해 이미 내부적으로 사전합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김일성은 1949년 신년사에서도 "전 조선인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정부의 주위에 일층 단결하여 국내의 전체 민주역량과 애국적 역량을 더욱 결집함으로써 국토의 완정을 보장하는 거족적 구국투쟁을 일층 맹렬히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 같은 무력통일의 방안은 남한에서 민중봉기 등을 통하여 사회주의화 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현실에서, 무력통일 전략으로 전환한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1949년 3월 5일 김일성은 박헌영을 대동하고 소련으로부터의 지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하였다. 김일성과 스탈린은 북한의 경제지원, 군사력 증강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5] 1차 모스크바 회담에서 소련과 북한은 경제협력과 무역, 기술지원, 문화교육 분야의 협력, 북-소간 철도건설, 군사력 건설 등에 관한 광범한 협의를 가졌다.

특히 이때 김일성과 박헌영 일행이 제의한 무력통일안에 대한 스탈린의 반응이 주목된다. 스탈린은 북한군이 한국군에 대해 절대적인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제공격'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즉, "아직은 소련과 미국의 38선 분할에 관한 협정이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위반하면 미군개입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제한된 반격작전만을 허용하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이는 소련이 이미 1939년 핀란드와의 전쟁에서 시도했던 방식이었다. 소련의 구체적인 북한군 지원 사항은 며칠 뒤인 3월 12일 개최된 김일성과 국방상 불가닌과의 회담에서 논의되었다.

---

3) 「군 철수 이후 잔류인원」(1949.2.18.), 러시아 국방부중앙문서고, 자료번호23, 목록번호173346, 문서번호73, 195.

4) 「중앙위원회 정치국 제68회 회의 의사록」(1949.3.18), 대한민국 외교부(역), 『러시아 비밀외교문서』 제3권, p.15 ; 「스탈린동지와 해결해야 할 김일성의 질문」(수기로 기록), 같은 자료 제3권, p.11. (이 문서들은 열친 전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정부에 건네준 한국전쟁 관련 문서이다.)

5) 북한지도부 수행단 구성은 외상 박헌영, 부총리 홍명희, 국가계획위원장 정준택, 교육상 백남운, 통신상 김연주, 상업상 장시우, 주소대사 주영하 등이었다.

북한 지도부는 이어 김일을 중국에 파견하여 중국과의 회담에서도 무력통일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1949년 4월 28일 북한인민군 정치지도부 대표자 김일은 가오강, 주더, 저우언라이 뿐만 아니라 마오쩌둥을 만나 한반도의 무력통일 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중공군 내의 한인사단의 북한 인민군 편입문제를 확정지었다.

이때 마오쩌둥은 한반도 정세에 대하여 "조선에서의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빨리 끝날 수도 오래 끌 수도 있다. 지구전은 북조선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이 끼어들어 남조선을 지원해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들 바로 곁에 소련이 있고 동북지구에 우리들이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하고, 일본군이 참전할 경우 "중공군을 파병하여 일본군을 격퇴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김일이 제기한 무력통일안에 대해 "국제정세가 별로 유리한 상황이 아니며,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군과 전투 중에 있으므로 행동을 유보"하도록 권고하였다. 조선의용군 입북에 대해서는 2개 사단의 이관에 동의하였으며 나머지 1개 사단은 중국남부에서 국민당군과 전투 중에 있으므로 후에 인계할 것을 약속하였다.

마오쩌둥으로부터 회담 내용을 통고 받은 주중 소련대사 코발료프가 스탈린에게 보낸 비밀전문에 의하면, 김일과의 회담에서 마오쩌둥은 "병력과 장비가 필요하면 조선의용군 병력과 장비를 지원해 줄 것이지만, 아직 공격을 기다려야 할 것이며 만약 1950년 초 국제정세가 유리해지면 전쟁을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6)]

이 회담은 만약 일본군이 투입된다면 이에 대응하여 중공군도 파병하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천명된 점에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때의 회담 내용은 마오쩌둥이 5월 14일에, 김일성이 5월 17일에 각각 주소 대사를 통하여 스탈린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북한이, 소련, 중국간에는 1949년 3~4월부터 한반도 무력통일 방안이 논의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주한미군이 철수한 직후인 1949년 8월 12일 김일성은 "미군이 철수한 이후 38도선은 의미가 없고 인민군의 전력이 우세하며, 더욱이 남한이 조국전선의 평화제의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우세한 인민군의 전력을 바탕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다"고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스탈린은 "전투적인 시각에서 이를 승인하기 매우 어렵다. 한국의 통일투쟁을 위한 현안의 과제는 반동체제의 파괴와 전한국의 통일과제 달성을 위한 남한에서의 전 인민 무장봉기 확산전개와 향후 북한인민군의 강화에 최대한의 힘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당시까지 소련이 갖고 있는 기본정책이었다.

소련은 군사작전 면에서 전쟁이 지구전이 될 경우 미군의 개입 동기를 제공하게 된

6) 「코발료프가 필리포프에게」(1949.5.18), 『소련 외교문서』 제3권, pp.20-21.

다는 점에 유의하고 있었다. 오히려 소련 공산당은 중앙인민위원회 회의를 통해 남한 공격 시기가 적절하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너무 도외시 하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

소련은 이 시점에서 미.소공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에 관하여 조심스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북한의 공세로 인하여 미국이 자극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단히 유의하고 있었다. 소-중-북한으로 묶어지는 공산세력의 등장은 동북아의 큰 위협이 되었으며, 동북아의 지역적 대립구조는 한반도 내부에 존재하는 남북한 대결을 더욱 자극하였다.

2) 동북아 정세 변화와 북.중.소 남침 합의

미국과 소련은 중국 대륙의 공산화와 공산정부 수립이 중국에서의 국민당 통치를 승인한 얄타체제의 파괴를 의미했기 때문에 상호 세력충돌로 인해 야기될지 모르는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대단히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트루먼은 중국 불간섭주의를 기본정책으로 채택하였고, 스탈린은 국민당 정부와의 외교관계를 마지막까지 유지하려 했다.

그리하여 소련은 동서냉전 하에도 동아지역에서 미국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해왔으며, 일본문제에 관해서도 미국의 독점권을 인정하면서도 대일이사회를 통해 부분적으로 통제하려는 정책을 수행하였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소련은 1949년 가을 북한이 옹진지역을 공격하자 미소공동위원회에서의 합의사항을 준수하도록 몇 차례 당부함으로써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1949년 후반에 접어들면서 동서진영은 소련의 원폭 보유, 중·소회담 등의 문제로 큰 변화를 맞는다. 소련의 핵개발은 미국이 더 이상 핵무기의 독점국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소련과 동북아의 새로운 상황에 직면한 미국은 전반적인 대외전략을 재검토하게 된다.[7)]

이러한 국제적 긴장 속에서 소련은 북한이 스탈린의 방침과 무관하게 1949년 10월 14일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옹진을 공격하자, 이 사태처리에 대해서 미국보다 훨씬 더 조심스런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소련 중앙위는 11월 20일 재차 스티코프에게 "38선상의 충돌을 일으키지 말라는 본부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재삼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49년 말의 시점은 미국과 소련이 각기 유럽과 아시아에서 뿐 아니라 세계전략의

7) 「NSC 48/2」(1949.12.30.), U.S. Dep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9*, Vol.Ⅶ, USGPO, 1971, p.1215-1220.

구도를 재편하고 있었던 중요한 시기였다. 따라서 그와 같은 소련의 대북방침은 성급한 북한의 국지적인 공세로 인하여 사태를 그르치지 않으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소련은 내부적으로 전쟁에 대비하여 대북 지원에 관한 우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중국과도 그 문제를 협의하였다. 즉, 스탈린은 1949년 12월 16일 모스크바를 방문한 중국 마오쩌둥과 1950년 2월 17일까지 2개월 동안 회담을 가지고 '중소우호동맹상호조약', '장춘 철도.여순 및 대련에 관한 협정', '차관협정' 등을 체결하였다.[8)]

스탈린.마오쩌둥 회담은 표면적으로는 발표된 바와 같이 '중.소' 양국간 문제에 국한된 것 같으나, 당시 국제 및 동아시아 정세로 보아 냉전체제하의 양국간 결속 다짐은 물론 세계 공산혁명을 위한 역할 분담이 협의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회담 직후 스탈린이 스티코프에 하달한 전문에 의하면, 즉 "마오쩌둥 동지와의 회담에서 우리는 북조선의 군사력과 방어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이를 도울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논의했음을 통보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소.중 간에 긴밀하게 북한군의 병력 증강에 대해 협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1950년 4월 스탈린은 비밀리에 방문한 김일성과의 남북한 통일의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이때 스탈린의 입장은 "국제환경이 유리하게 변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북한의 통일과업을 위한 선제 남침을 개시하는데 동의'하였으며, 이 문제의 최종 결정은 '북한과 중국에 의해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중국측의 의견이 부정적이면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결정을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스탈린의 조건적인 수용에 따라 김일성은 다시 5월 13일 마오쩌둥을 방문하여 전쟁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 등에 관하여 토의하였다. 김일성 일행은 스탈린의 조건사항인 마오쩌둥으로부터 합의를 얻었으며 그 밖에 조·중 우호동맹상호원조 조약은 통일 후에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5월 16일 평양으로 돌아왔다.

이보다 앞서 마오쩌둥은 주중 북한대사 이주연을 만난 자리에서 "조선의 통일은 평화로운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며 전쟁을 통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였으며, 미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작은 영토를 위해 미국은 세계대전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한 바 있었다.[9)] 당시 중국지도부는 한반도의 공산혁명을 환영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국제주의에 보다 충실하였음을 볼 수 있다.

6·25전쟁의 결정은 북한지도부의 남침의지와 더불어 소련과 중국의 입장에서는 핵의 보유, 중국과의 유대강화문제 이외에도 당시 논의되던 미국과 일본사이의 평화조약에 자극을 받았을 것이며, 전 한반도로의 공산통제 확대로 미·일 동맹체제의 전략적

8) 국방군사연구소(역),『중공군의 한국전쟁』, 신오성, 1994, p.93.
9) 「스티코프가 비신스키에게」(1950.5.12),『러시아 외교문서』 제3권, pp.68-69.

가치를 상쇄하려고 의도하였다고 분석된다.

3. 전쟁의 전개 과정과 각 국면별 특징

1) 전쟁의 발발, 북한의 남침

6·25전쟁은 북한군이 소련고문단과 함께 작성한 작전계획에 따라 남침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북한의 소위 선제타격작전계획은 전투명령서, 부대이동계획, 병참보급계획, 기만계획 등을 포함한 공격계획이었고, 3일내에 서울 부근의 한국군 주력부대를 포위 섬멸한 후 그 전과를 확대하여 남해안까지 진출한다는 3단계로 수립되었다.[10)]

최초 북한은 기습작전에서 큰 성과를 달성하였다. 병력과 화력이 우세한 북한군은 기만전술의 차원에서 제기된 평화공세에 힘입어 한국군을 기습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북한군의 공격을 받은 한국군 전방 사단들은 사단장들이 불과 며칠 전 단행된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비우고 있었거나 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습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다. 한국군은 소련이 북한군에 공급해준 T-34탱크를 멈추게 할 무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전투기도 보유하고 있지 못하였다.

한국군은 절반수준의 취약한 전력으로 인해 기습의 충격력을 흡수하지 못하였고 결국 3일 만에 서울을 상실하였다. 그들은 도강수단도 없이 경황 중에 한강을 건너 방어선을 형성하고 가능한 빠른 시기에 반격한다는 막연한 목표로 북한군의 남진을 지연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기습에 성공하고서 서울에서 3일간 지체하고 있었다. 개전직후 평양과 모스크바 사이에 오고간 전문내용에 의하면 그러한 상황이 잘 나타나 있다. 즉, 북한군이 황급하게 소련에게 추가적인 탄약과 보급을 요청한 것, 한국군 전력이나 방어태세를 지나치게 경시한 나머지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그리고 작전 협조를 위한 지휘체계가 미흡했다는 점 등이 확인된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보조 공격부대인 춘천 지역에서 작전적인 차질을 빚음으로써 서울을 점령한 주력부대와 협조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데 있었다. 여기에 더하여 남로당의 대규모 봉기를 기대한 점, 그리고 한강 도강을 위한 장비가 부족했던 점, 서울 점령 이후 자축 분위기에 젖어 있었던 점 등도 부분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11)]

---

10) 조선인민군 총사령부, 「조선인민군 공격작전의 정보계획」(1950.6.20),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11) 군사편찬연구소(역),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보고서』제1권, 신오성, 2001, p.302.

전쟁 초기 한국 정부가 당면했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민심의 동요를 막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전에 비상계획이나 철수계획을 수립한 적도 없었고 그저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는데 분주하였다. 정부 지도자와 관료들은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서울 시민을 포함한 피난민들은 피난 보따리를 '매다 풀다'를 반복하면서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한편 전쟁발발 직후 미국 정부는 주한외국인을 철수시키고 즉각 한반도 사태를 안전보장이사회에 제기하는 한편 해.공군을 운용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유엔 안보리는 6월 25일 공산군에게 무력도발의 정지를 요청하는 결의안을, 6월 27일에는 한국에 대한 원조의 제공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각각 채택하였다.

2) 유엔군의 참전과 반격

유엔은 한국군을 도와 북한군을 격퇴하고 한반도의 안전과 국제평화를 유지한다고 결의하였고, 그 집단안전보장조치에 따라 유엔군 파병을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미군 제24사단 선두부대인 스미스부대가 도착하여 1950년 7월 4일 최초로 평택-제천-울진을 잇는 선에서 무질서하게 철수하고 있는 한국군과 연합전선을 형성하였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군이 유엔군사령관의 단일지휘 하에 대한민국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7월 14일에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로써 한국군은 법적으로는 유엔군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엔군의 일원처럼 전쟁을 수행하였다. 이제 전쟁은 북한군대 유엔군의 전쟁으로 확대되었으며, 새로운 성격의 전쟁으로 변모되었다.

유엔군은 지연작전을 펴면서 전력을 회복하여 반격한다는 전략방침을 정하였다. 유엔군은 한강방어선에서부터 낙동강 방어선까지 미군과 유엔군의 증원을 기대하면서 '시간을 벌기 위하여 공간을 양보'하는 이른바 지연전을 수행하였고, 이어 부산교두보인 낙동강 방어선에서 사활을 건 방어전투를 치렀다. 그리하여 마침내 북한군의 공세를 방어하여 전쟁의 주도권을 쟁취하였다. 이 시기에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의 해.공군과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의 해군이 한국 작전지역에 도착하였고 미 지상군도 3개 사단 2개 연대 규모로 증강되었다.

북한군은 최초 속전속결로 남한을 공산통일 한다는 전쟁목표를 수립하였으나, 유엔군의 참전으로 상대적인 전력의 우위를 상실하였는가 하면, 병력과 물자 등 전쟁지원이 적절히 뒤따르지 못하여 공격역량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 이시기 북한은 남한 점령지에 인민위원회를 재건하여 소위 민주개혁을 강제하고 주민들을 전시 동원 체제하에 편입시켰다.[12] 이 과정에서 피난하지 못한 많은 양민들이 공산주의교육, 납치,

강제징집, 군수물자지원 및 수송에 시달려야 했고 또 많은 애국시민들이 그들의 학정에 항거하다가 희생되었다. 이념전쟁의 잔학함은 그들이 남기고 간 참상이 실증해 주었다.

북한군은 제공권과 제해권을 상실한 상황에서는 점차 공격력이 무디어졌으며, 또 밤낮으로 계속되는 전투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었다. 이처럼 북한군이 공세 한계점을 보이고 있을 무렵인 1950년 8월 4일 소련이 갑자기 외국군철수를 골자로 한 정전안을 제의했다. 원래 유엔안보리에 불참했던 소련은 8월 1일 의장직을 수행하게 되자 유엔에 복귀하였고, 또 한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대표들을 유엔에 초청하자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소련의 정전 제의에 대해 영국과 인도는 대체로 호의적이었으나, 미국이 북한정권의 완전한 붕괴를 정책목표로 채택함으로써 무산되었다.

북한군은 결과적으로 낙동강지역 돌파에 실패하였다. 그것은 후루시초프에 의하면, 계획상의 판단착오와 기간 중 손실에 의한 전력의 약화에 있었다. 즉, 그에 의하면 "부산교두보는 요새도 아니었다. 김일성은 마지막 단계에서 힘이 부족하였다. 그는 공격에서 병력과 장비, 전차 등 많은 손실을 입었다. 나는 전차 1개 군단만 더 있었다면 방어선을 돌파하여 충분히 전쟁을 끝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고문관들은 계획과정에서 제반요인을 고려하지 못하여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스탈린은 비난 받아야 한다"라고 하여 북한군의 보급, 장비의 한계에 대해 지적하였다.

아무튼 낙동강선 방어에 성공한 유엔군은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과 더불어 반격작전으로 전환하여 9월말, 전쟁발발 97일 만에 실지를 되찾고 전전 현상을 회복하였다. 유엔군은 성공적인 우회기동으로 북한군의 전선을 단숨에 절단하였으며, 뒤이어 실시한 돌파와 반격 및 추격 작전은 전사(戰史)상 가히 경이적이라 할 만큼 성공적이었다. 이때 북한군은 괴멸적인 피해를 입은 채 북으로 퇴각하였으며 일부의 패잔병들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험준한 산악으로 잠입하여 게릴라가 되었다.

한국군이 38도선에 도달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즉시 한국군 통수계통으로 38도선 북진명령을 하달하였다. 그는 "38도선은 이미 북한군의 남침 시 허물어졌으므로 북진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으며 이 기회에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미국정부도 북한군을 격멸하기 위한 38도선 북쪽에서의 군사작전은 '6.28 유엔결의'에 비추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유엔군 계통으로 북진작전에 관한 훈령을 하달하였고 또 군사적 점령 후에 예상되는 정치적 통일을 위하여 '10. 7 통한결의'를 추진하였다.[13] 이에 대해 공산국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은 "유엔군이

12) 북한군은 병참선이 길어지고 유엔 공군기에 의해 보급이 막히자 현지조달을 강조하였고, 주로 각 지역 인민위원회 조직을 통해 인원과 물자를 동원하였다.

13) 1950년 10월 7일자 유엔 총회 결의안은 찬성 47, 반대 5, 기권 7, 불참 1로 가결되었으며, 후일

북진하면 자신들도 전쟁에 개입하겠다"고 경고하였으며, 소련은 미국의 결의에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즉각적인 휴전 및 외국군의 철수를 제안하였다. 소련의 제안은 10월 7일 소련외상 비신스키가 유엔군의 북진을 다소가 지연시키려고 의도한 것이었으므로 역시 미국에 의해 거부되었다.

결국 10월 1일 한국군 제3사단이 먼저 38선을 넘어 진격하고 이어 유엔군의 북진작전이 시작되었다. 북진작전은 중국과 소련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확실한 판단 없이 우발적인 계획 하에 전개되었던 것이다.

북한군의 방어선을 돌파한 유엔군은 10월 19일 평양을 탈환하고 청천강선으로 진출하였다. 유엔군은 북한군의 저항이 거의 없는 상태가 지속되자, 평양과 원산을 연결한다는 최초의 계획을 수정하여 계속 북진하라는 지시로 전환하였다.

한편 한국정부와 유엔군은 북한의 점령지역에서 우익조직을 지원하여 부흥시키는 한편 다소간의 갈등 속에서 한반도통일 방안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이 무렵 김일성은 전쟁지도부를 강계로 옮기고 청천강, 희천, 강계에 3중 방어선을 구축하는 한편 유격전으로써 최후까지 저항할 결의를 다지고 있었다.

10월 24일 청천강을 확보한 유엔군은 한.만 국경선을 향한 총 공세를 폈다. 맥아더 장군은 국경선부근에서는 한국군만을 운용해야 한다는 제한 사항마저 제거하고 모든 부대로 하여금 압록강, 두만강으로 진군하도록 독려하였다. 그러나 유엔군이 혜산진과 청진을 점령한 상황에서 중공군이 압록강을 넘어 대거 개입함으로써 전쟁의 양상은 다시 한 번 크게 바뀌었다.

3) 중공군의 참전과 새로운 전쟁

중국은 유엔군의 38도선 북상을 확인한 직후 몇 차례의 소련, 북한과 논의한 후 '항미원조, 보가위국'(抗美援朝, 保家爲國)이라는 목표로 최종 참전을 결정하였다. 중공군은 확전될 것을 우려하여 '스스로 북한을 돕기 위해 지원했다'는 명분을 내걸었고 군의 명칭도 '인민지원군'(志願軍)이라 명명하였다. 그리하여 가장 먼저 1950년 10월 19일 펑더화이 지휘하의 제13병단 26만여 명의 병력이 압록강 3개 지점을 거쳐 입북하였다.[14]

이제 6·25전쟁은 중조연합군 대 유엔군의 전쟁, 사실상 중공군 대 유엔군의 전쟁으로 바뀌었고 전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당시 소련을 비롯한 공산국가의 군사지

'10.7통한 결의'라고 불려졌다.

14) 中國軍事科學院歷史研究部, 2000『抗美援朝戰史』第1卷, 軍事科學出版社, 246쪽 ; 李捷, 「近年來中國學者對朝鮮戰爭研究的最新成果」군사편찬연구소, 2001.10「한 . 중 국제학술세미나 : 한국전쟁중 중국의 참전전략과 포로문제」7쪽.

원 등을 고려하면 전쟁의 상황은 냉전구조 하의 공산진영 대 자유진영의 전쟁으로까지 확대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공군은 10월 25일 유엔군이 박천-운산-온정리-희천을 연하는 선까지 진출하였을 때 1차 공세(1950.10.25-11.7)를 개시하였다. 중공군은 대부대를 투입하여 유엔군의 후방을 차단하기 위하여 은밀히 밀려들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한국군은 계속 진격하여 제6사단 선두부대가 압록강변 초산을 점령하였고 서부지역의 미 제24사단은 신의주 남방 정거동까지 진출하고 있었다.

한국군과 유엔군은 중공군과 불의의 조우로 인하여 후방이 차단된 상황에서 위기를 맞았으나, 갑자기 이때 중공군이 갑자기 공격을 멈추고 청천강 북쪽 적유령산맥으로 이동하여 자취를 감춤으로써 일시적으로 정적이 감돌았다. 중공군이 기만전술과 유인전술을 운용한 것이었다.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은 전황을 오판하여 중공군의 참전목적과 작전기도를 정확히 간파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제8군의 재공격 준비가 완료되자 '11.24 최종공세'(일명 크리스마스공세)를 명령하였다. 이때 전선의 상황은 12개국의 유엔군이 참전 중이었고 정주-영원-장진호-혜산진-합수-청진선을 점령하여 한.만 국경선을 지척에 놓고 있었다. 하지만 유엔군은 이번에도 중공군의 2차 공세(1950.11.25-12.24)에 맞부딪쳐 큰 손실을 입었으며 11월 30일을 기하여 모든 부대가 무질서하게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유엔군은 비로소 중공군이 대대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반격을 개시한 지 71일 만에 철수작전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군과 유엔군은 철수에 철수를 거듭하였다. 중공군은 연결되지 않은 전선으로 침투하여 야간에 전후방을 공격하였고 한국군과 유엔군 병사들은 극도의 공포심에 빠져 조직적으로 중공군을 지연하거나 순차적으로 철수할 수 없었다.

서부전선의 미 제8군은 12월 4일 평양에서 철수하여 12월 말 38선 부근으로까지 철수하였다. 동부전선의 미제10군단과 한국군 제1군단은 중공군에게 퇴로가 차단되어 부득이 흥남부두에서 부산으로 해상 철수하였다.

결과적으로 전세는 또다시 반전되었고 2차례에 걸친 중공군의 공세로 유엔군과 한국군은 순식간에 38도선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중공군은 2차 공세 시기 지휘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조.중 연합사령부(사령관 펑더화이, 부사령관 김웅, 정치위원 박일우)를 편성하였고 그 직후 계속적인 38선 돌파 작전을 준비하였다.

조.중 연합군은 몇 차례의 내부적인 갈등을 겪은 후 3차 공세(1950.12.31-1951.1.8)를 개시하여 38선을 돌파하였다. 사령관 펑더화이는 주력 부대를 의정부-서울 축선으로 향하고 보조 부대를 춘천-원주 축선으로 향하여 총공격을 가하였다. 결국 유엔군은 1월 4일 서울을 포기하고 평택-삼척선까지 철수를 결정하였

다. 유엔군은 이 시점 중공군의 병참선 신장을 유도하고 우세한 화력으로 중공군 전력을 약화시키며 반격작전을 준비하였고, 중공군의 공세역량이 한계점에 다다른 것을 파악하고 1951년 1월 25일 일제히 반격작전에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공군은 그 후에 4차, 5차 공세를 무리하게 강행하였다. 중공군은 유엔군의 반격 직후 4차 공세(1951.1.27-4.21)를 단행하여 지평리, 원주 일대에서 많은 손실을 입으면서 격렬한 전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유엔군이 작전의 주도권을 회복하여 3월 15일 서울을 탈환하고 여세를 몰아 3월말에 38선을 회복하였다.

곧이어 이어진 중공군의 5차 공세(1951.4.22-6.10)는 중공군이 참전한 이후 최대 병력과 소련으로부터 지원된 최대 규모의 장비를 투입한 마지막 공세였다. 이들은 4월에는 서부전선 개성-화천 방면에, 5월에 동부전선 양구-인제 방면에 각각 전력을 집중시켜 총공세를 펼쳤다. 그러나 중공군의 공세는 유엔군의 화력에 압도당하여 많은 희생을 남긴 채 저지되었으며, 유엔군은 반격작전을 계속하여 6월 15일 문산-철원-김화-화천-간성을 잇는 지역을 점령하였다. 이때 유엔군이 유리한 상황에서 반격을 중단한 것은 전전의 원상복구 상황에서 휴전을 모색하려는 미국의 정치적인 고려 때문이었다.

한편 이 무렵 중공군은 공격개시 직후 한계점이 노출되고, 미국 역시 내부적으로 정전 압박을 받아 다른 해결책을 강구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유엔군측은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선에서 밀리게 되자 1950년 말경부터 내부적으로 정전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유엔의 5단계 정전 방안 등 여러 가지 중재안을 제시하였지만 번번이 공산군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이 시점 어느 쪽에서나 위험한 반격보다는 안정적인 봉쇄나 현상유지 정책이 타협안으로써 힘을 얻고 있었다.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확전 될 위험이 커지자 영국을 비롯한 참전국들 사이에서 전쟁 이전의 원상회복 선에서 전쟁을 마무리하자는 휴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4) 휴전협상의 개시와 고지쟁탈전

유엔군과 공산군은 1951년 6월 한반도문제를 더 이상 군사적으로 해결하게 어렵다고 판단하고 협상에 의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즉, 중공군의 5차공세가 종료될 무렵인 1951년 6월 3일 미국의 조지 케난이 휴전을 위한 미.소 회담의 개최를 제의하였고, 6월 23일 조.중연합사령부가 유엔주재 소련대사 말리크를 통해 호응함으로써 휴전회담 개최에 합의하게 되었다.[15] 군사적인 승패가 아닌 정치적 타협으로 전쟁을 마무리하

기로 결정하고 1951년 7월 10일부터 판문점에서 휴전회담에 들어갔다.

양측은 최초 휴전회담에서 군사분계선 설정문제를 비롯하여 휴전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협정, 전쟁포로, 양측 관계 정부에 대한 건의 문제 등 4개 의제를 토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최소 6주 정도면 타결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회담은 처음부터 난항을 거듭하였고 매 의제마다 장기간 설전을 벌이었다. 그 주된 이유는 중공군측이 협상을 이용하여 손실을 보충하여 군사적 우위를 회복하려 하였고, 또 무엇보다 스탈린이 줄곧 정전에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회담과 작전의 양면에서 팽팽한 힘의 균형이 유지되는 가운데 길고도 지루한 교착상태가 계속되었다. 일단 전선이 고정되면 양측의 협상을 통해 작전을 가능한 빨리 종결시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점차 전쟁은 장기 소모전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양측은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군사작전은 계속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회담 기간 중에도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었고, 군사작전은 휴전회담의 추이와 밀접한 관련 하에 전개되었다. 이때부터 전투는 국지전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심리적인 주도권 쟁탈을 위한 소모적인 전투만을 반복하기에 이르렀으며, 전선의 상황은 38선을 연한 주요 고지를 둘러싸고 양측이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 정도였으며, 대규모 공격과 철수작전은 있을 수 없었다.

대체로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에는 전선이 소강상태를 유지하였으며, 회담이 결렬 또는 지연될 경우에는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전선의 병력들은 한눈으로는 회담장을 주시하고 또 다른 한눈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전투를 수행하는 특이한 양상을 되풀이 하였다. 그야말로 휴전천막과 전장 사이를 오가는 지루한 상황이 2년 여간 지속되었다.

휴전협정 체결까지 양측은 38선상에서 피의 능선고지 전투, 단장의 능선고지 전투, 펀치볼 전투, 고양대 전투, 백마고지 전투, 저격능선 전투, 금성 전투 등 수많은 고지 쟁탈전을 수행하였다. 주요 고지를 놓고 하루에도 몇 차례나 주인이 뒤바뀌는 혈전을 전개하였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과 인명손실을 내었다.

한편 휴전회담에서 가장 큰 난제로 부각된 의제는 포로문제였다. 유엔군은 포로의 자유송환을, 공산군은 강제송환을 각각 주장함에 따라 협상은 오랫동안 교착상태에 접어들었다. 1953년 1월에 이르러 미국의 아이젠하워 신임 대통령은 이승만의 확전주장을 일축하고 공산군에 정치 군사적 압력을 가중시키면서 휴전에 임하도록 압박하였다. 이 시점에 3월 5일 스탈린의 사망이 발표되면서 휴전회담은 급진전되었다.

---

15) U.S. Dep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1*, Vol.Ⅶ, USGPO, 1971, pp.95～96 ;「펑더화이의 연설」(51.8.1), 『한국전쟁관련 중국자료선집-한국전쟁과 중국』Ⅱ, 149쪽.

그동안 휴전을 반대해온 이승만 대통령은 6월 17일 반공포로 2만 6천명을 석방시킴으로써 회담을 저지하고자 하였으며, 펑더화이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휴전회담 이후 가장 강력한 공격작전인 '7.13 공세'를 취함으로써 한때 위기국면을 맞기도 하였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심각한 정치적 대립을 겪었고 '이승만 제거계획'이라는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였으나, 휴전협정을 묵인하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체결과 군사.경제원조, 그리고 한국군 증강 등의 약속을 받아 내었다.

4. 전쟁의 중지 : 국제정세의 변화와 정전협정의 체결

1) 국제정세의 변화와 휴전 조짐

1953년 초 유엔군과 공산군이 휴전, 특히 포로송환 문제를 놓고 난항을 거듭하는 동안 국제 사회에서는 휴전에 대한 열망이 커져 가고 있었다. 국제 적십자사 집행위원회는 전쟁의 즉각적인 종결과 제네바 협정에 따른 상병(傷病)포로의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시켰으며, 이 결의의 내용이 곧 1953년 2월 유엔총회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중공은 1953년부터 5개년 경제개혁을 실천에 옮기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과 대만의 2개 전선에 군사비를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양측은 우선 제네바 협정을 준수한다는 의미에서 내부적으로 상병포로 교환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고 있었다. 이처럼 국제사회는 한국정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점차 휴전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었다. 그 길목에서 이승만 대통령만이 북진통일을 외치며 외로운 투쟁을 전개하고 있었다.

한편 선거 공약에서 조기에 한국전쟁을 종결시키겠다고 강조했던 미국 신임 대통령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는 1953년 2월 2일 국회에 보내는 연두교서에서 미 해군의 대만 봉쇄를 철회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중공을 압박하였다. 중공은 지금까지 중공 본토에 대한 장개석 대만 정부의 군사적 위협에 별 부담을 갖지 않고 한국 전선에만 모든 군사력을 집중할 수 있었지만, 대만 중립정책 포기의 천명으로 군사적 및 심리적으로 커다란 부담을 안게 되었다. 미국의 이러한 방침은 공산진영의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휴전 협상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즉, 지금까지 휴전회담을 막후에서 조종하고 있었던 장본인인 소련 수상 스탈린(Joseph

V. Stalin)이 1953년 3월 5일 갑자기 뇌출혈로 사망한 것이었다. 스탈린의 사망은 한국전쟁의 종식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가 사망한 후 소련의 국내 정세는 후계자들이 그의 정책을 답습하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스탈린의 후계자 말렌코프(Georigi M. Malenkov)가 3월 5일 정권을 인수 받음으로서 새로운 노선으로의 정책변화를 지도하기 시작하였다. 유엔군측에서는 소련 정치무대에 새로운 인물들이 다수 등장하게 되었으므로 그들을 평가할 시간이 필요했다. 미국이나 민주 우방국들은 말렌코프 행정부가 취하고자 의도하는 노선의 시사를 조심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소련의 비밀외교문서에 의하면, 소련은 3월 19일 “소련정부는 이제까지 취해온 노선을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 부합되도록 전쟁을 종결시킨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세계평화구축이라는 면에서 전쟁의 중지는 모든 국민의 이해, 특히 중국과 북한 인민의 근본적인 이해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북한과 중국에 전달하고 있었다. 이어 소련은 3월 21일 제2차 세계대전 종식 후 최초로 모스크바 방송을 통해 미국과 영국이 연합국의 일원으로써 전쟁을 종식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음을 발표하였다.

또한 소련 정부는 한국전 발발 이래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영국인 외교관과 선교사들의 석방 교섭에 나서겠다고 암시하였으며, 또 독일 문제에 있어서 유럽 공동방위조약에서의 서독 인준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화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이제 전쟁의 직접 당사자인 북한과 중공이 전쟁의 종식을 원할 경우 곧바로 휴전을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성숙되고 있었다.

이무렵 북한-소련 간 비밀전문에 의하면, 당시 북한의 김일성도 “우리측이 한국전쟁의 종결과 평화달성에 관한 주도권을 잡을 때가 왔다.”고하여 소련의 노선에 따를 것을 밝히고 있었다. 따라서 유엔군측은 이러한 공산주의자들의 변화된 외교 노선에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유엔군사령관 클라크장군은 적십자사의 결의 내용을 고려하여 제네바 협정 제109조에 의한 상병 포로의 즉각적인 교환을 제의하는 서한을 판문점의 연락장교단을 통해 공산군측에 발송하였다.[16)]

제네바 협정 제109조는“충돌 당사국은 중상 및 중병의 포로를 그 수와 계급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들이 여행에 적합할 때까지 치료한 후 본국으로 송환하여야 한다”고하여, 상병 포로들의 즉시 교환과 그들을 중립국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는 문제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17)]

공산군측은 한동안 이에 관하여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역시 절대 권력을

16)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장군이 공산군측에게 병상포로의 교환을 제의한 서한」(1953.2.22.), 국방부정훈국, 『한국전란3년지』, 1954, p.C16.
17) 채한국·양영조, 『한국전쟁』(하), 국방군사연구소, 1997, p.588.

장악하고 있던 스탈린의 죽음은 공산군측의 휴전협상 태도에도 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소련 각료회의에서는 클라크 장군의 제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북한과 중국에 권고하였다. 즉, 상병포로교환 제의에 긍정적으로 회신하며, 중국측은 정전협정을 해결할 시기가 도래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하며, 또한 중국측 성명에 대해서는 북한의 김일성이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소련 각료회의에서는 상병포로의 귀환을 위해 폴란드, 체코, 스웨덴, 스위스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의하였다.

따라서 공산군측은 김일성과 펑더화이 명의로 클라크 장군에게 보낸 1953년 3월 28일자 회신에서 휴전협정 전이나 회담재개 전이라도 언제나 상병포로들을 교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공언하였다.

공산군측은 상병 포로의 교환뿐만 아니라 나아가 휴전회담의 재개를 제안하였던 것이다. 중공 외상 저우언라이도 3월 30일 북경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그 자신의 정부는 물론 북한 정부를 대변하여, 포로의 제한된 교환을 승인하고 그것이 전쟁의 해결을 이룩하는 데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18)]

중공의 성명은 분명 종전의 주장을 양보한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다음날 북한측도 소련의 권고대로 이를 지지하는 정식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에 같은 날 유엔총회에서는 휴전회담이 유엔의 목적에 따라 한국에서 휴전을 조속히 성사시키기를 희망한다고 천명하였으며, 미 합참도 공산군측이 회담 재개에 동의한 것은 포로 문제에 대해 유엔군측의 견해에 따를 의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회담 재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던 1953년 3월 31일 유엔군사령관은 공산군측에 연락장교회의를 통해 상병 포로 교환과 판문점 휴전회담의 재개를 제의하였다. 이어 소련 외상 몰로토브(Watscheslow M. Molotow)도 모스크바 방송을 통해 북한과 중공의 입장을 지지하며 한국에서 휴전을 성립시키고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공산군측은 연락 장교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자고 제안했던 유엔군사령관의 서한에 대해서 “우리들은 귀측의 제안에 동의하는 바이며, 아측 연락장교단은 상병 포로 교환을 사전에 타협하고 휴전회담 재개 일자를 토의 결정하기 위하여 판문점에서 귀측 연락장교단과 회담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는 회신을 보내 왔다.

쌍방의 연락 장교들이 판문점에서 재회하였다. 양측은 유엔군측의 다니엘 제독과 공산군측의 이상조가 연락장교들을 인솔하고 판문점에서 상병포로교환을 위한 첫 번째 회합을 가졌다. 이날 회합에서 다닐엘은 판문점에서 상병자들을 보내고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시설들을 즉시 설비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18) 전사편찬위원회(역), 『미 합동참모본부사 : 한국전쟁』(하), 1991, p.359.

후 7일 이내에 하루 500명의 포로들을 송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에 이상조는 공산군측이 제네바 협정에 해당되는 모든 상병자들의 송환을 원한다고 지적하였다.

첫날 회합에서 양측이 제시한 교환 방법의 요지는 유엔군측이 인원수에 따라 교환할 것을 제의했던 반면, 공산군측은 유엔군측의 제안을 기본적으로 수락하면서 제네바협정 제110조의 내용을 첨가한 국적별 교환을 제의한 것이다. 다음날도 회의는 속개되었으며 유엔군측은 교환 포로들의 국적과 성명이 기재된 명단을 교환하고 행정적인 세부 사항을 토의하기 위한 장교를 임명하자고 제의하였다.

결과적으로 유엔군측은 공산군측으로부터 포로 12,000명중 상병 포로 600명이라는 실망적인 제안을 받았으며, 반면 적측은 포로 132,000명중 상병 포로 5,800명의 유엔군측의 제안에 크게 만족하는 듯하였다.

이런 가운데 회담은 계속되어 양측 장교들이 상병 포로 송환 원칙에 대한 종합 토론을 마친 후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 작성해 나갔다. 송환기간 중 판문점 경비병은 양측 공히 30명으로 증가시키도록 하였고, 유엔군측은 명시된 노선을 이용하여 포로들을 5대의 차량으로 회담 지역까지 이송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리하여 드디어 쌍방간에 상병 포로 교환 협정이 조인됨으로써 전반적인 준비가 완료되었다.

유엔군사령부가 리틀 스위치(Little Switch)라고 명칭을 붙인 상병포로 송환은 늦어도 4월 20일부터 시작하여 20일 이내로 완료하도록 결정되었으며, 유엔군은 즉시 공산군 상병 포로들을 거제도와 제주도 등에서 판문점으로 이송하기 시작하였다.

유엔군측은 공산군측에 송환 대상자가 더 많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더 많은 유엔군 포로를 송환해 오기 위해 공산군 상병 포로를 550명 더 추가하겠다고 공산군측에 제안하였다. 그러나 공산군측은 4월 23일 추가 송환에 동의하였다가 3일후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자기측 송환 인원을 완결시켰다고 발표하였다.

유엔군측은 적의 태도에 양보하는 기색이 없자 1953년 5월 3일 마지막 송환 포로들의 수송을 완료했다. 이로써 유엔군사령부는 북한군 5,194명, 중공군 1,030명 그리고 민간인 억류자 446명 도합 6,670명을 공산군측에게 넘겨주었다. 반면 공산군측은 684명(한국인 471명, 미국인 149명, 영국인 32명, 터키인 15명, 콜롬비아인 6명, 호주인 5명, 캐나다인 2명, 그리스인·남아프리카인·필리핀인·폴란드인 각각 1명)을 판문점으로 송환하였다.

유엔군측은 상병포로 송환을 협상하면서 본 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유엔군측의 요구에 대해 공산군측은 종전의 강제송환 주장에서 한발 물러서는 반응을 보였다. 즉, 저우언라이는 “휴전 교섭의 쌍방 당사자가 정전 후 즉시 송환을 원하는 쌍방에 수용 중인 전 포로를 송환할 것과 송환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

여 나머지 전 포로를 중립국으로 이관할 것"을 제안하여 중요한 양보를 표명한 것이다.

저우언라이의 제안은 김일성의 동의를 받았으며, 공산군측의 견해는 상병포로협정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을 무렵 공산군측 남일에 의해 유엔군측에 전달됨으로써 휴전협정 타결에 가장 밝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양측의 입장과는 달리 한국정부의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회담을 반대하며 국군 단독으로라도 북진하겠다"는 결의를 나타내었으며, 이어 미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만일 유엔군사령부가 중공군이 압록강 이남에 잔류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동의한다면, 한국군을 유엔군사령부에게 철수시킬 것이다"라고 통보하였고, 또 "만일 싸워야 한다면 단독으로도 싸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19] 이는 국제정세의 분위기와 한국정부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돌아가고 있음을 암시하였으며, 휴전협상에 있어서 또 다른 어려움을 예고해주는 대목이었다.

2) 정전협정의 체결

1953년 6월에 들어서면서 휴전회담의 진척이 가시화 되자 한국 곳곳에서는 휴전 반대 궐기대회가 그 여름의 폭염만큼이나 열기를 더해 갔다. 그 때문에 미국이 곤혹스러워 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회담의 진전이 멈추어지지는 않았다. 이런 시점인 6월 7일 한국에서는 전국적으로 준 비상계엄령이 하달됐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이던 육군참모총장 백선엽 대장 이하 전 장병에게 긴급 귀국명령을 내렸으며, 유엔군측 휴전 대표단에서 한국 대표를 소환했다.

이는 유엔측이 1953년 5월 25일 기존의 입장이던 송환 거부 포로의 석방을 철회한 후, 6월 8일 공산측이 주장하는 포로교환 협정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한국정부는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한국군 대표의 휴전회담 참석을 거부하는 동시에 정전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태도를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그 결과 한국군 수석대표 최덕신 육군소장도 포로교환 문제에 있어서 유엔군측의 제안이 종전의 내용과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철회하지 않는 한 휴전회담에 참석하지 않을 것을 유엔군 수석대표 해리슨 중장에게 통고했다.

그 뒤 한국군 대표단은 1953년 6월 1일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최덕신 소장을 수석으로 하고, 이호 육군준장, 김일병 해군준장, 김창규 공군준장을 각 군 대표로 보강하고, 이수영 대령을 연락장교로 하여 유엔군기지에 복귀했으나 연락장교 외에는 정전협상에 참석하지 않았고, 정전협정 체결 시 유엔군사령관이 확인 서명할 때만 최

19) 전사편찬위원회(역), 『미 합동참모본부사 : 한국전쟁』(하), p.379.

덕신 육군소장이 16개국 참전 대표와 함께 배석했을 뿐이었다.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정각 제159차 본회의장인 판문점 정전협정 조인식장의 동측 출입구로 유엔군측 수석대표 해리슨 미 육군중장 일행이 입장했고, 이와 동시에 공산측 수석대표 남일 북한군 대장 일행이 서측 입구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국어·영어·중국어로 된 전문 5조 63항의 협정문서 9통과 부본 9통에 쌍방 수석대표가 각각 서명하고 각방 선임장교가 그것을 상대방에게 건네주었다. 쌍방 대표들은 입장하면서도 서로 악수도 인사도 없었고, 무표정하고 차가운 얼굴로 사무적인 서명만 했다. 10시 12분 서명을 마친 양측 수석대표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자 잠시 시선을 마주했을 뿐 입을 열지 않은 채 퇴장했다. 해리슨 중장은 2~3분간 기자들과 대화를 나눈 후 유엔기지가 있는 문산으로 떠났고, 남일도 소련제 지프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이로부터 3시간 후인 13:00시 유엔기지내 문산극장에서는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대장이 그의 보좌관들과 브리스코 미 극동해군사령관, 앤더슨 제5공군사령관, 웨이랜드 극동공군사령관, 테일러 미8군사령관, 최덕신 한국군 대표, 그리고 16개국 참전 대표들이 임석한 가운데 정전협정 확인 서명을 마쳤다.[20]

한편 공산측은 김일성이 이날 오후 10시에 평양에서 서명했고, 중공군의 펑더화이는 다음날인 7월 28일 오전 9시 30분에 개성에서 서명함으로써 정전조인 절차는 모두 끝났다. 이로써 3년 1개월 2일, 즉 1,129일 동안 지속된 6·25전쟁은 정전상태로 들어갔다.

휴전선은 휴전 당시의 양측 접촉선을 따라 결정되었으며, 지상에서는 한강하구-임진강구(문산 서남 8km)-판문점-세터-고양대-유정리(철원 북쪽 12Km)-하갑령-밤성골-문등리-신탄리-수령-감호를 연결하는 선으로 확정되었다.[21]

휴전협정에 한국대표가 빠진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뜻이었다. 이 대통령은 국군대표 휴전협정조인 참석 문제에 대해 육군참모총장 백선엽 대장과 얘기를 나누다"총장은 가지 않는게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우리 측이 휴전당사자로 서명하기를 회피한 것은 휴전 이후에 대해 유엔, 즉 미국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구상 때문이었다.

휴전회담 기간 중 양측은 1회의 예비회담을 비롯하여 159회의 본회담, 179회의 분과위원회 회담, 188회의 참모장교 회담, 238회의 연락장교 회담 등 총 765회의 회담

20) 채한국·양영조, 『한국전쟁』(하), p.584.

21) 정정협정 체결 당시 유엔군사령부는 서해 5도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서해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을 논의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 20여 년 동안 관행적으로 관할해 왔다. 북한도 이를 인정해 왔으나, 1973년 12월 제346차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서해 5도의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사전하가를 요구하였다. 남북 양측은 1992년 12월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 해상경계선은 양측이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북한은 서해 북한한계선 인근에서 2010년까지 수차례 군사적 도발을 일으켰다.

을 갖고 휴전 회담 개시 2년 만인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체결했다.

6·25전쟁의 정전회담은 세계 역사상 가장 긴 휴전회담이었다. 미증유의 장기회담을 통해 얻은 결과는 단순한 전투행위의 중지에 불과했다. 정전협정은 전쟁의 종결을 의미하는 평화조약이나 강화조약과 같은 성질이 아니라 적대행위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협정에 불과했다. 그 결과 전투는 일단 멈추었으나 전쟁은 끝나지 않은 상태가 되어 버렸다. 즉, 이는 3년 1개월간 계속된 포성은 일단 멎었으나 평화도 승리도 없는 미해결의 장으로 변했을 뿐이다. 유엔군과 북한은 종전협정을 맺은 것이 아니라 정전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일시 중단된 상태였다. 따라서 1953년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는 정전체제에 의해 유지되고,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군사정전위원회는 이의 이행여부를 감시하게 되었다.

5. 전쟁의 결과와 성격

1) 6·25전쟁의 결과

남북한은 1950년 6월 25일～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 2일간의 혹독한 전쟁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휴전선으로 대체하여 분단되고 말았다. 북한의 김일성과 소련의 스탈린이 한반도를 공산 통일시키겠다는 의도 하에 침략 전쟁을 개시하였고, 위기에 빠진 한국의 이승만 정부는 세계 자유민주주의 우방국들의 지원을 받아 가까스로 남침을 방어하는데 성공하였고 나아가 북진 통일의 호기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중공군의 예기치 않은 개입으로 전쟁이 또다시 확대됨에 따라 통일의 기회도 멀어지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이 전쟁에서 우리민족은 유구한 역사를 통해 치른 전란 중에서도 가장 처참하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군사작전으로 인한 1차적 전쟁피해에 더하여 이념투쟁에 의한 2차적 피해가 중첩되었으며, 양측이 핵무기를 제외한 최신 살상무기를 한반도의 좁은 전장에 모두 동원함으로써 살상력을 더하였다.

그리하여 우선 인면피해에 있어, 한국군(경찰 포함) 66만 명, 유엔군 15만 명을 포함 80여명이 전사, 전상, 실종되었고, 북한군 80만 명, 중공군 123만 명 등 약 204만 명의 손실이 생겨 군인피해만도 거의 300만 명에 달하였다. 또한 1952년 3월 15일까지 발생된 전재민의 수도 천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었다.[22] 결과적으로 전체인

22) 통계청, 『대한민국 통계연감』, p.212 ;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피해 통계집』, p.96.

구의 절반 이상이 전화를 입은 셈이었다. 가족 중에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이 없었으며 전사상자의 혈육과 이산가족 등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6·25전쟁의 연장선상에서 고통 받고 있다.

물적 피해도 인명피해 못지않게 컸다. 부산교두보를 제외한 전국토가 전쟁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37도선과 38도선 사이의 지역에서는 세 차례의 피탈과 탈환이 반복되었다. 그 결과 남한 제조업은 1949년 대비 42%가 파괴되었고, 폭격의 피해가 컸던 북한은 1949년 대비 공업의 60%가 파괴되었다. 이런 가운데서 개인의 가옥과 재산이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을 비롯해 군사작전에 이용될 수 있는 도로, 철도, 교량, 항만 및 산업시설이 크게 파손되었음은 물론 군사시설로 전용된 학교 및 공공시설도 파괴되어 국민생활의 터전과 사회 경제체제의 기반이 황폐화 되었다.

무엇보다 쌍방은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거나 남북통일로 승화시키는데 실패하고 불안한 휴전상태로 대치하게 되었다. 이는 남북이 하나로 되기는커녕 전쟁 이전 현상으로 회귀한 채 냉전굴레를 벗지 못하고 그 틀 속에서 분단과 대결을 다시 계획하게 된 불행한 역사적 사실이었다.

휴전은 '적대행위의 일시적 중지'를 의미하는 순수한 군사적 조치였다. 휴전은 종전이 아니라 전쟁과 평화의 가교였고, 이에 따라 휴전으로 일단 정전 조치를 취하고 휴전체제를 구축한 다음 이를 평화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즉, 3개월 내에 정치회담을 열어 평화적 해결방안과 외국군의 철군 등 정치현안을 다루기로 협정하였다.

그러나 정치회담은 회담 참가국 및 장소문제로 인해 판문점 예비회담에서 좌초되어 본회담은 협상에 명시된 3개월 내에 열리지도 못하였다. 다행히 이듬해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문제를 다루던 미.소.영.불 4개국 외상회담의 주선으로 1954년 4월 26일 뒤늦게 정치회담이 제네바에서 열렸다. 여기에서 통일정부 수립방안에 있어 자유선거 방식과 유엔감시를 둘러싸고 타협의 자세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6월 15일 결렬되고 말았다.[23)]

이리하여 쌍방은 휴전협정의 이행관리 및 감독기능도 마비되어 언제 휴전이 열전으로 바뀔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정세를 맞게 되었다. 그러한 전후 우리민족은 생존을 위한 강인한 정신력으로 인고의 세대를 지냈으며, 그것이 곧 복구와 재건의 원동력이 되었다.

2) 6·25전쟁의 성격

북한의 남침 이전 국제사회는 미국과 소련을 양축으로 하는 동.서 냉전구조가 세계

23) 전사편찬위원회(역), 『미 합동참모본부사 : 한국전쟁』(하), p.450.

질서 재편과정에서 하나의 전선(戰線)처럼 형성되어 있었다. 그 중 한반도의 38도선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극동의 자유 및 공산진영을 포함해 미국과 소련의 힘이 직접적으로 맞선 최첨단이 되었다.

그리하여 1948년 남북 단독정부가 수립된 이후 국내 냉전은 더욱 고조되었고, 북한정권이 무력으로 남침함으로써 냉전이 열전으로 바뀌게 되었다. 전쟁 준비과정에서도 김일성 등 북한지도부는 소련의 스탈린, 중공의 마오쩌둥과 긴밀하게 협의하였고 장비와 인력지원은 물론 전쟁개시 허락까지 받아내었다. 따라서 이 전쟁은 국제적 미소 갈등과 민족적 내부의 남북 갈등이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발생되었고, 바로 이러한 이중적 구조로 인해 그 의미도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북한군의 남침은 조국강토를 순식간에 피로 물들게 하였고, 개전 이후 6개월 만에 전쟁양상은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전 국토가 전장화될 만큼 치열하였다. 전쟁이 경과하는 동안 전투 주체도 몇 차례 뒤바뀌어 점차 무서운 모습으로 변신해 갔으며, 자연 그 성격도 경과와 주체에 따라 민족전쟁, 이념전쟁, 국제전쟁 이라는 독특하고 복합적인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 6·25전쟁은 국내외 정치적 갈등 속에서 전개되었기 때문에 그 의미도 다양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그 성격을 반추해 보면 다음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6·25전쟁은 남북한 내부전쟁인 동시에 '침략전쟁'이며 '이념전쟁'의 성격을 내포한 전쟁이었다. 이 전쟁은 북한정권이 남북한 내부의 민족갈등 속에서 한반도를 무력으로 통일하려고 구상한데서 비롯되고 또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의 한국정부를 타도하고 대신 통일된 공산주의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여 개시된 전쟁이었다.

둘째, 6·25전쟁은 기원과 배경, 그리고 전개과정 등 모든 면에서 국제전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이 전쟁은 특이하게도 준비, 결정, 개시, 전개 등 모든 과정에서 스탈린의 지도와 지원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국제전의 성격을 띠었고, 특히 유엔군과 중공군이 참전한 후에는 지원의 차원을 넘어 유엔군사령관과 중공군사령관이 남한과 북한군을 포함한 유엔군과 공산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거나 주도하였다는 점에서도 국제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셋째, 전장이 한반도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동서 양진영이 참전한 세계적 규모의 전쟁이었다. 전쟁의 개시와 더불어 침략자를 격퇴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으로 구성된 유엔군이 참전하고 이에 대응해 소련을 중심으로 한 중공군 등 공산군이 침략전선에 가세함으로써 20개국의 전투부대와 그 밖의 여러 국가의 지원부대가 양대 진영으로 나뉘어 열전을 벌린 전쟁이었다.

마지막으로, 6·25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핵시대에 한반도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치러졌다는 점에서 국지전이며 제한전쟁이었다. 군사적으로 당시 미.소 양국이 핵

무기를 보유하였고 미국이 전술 핵무기를 개발하였음에도 이의 사용을 억제하였으며, 또 유엔군이 전쟁을 한반도내에 국한시키고 전쟁의 목표를 공산군의 침략을 격퇴한다는데 한정시켰다는 점에서도 제한전의 성격을 띠었다.

6. 휴전체제의 의미와 전망

1) 6·25전쟁의 대내외 영향

6·25전쟁은 종전(終戰)이 아닌 정전(停戰), 휴전(休戰)으로 끝을 맺었지만 대내외적으로 큰 영향을 남겼다. 휴전 후에 남북한 간의 관계는 대화나 협력보다도 대치와 도발로 점철되었다. 치열한 냉전대결로 남북분단은 더욱 고착되었으며 남북 모두가 정치적으로 냉전유지에 많은 노력을 지불해야 하였다.

남북한의 적대의식과 불신감이 전쟁전보다 더욱 깊어진데다, 상호 군비경쟁을 취함으로써 남북한의 간격은 물리적인 측면에서나 이념적인 축면에서 전쟁 이전보다 더욱 넓고 깊어져 긴장 완화는 물론 하나로 되는데 역기능으로 작용하였다.

남한에서는 60만 대군의 육성을 바탕으로 반공보수 세력의 기반이 굳어졌으며 이승만정부의 반공체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반공.반북 이데올로기는 미 군정기를 이어 6·25전쟁을 거치면서 꾸준히 내화된 측면이 있었다. 한 표본조사에 따르면 6·25전쟁중 월남자의 월남동기가 정치 사상적 이유 38.7%, 농지개혁 등 재산 몰수 19.0%, 한국군의 피난권유 25.0%, 기타 17.3%로 나타났을 정도로 월남민과 전쟁경험자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했다.

북한에서는 남한 내 빨치산 투쟁과 제2전선 구축 실패에 대한 책임문제가 첨예하게 제기되었고 그것은 곧 정치권력 구도를 재편하는 데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 남로당에 대한 숙청과 소련파 및 연안파 숙청 등을 거쳐 김일성 단일지도체제가 한층 강화되었고 북한을 군사동원체제로 몰아갔다.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남한과 사회주의 북한은 산업화와 경제적 동원을 위해 각기 전쟁 경험을 바탕으로 반공우익 권위주의적 사회와 공산좌익 전체주의적 사회를 강화시켜 나아갔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북한에서는 폐쇄적인 사회체제가 정착되고 남한은 다원적인 개방사회를 지향하게 되었지만 미국 문회의 무분별한 유입 등으로 고유 민족문화가 파괴되기도 하였다.

한편 국제 정치적으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냉전 양극체제가 세계적으로 더욱 격화되면서 동서진영간의 이데올로기적인 대결과 군비증강, 그리고 블럭간 군사대

결이 첨예화되었으며, 아울러 동북아의 냉전구조도 심화되었다.

전쟁을 계기로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서방진영의 군사동맹이 강화되었고, 미국의 군사력이 크게 증강되어 세계 1위의 군사대국이 되었다. 미국의 경우 반공 메카시즘의 선풍과 강경정책으로 선회, 군비증강,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강화, 아시아 태평양기구(ANZUS), 동남아조약기구(SEATO), 중앙조약기구(CENTO) 결성 등의 움직임이 촉진되었다.

한편 공산권에서는 소련과 중국 및 북한 3자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었으며 그 결과 북한과 중국의 자력갱생 노선이 출현하였다. 소련의 경우 바르샤바조약기구 등을 통해 군비증강을 꾀하는 한편 사회주의 동맹국들의 이탈로 말미암아 서방과의 평화공존을 시도하게 되었다. 중국의 경우 전쟁으로 국제적 지위가 고양되었지만, 전쟁으로 인해 소련에 대한 불신감이 켜졌고 이는 중소분쟁의 불씨가 되었다.

1990년대, 20세기 말 소련의 붕괴를 계기로 세계는 냉전질서가 와해되고 인류평화와 공동번영의 새 질서가 구축되었다. 남북한 한민족은 휴전을 평화의 가교로 전환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민족 통합과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 본격화되었던 남북한 대외정책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발전은 미소 냉전의 해체와 중국의 체제개혁 개방에 조응한 분단체제의 변화였다. 이는 새로운 개방정책의 시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간 접촉의 확대, 주변 강대국의 남북한 교차승인과 남북 유엔 동시가입을 포함한 대외관계의 개선 등이었다.

남한도 한.소 수교, 남북 유엔 동시가입,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설치, 한.중 수교 등 적극적인 북방정책과 대북정책을 추구하였다. 북한은 체제 보장과 경제적 실리를 위해 미사일 및 핵 개발과 같은 군사적 수단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강구하였지만, 다른 한편 북.미, 북.일 간의 외교적인 접촉을 꾸준히 지속하였다. 이는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해 남북한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였다.

2) 전쟁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

6·25전쟁이 멈추자 양측은 각각 자신들이 이겼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김일성은 “남한의 북침을 저지했기 때문에 북한이 승리한 전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세계 최강의 미국에 역사상 첫 패배를 안겨준 전쟁”임을 자랑했다.[24] 반면 남한의 이승만은 “북한의 남침을 물리치고, 한국정부의 전복을 막았기 때문에 승리한 전쟁”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전쟁의 결과는 남북한에 커다란 소용돌이를 몰고 왔다. 남북한 모두가 전

24) 북한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조선전사』 제25권, 1981, p.508.

쟁을 전후해 인구의 재배치가 이루어졌다. 특히 북한은 전쟁 중 많은 인구손실과 함께 대규모의 인구가 월남함으로써 인적 자원 면에서도 상당한 손실을 가져왔다. 그러나 북한체제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월남함에 따라 공산정권으로서는 보다 쉽게 '김일성 독재체제'를 구축하게 되는 이점도 있었다.

또한 북한은 세계 최강의 미국과 전쟁을 치름으로써 제3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게 됐으나, 이로 인해 서방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고립의 길을 걷게 됐다. 북한의 사회주의화 정책은 더욱 가속화됐다. 1958년까지 기존의 개인경영 상공업과 개인농업을 없애고, 모든 생산수단을 국유화함으로써 사회구조를 완전한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오늘날과 같은 경제 붕괴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임을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전후 남한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전쟁은 남한의 모든 것을 바꿔 놓았다. 국토가 좁은 남한에서도 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대규모 인구이동이 있었다. 전쟁이전 북한에서 월남한 인구의 대량유입과 1·4후퇴로 인한 중부권 인구의 이동, 전후 도시화로 인한 인구 이동이 그것이다.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기반 상실과 함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도시로 모여든 많은 사람들은 의식주를 해결하기에도 벅찼다. 이로 인해 1960년대까지 국가의 경제정책은 국민들의 굶주림을 면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따라서 남한 사회는 전쟁의 거대한 분수령을 넘어 오면서 과거의 봉건주의적 잔재가 무너지고, 시장경제 질서에 의한 산업자본이 새롭게 형성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전란이 가져온 심리적 불안과 초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확고한 반공이념을 심어 주었다.

3) 향후 전망

1953년 7월 27일 10시, 군사정전협정이 발효된 이래 50년 동안 한국군과 유엔군은 이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한국군 496명을 비롯하여 미군 221명 등 무려 7백여 명이 희생되었다. 비무장지대 내에 200~500m 간격으로 설치된 1,292개의 군사분계선의 표지판은 남북 분단의 현실을 잊은 듯, 비무장지대의 능선과 계곡, 그리고 산야를 완전히 변화시킨 무상한 세월의 흐름 속에 희미한 잔해만 남기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한반도의 허리부분에서 벌어지고 있는 남북한의 첨예한 군사적 대치상황은 군사분계선의 존재를 엄연한 현실로 일깨워 주기에 충분한 것이다. 이처럼 군사분계선은 평소 세인들의 뇌리 속에는 망각의 존재처럼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냉전의 유산으로 분명히 현실 속에 존재하는 실체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6·25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재난을 가져왔다. 수많은 자식 잃은 부모, 부모

잃은 고아, 남편 잃은 여인, 파괴된 고향산천, 그리고 고향을 떠난 온 실향민들, 이 많은 민족적 고통을 어찌 다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 때 우리 민족의 아픔은 점차 희석되고 또 망각되어 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반세기란 긴 세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6·25전쟁의 후유증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다. 세상에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이자 중무장된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있는 한반도는 여전히 세계에서 분쟁의 위험이 가장 큰 지역 중의 하나로 남아 있다.

북한은 1960년대 초부터 무장병력을 남파시켜 대고 군사도발을 야기함으로써 휴전체제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냉전체제가 붕괴된 1990년대에는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공산군측 대표단을 철수하고 중립국감시위원회 대표단도 축출함으로써 휴전체제는 반쪽만 남아 사실상 기능이 정지되었다.[25] 정전협정의 이행관리와 감독기능이 마비되어 휴전이 언제 열전으로 바뀔지 예측을 불허하는 형국이 되어버렸다.

1990년대, 20세기 말 소련의 붕괴를 계기로 냉전질서가 와해되고 인류 평화와 공동번영의 새 질서가 구축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시대적 조류를 타지 못하고 이념과 무력 양면에서 전쟁 일보 직전의 대립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 한반도 한민족의 급선무는 반쪽만 남은 휴전체제일지라도 이를 유지하고 기능이 중지된 나머지 절반의 복원 노력을 기울여 무엇보다 휴전이 전쟁의 가교가 아니라 평화의 가교가 되게 하는 것이다.

6·25전쟁은 현재 우리에게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많은 과제를 남겨놓았으며, 아울러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제시해주고 있다. 6·25전쟁을 돌이켜 볼 때 우리는 전쟁의 억지(抑止)는 준비를 갖추고 있을 때만이 가능하며 한반도 통일도 반드시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성취해야 한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무엇보다 민족적인 우선 과제로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의 전환하려는 노력이 더욱 절실하며,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까지의 과정을 보다 분명히 되새기면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끝)

25) 채한국·양영조, 『한국전쟁』(하), p.655.

한국전쟁 시기 성남(광주) 지역의 전투

윤 시 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

6·25전쟁 시기 성남 지역의 전투

윤시원(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머리말
2. 국군의 한강선 방어 준비와 혼성 2ㆍ2사단
3. 북한군 제3사단의 한강 도하와 국군 혼성 제2사단의 방어선 붕괴
4. 성남 방면 전투
5. 맺음말

1. 머리말

성남시[26]는 1973년 경기도 광주군의 대왕면·낙생면·돌마면 일원과 중부면의 일부 지역을 관할로 만들어졌다. 이 지역은 동쪽으로는 남한산에서 불곡산으로 이어지는 산맥이 이어지고 서쪽으로는 청계산이 있는 분지 지형이다. 이 분지 지형의 한 가운데는 탄천이 흐르고 있다. 탄천 줄기를 따라 형성된 평야에는 오래 전부터 서울과 남부 지방을 잇는 도로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 도로는 세월이 흐르면서 사회의 발전에 따라 확대되었다. 조선시대에는 '6대로'라고 불리는 큰 도로 중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동래로'가 오늘날의 성남 지역을 지나갔다. '동래로'는 양재에서 시작해 낙생역(현재의 성남시 수내동 푸른마을과 역말광장 일대)을 거쳐 용인-안성으로 이어졌다. '6대로' 중 하나가 낙생역을 거쳐 갔기 때문에 많은 교통량을 바탕으로 판교주막이 낙생역 부근에 형성될 정도였다.[27] 이러한 지리적 특성은 성남 지역을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로 만들었다.

6·25전쟁 당시 오늘날의 성남 지역은 서울과 남부 지방을 연결하는 주요 통로라는 점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먼저 1950년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북한군이 수원 방면으로 진격하면서 수원의 동북쪽 관문인 성남 지역에서 국군의 지연전이 전개됐다. 1951년 1월 말부터 2월 초에는 서울을 탈환하기 위해 북상하던 유엔군이 성남 지역에서 중국군을 격퇴하기 위해 격전을 치렀다.[28] 이러한 전투들은 모두 성남의 지리적 중요성 때문에 일어났다. 특히 6·25전쟁 발발 직후 성남 지역에서 한국 육군이 수행한 방어 전투는 수도 서울 함락 직후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

26) 6·25전쟁 당시에는 성남이 광주의 일부였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의 지명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27) 손승호,「교통로와 시장의 발달」,『성남시사 1 : 자연환경과 인문·사회지리』(성남: 성남시사편찬위원회, 2014), 370~374쪽.
28) 1951년 초 성남 지구 탈환전에 대해서는 박동찬,「한국전쟁의 발발과 전개」,『성남시사 2 : 한눈에 보는 성남의 기록』(성남: 성남시사 편찬위원회, 2014)을 참고하라

기 속에서 전개된 격전이었다. 이때 전개된 전투는 짧은 시간 동안 국군의 여러 부대가 투입되어 혼란한 양상을 띄었다. 게다가 전쟁 초기 혼란속에 문서 기록이 많이 남지 않아 지금은 이 전투의 세부적 양상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 글에서는 6·25전쟁 초기 성남 지역에서 전개된 전투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이 전투의 의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전투의 전개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남 지역 전투의 직전 단계인 한강 방어전을 함께 다루고자 한다.

2. 국군의 한강선 방어 준비와 혼성 제2사단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을 받은 국군은 압도적 열세 속에서 분전했으나 결국 6월 28일 수도 서울을 빼앗기고 한강을 넘어 퇴각해야 했다. 국군은 한강 이남에서 병력을 재편성 해서 방어 준비를 시작했다. 서울에서 이동한 국군은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병력을 수습하여 시급하게 재편성에 들어갔다. 대한민국 육군총참모장 채병덕(蔡秉德) 소장은 김홍일(金弘壹) 소장을 시흥지구전투사령관에 임명해 한강선 방어를 지휘하도록 했다.[29] 6월 27일 수원비행장에 처치(John H. Church) 준장이 지휘하는 미국 극동군사령부 전방지휘소(ADCOM, Advance Command and Liaison Group)가 도착했다. 처치 준장은 6월 28일 오전 서울을 탈출한 미국 군사고문단 고문관 헤즈렛(Robert T. Hazlett) 대령과 하우스만(James H. Hausman) 대위를 만나 전반적인 전황과 미국 군사고문단의 현황을 파악했다. 그리고 채병덕 소장을 만나 방어작전을 위한 조언을 했다. 처치 준장은 채병덕 소장에게 아직 서울 인근에 남아있는 국군 병력에 시가전을 전개하는 한편 병력을 수습해 한강선 방어에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군은 약 1,000명의 장교와 8,000명의 사병을 수습해 임시 부대를 편성할 수 있었다.[30] 육군본부는 28일부터 29일 사이에 수습한 병력을 혼성 제2사단, 혼성 제7사단, 혼성 수도사단으로 재편했다. 또한 당시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에 시흥지구전투사령부는 원래 소속에 상관없이 500명씩 병력이 모이면 혼성 대대로 편성해 방어선에 투입했다.[31] 시흥지구전투사령관 김홍일 소장은 혼성 제2사단에 신사리-이수교 방면 방어를 명령했다. 임선하(林善河) 대령이 지휘하는 혼성 제2사단은 제3, 5, 16연대 및 보병학교 혼성연대 등 4개 연대와 기갑연대 제2기병대대로 편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제3, 5, 16 연대 등 3개 연대는 2개 대대로 편성되어 있었고 보병학교 혼성연대는 1개 대대 규모에 불과했다.[32] 김홍일 장군은 먼저 기갑연대 제2기병대대를 말죽거리 방면에 배치해 서울에서 철수한 국군 병력을 수습하도록 하고 신사리 일대

29) 양영조·남정옥 외, 『6·25전쟁사 3 : 한강선 방어와 초기 지연작전』(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138쪽.
30)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Washington D.C.: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61, pp.43-44.
31) 김행복, 『6·25전쟁과 채병덕 장군』(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269쪽.; 양영조·남정옥 외, 위의 책 139～140쪽.
32) 양영조·남정옥 외, 앞의 책 141～142쪽.

에 진지를 구축하도록 했다. 임선하 대령은 먼저 한강 남쪽에서 수습한 병력을 먼저 방어선에 배치하고 수원에 집결한 병력들을 수습해 방어선으로 이동을 시켰다.[33] 급하게 재편성을 마친 제3연대가 말죽거리 방면으로 이동해 기갑연대 제2기병대대와 함께 한남 나루터-말죽거리-판교 방면을 방어하게 되었다. 한편 육군본부는 천호리를 방어하기 위해 6월 29일 수원에 있던 육군사관학교 생도대대를 천호리에 배치했다. 손관도 소령이 지휘하는 육군사관학교 생도대대는 차량편으로 풍덕천-판교를 거쳐 29일 오후 천호리에 도착해 진지를 편성했다.[34]

3. 북한군 제3사단의 한강 도하와 국군 혼성 제2사단의 방어선 붕괴

한편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은 짧은 재정비를 마친 뒤 한강을 도하해 남진하려 했다. 성남 방면에 투입된 북한군은 제3사단 이었다. 북한군 제3사단은 제7, 8, 9연대 등 3개 보병연대로 편성됐다.[35] 북한군 제3사단은 전쟁 발발당시 포천 방면에서 서울로 침공해 6월 28일 오후 4시경 이촌동을 점령했다.[36] 북한군 제3사단은 29일 오후 늦게부터 정찰대를 한강 남쪽으로 투입하기 시작했다. 이 중 1개 소대가 조순철(趙淳鐵) 소위가 지휘하는 기갑연대 제2기병대대 제3중대 3소대에 발각되었다. 조순철 소위는 북한군이 배에서 내리고 있을 때 공격을 감행해 전멸시켰다.[37] 하지만 북한군 주력이 한강 도하를 개시하자 전력에서 열세에 있었던 국군은 고전을 면치 못했고 이를 저지하기 어려웠다.

국군이 한강변을 따라 간신히 방어선 구축을 마친 다음날인 6월 30일 북한군 제3사단의 주력이 한강을 도하하기 시작했다. 북한군 제3사단장은 제8연대와 제7연대를 1제대로 도하 작전을 개시했다. 북한군 제8연대 주력은 옥수동 일대에 집결한 뒤 신사동 방면으로 도하에 성공했다. 북한군 제7연대는 자양동 부근에서 한강을 도하해 각각 6월 30일 오전까지 한강 남쪽에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38] 북한군 제3사단은 한강 도하를 위해 45mm 대전차포 40문, 76mm 포 8문, 122mm 곡사포 4문, SU-76M 자주포 19문 등 각종 화포와 T-34-85 전차 8대를 한강 북쪽에 배치해 직접 사격으로 도하 작전을 준비했다.[39] 북한군은 포병의 강력한 엄호를 받으면서 소대 단위로 거룻배에 분승해 한강을 도하했다. 한강 남안의 국군 혼성 제2사단 3연대와 기갑연대 제2기병대대는 중화기가 부족해 북한군의 포격에 대응하기 어려웠다. 당시 기갑연대 제2기병대대가 보유한 장비는 개인화기 외에 60mm 박격포 2문, 중기관총 2정, 경기관총 4정에 불과했다.[40] 이런 빈약한 화력으로는 각종 중화기와 전차의

33) 양영조·남정옥 외, 앞의 책 173~174쪽.
34) 양영조·남정옥 외, 앞의 책 186쪽.
35) 블라지미르 라주바예프 저, 기광서·백준기·이신철 역,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154-155쪽.
36) 라주바예프, 위의 책 166쪽.
37) 양영조·남정옥 외, 앞의 책 184쪽.
38) 라주바예프, 앞의 책 168~169쪽.
39) 라주바예프, 앞의 책 303~304쪽.
40) 한남전우회 편, 『육군 독립기갑연대사 : 번개부대의 6·25혈전기』 (서울: 도서출판 한컴, 1997), 136쪽.

지원을 받는 북한군을 저지하기 힘들었다. 게다가 북한군은 숫적 우위를 앞세워 손실에도 아랑곳 않고 도하를 계속했다.

국군에게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미군이 참전하면서 제공권을 장악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미국의 압도적인 공군력도 만능은 아니었다. 이날 미국 공군은 국군의 한강선 방어를 위해 B-29 폭격기 15대를 투입해 한강 북쪽의 북한군 집결지를 폭격했다. 그러나 B-29의 폭격은 북한군 집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실시되어 큰 효과가 없었다. 다시 B-26 중형폭격기 18대가 출격해 북한군을 공격했다.[41] 미국 공군이 한강 북쪽에 집결한 북한군을 계속 타격했지만 전쟁 초기에는 국군과 미국 공군의 합동 작전을 조율할 체계가 갖춰져 있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 공군의 지원이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웠다. 신사동 방면의 국군 기갑연대 제2기병대대가 화력 부족으로 고전하자 육군본부는 혼성 제7사단에 배속되어 있던 M-8 장갑차 2대와 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42]

북한군 제8연대는 국군 기갑연대 제2기병대대의 방어선을 돌파해 오후 1시에는 신사동 남쪽으로 4km 가량 진출하는데 성공했다.[43] 당시 기갑연대 제2기병대대 6중대장이었던 박익균(朴翊均)은 북한군이 방어선을 돌파할 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전투가 벌어지자 적이 언제 반포동 야산에 숨어 들었는지 우리의 좌측방에서 공격해왔다. 적의 치열한 총포 소리에 말은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내 말을 비롯하여 몇 마리의 말이 고삐가 풀리면서 달아나고 말았다. 이 무렵 병사들은 승마훈련을 마쳤을 뿐이고 말은 전투 소음을 이겨낼 음향훈련이 안되어 있었다. 그러니 갑자기 포탄이 말 옆에서 작렬하고 총탄이 날아오니 말이 놀라 뛸 수 밖에…. 이때부터 병사들은 말을 붙잡으랴, 적을 막아내랴 우왕좌왕하게 되니 싸움이 되지 않았다. 전투가 그 모양으로 엉켜 들자 김포 지구에 출동하였다가 돌아온 최영화(崔泳華) 소위는 분개한 나머지 홀로 적중돌격을 감행하다 장렬히 전사했다. 그때에 달아난 말들이 귀소본능으로 한강을 헤엄쳐서 한남동으로 가는 것을 보고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떤 말은 적진으로 달아나고 있었지만 차마 총으로 쏠 수가 없었다. 나중에 들으니 나의 말은 당시 한남동의 연대본부 근처에 있던 내 집으로 찾아가 미처 피난하지 못한 집사람들을 크게 놀라게 하였다는 것이다."[44]

북한군에 비해 화력에서 열세인데다 불의의 기습을 당한 상태여서 제2기병대대는 효과적인 저항을 하기 힘들었다. 결국 제2기병대대는 남은 말들을 수습해서 재편성을 하기 위해 철수할 수 밖에 없었다. 국군 기갑연대 제2기병대대가 화력 부족을 병력과

41)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Washington, D.C.: Office of Air Force History, United States Air Force, 1983, pp.32-33.
42) 양영조·남정옥 외, 앞의 책 189쪽.
43) 라주바예프, 앞의 책 168쪽.
44) 한남전우회 편, 앞의 책 136~137쪽.

마필 손실을 입고 밀려나자 혼성 제2사단장 임선하 대령은 역삼동 부근에 집결해 있던 최수창(崔秀昌) 중령이 지휘하는 제3연대에 파쇄공격을 명령했다. 국군 제3연대는 사단장의 공격 명령을 받자 먼저 탁백진(仛百振) 소령이 지휘하는 제1대대를 신사동의 기갑연대 제2기병대대 방어선으로 증원했다. 제3연대 1대대는 신사동에서 북한군 제8연대 소속의 1개 중대를 격파한 뒤 한강변 까지 추격했다. 이때 북한군은 장갑차와 76mm 포 등의 중장비를 하역하다가 국군 제3연대 1대대의 공격을 받고 다수의 중장비를 상실했다. 그러나 제3연대 1대대는 북한군의 강력한 포격 때문에 한강변을 고수하지 못하고 다시 철수했다.[45] 북한군 제3사단은 국군 제3연대의 반격을 격퇴한 뒤 계속 병력을 도하시켰다.

한편 국군 혼성 제2사단장 임선하 대령은 제3연대가 북한군의 공격에 밀려나나자 6월 30일 오후 16시경 수원에서 증원된 제5연대에 말죽거리 동쪽의 95고지와 우면산을 잇는 진지를 편성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천호동 방면에 대기하고 있던 육군사관학교 생도대대는 피난민에 섞여 침투를 시도하던 북한 공작조 3명을 생포해 심문한 뒤 북한군이 한남동-서빙고 방면으로 도하할 예정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뒤 판교로 이동했다. 이 상황을 보고받은 육군사관학교장 이준식(李俊植) 준장과 부교장 이한림(李翰林) 대령은 재편성 중이던 보병학교 교도대의 일부 병력을 지휘하여 판교로 이동했다. 생도대대와 합류한 이준식 준장은 6월 30일 17시 생도대대를 판교 남쪽 1km 지점의 진지에 배치하고 북한군이 말죽거리 방면에서 돌파해 올 것에 대비하였다. 또한 수원에 집결해 있던 임시 제3사단 제25연대(연대장 김병휘(金炳徽) 중령)가 오후에 판교 방면에 증원되어 생도대대와 함께 방어 태세를 갖추었다.[46]

북한군 제3사단은 7월 1일 오전까지 사단 병력의 50%를 한강 남쪽으로 이동시키는데 성공했다.[47] 한편 7월 1일 채병덕 소장을 대신해 육군 총참모장에 임명된 정일권(丁一權) 소장은 6월 30일의 전황을 분석한 뒤 말죽거리-판교-풍덕천-수원으로 이어지는 방면의 방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일권 소장은 이날 혼성 제2사단장에 육군사관학교 부교장 이한림 대령을 임명하고 임선하 대령은 투입될 예정인 미군과의 연락 도모를 위해 한미 연락장교단에 배치하였다. 이한림 대령은 7월 1일 18시 사단 지휘소에 도착해 지휘권을 인수한 뒤 한강변의 진지를 시찰하였다.[48] 이한림은 후일 회고록에서 이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7월 1일 새벽, 우리의 한강 이남의 진지 전면에 적의 공격이 개시되었다. 당시 육군본부 인사국장이었던 신상철 대령도 전선으로 독전을 나와 있었다. 전투는 점차 치열해졌다. 9시가 되자 전보 한 장이 나에게 날아왔다. 육군본부 명령으로 제2사단장으로 부임하라는 것이었다. 제2사단은 원래 대전에 있었지만 의정부 전선에 축차 투입되어 산산조각이 난 후 다시 재건하여 관악산에서 지금 교전중에 있다는 것이다.

45) 양영조·남정옥 외, 앞의 책 190쪽.
46) 양영조·남정옥 외, 앞의 책 191쪽.
47) 라주바예프, 앞의 책 169쪽.
48) 양영조·남정옥 외, 앞의 책 198쪽.

(중략)

저녁이 꽤 늦어서 제2사단 사령부에 당도했다. 당시 2사단은 문용채 중령이 지휘하는 16연대, 유해준 중령이 지휘하는 보병학교 연대, 박기병 중령이 지휘하는 20연대, 강태민 중령이 지휘하는 22연대, 이렇게 4개 연대로 구성되어 있었고 작전참모에 이석봉 소령, 정보차모에 이세호 소령, 군수참모에 박원근 소령 등이 있었다. 사단 사령부는 부락의 한 집에 자리잡고 있었고 전화기 한 대가 가설되어 있을 뿐이었다. 이미 해가 저물어 부대 파악은 곤란하였다. 그러나 사단 참모장 김동빈 중령과 함께 부대 시찰에 나갔다. 사병들은 계속된 전투에 참가하느라 피로하여 그런지, 일선에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처 학교에 내려가서 자고 있지를 않나 군기가 엉망이었다."[49]

이한림의 회고는 당시 혼성 제2사단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잘 보여준다. 한강 방어선이 무너지는 급박하고 혼란한 상황에도 사단 사령부가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은 유선 전화 정도에 불과하고 장병들은 수일간의 격전으로 피로가 극한에 달해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북한군의 공격이 계속됐다. 북한군 제3사단은 제1제대의 도하를 완료하고 다시 남쪽으로 진격할 태세를 갖추었다. 성남 방면의 국군도 부족한 전력을 집결시켜 북한군의 진격에 대비했다. 이렇게 하여 성남 방면 전투가 시작되게 되었다.

4. 성남 방면 전투

판교 남쪽 1km 지점에 배치되어 있던 육군사관학교 생도대대는 7월 1일 새벽 수색대를 판교 북쪽으로 보내 정찰을 하던 중 북한군의 선발대가 시흥동 방면에서 남하하는 것을 발견했다. 북한군 선발대가 판교 서쪽의 낙생국민학교에 집결해 본대를 기다리는 것을 확인한 생도대대는 기습을 감행하기로 결정했다. 생도대대는 박경서 대위가 지휘하는 60mm 박격포 2문의 지원을 받으며 공격을 시작했다. 북한군은 생도대대의 공격을 받자 처음에는 혼란에 빠졌으나 곧 전열을 가다듬고 대응했다. 북한군의 화력이 우세했기 때문에 생도대대는 기습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점차 밀리기 시작했다. 게다가 박경서 대위의 박격포반이 휴대한 박격포탄도 250발 밖에 되지 않아 전투가 격렬해지자 금방 소진되었다. 오전 8시가 지나자 생도대대는 북한군에 압도되어 철수하기 시작했다. 이때 생도대대 좌측에 포진해 있던 국군 제25연대는 북한군이 생도대대의 진지에 돌입하자 즉시 역습을 개시했다. 제25연대는 북한군을 격퇴하고 생도대대의 진지를 탈환했다. 그러나 북한군이 증원되면서 제25연대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 제25연대장 김병휘 중령은 직접 제2, 3대대장과 함께 역습부대를 편성해 공격했으나 북한군의 강력한 화력에 제3대대장 고동서(高東曙) 소령이 전사하는 피해를

49) 이한림, 『이한림 회상록 : 세기의 격랑』 (서울: 팔복원, 2005), 147～149쪽.

입고 물러났다. 제25연대도 큰 피해를 입으면서 방어선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졌다. 김동휘 중령은 제25연대를 금곡동으로 철수시켰다. 한편 금곡동에는 7월 1일 오전 수원에서 증파된 임시 제3사단 22연대가 배치되어 있었다. 제22연대는 제25연대가 판교에서 북한군과 교전하는 동안 금곡동의 114고지 일대에 진지를 편성했다. 이리하여 말죽거리-금곡동을 잇는 축선은 이준식(李俊植) 준장이 지휘하는 국군 제3사단이 전담하게 되었다.[50]

북한군 제3사단은 7월 2일에는 예비대로 있던 제9연대와 사단 직할 부대들을 자양동 방면에서 도하시켰다. 북한군 제3사단은 한강 도하를 완료한 뒤 암사동-죽전 방면으로 진격해 수원을 동북쪽에서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51] 한편 신사동 일대에 집결한 북한군 제8연대는 말죽거리 일대에 배치된 국군 제5연대의 방어선을 공격했다. 북한군 제8연대의 맹공으로 국군 제5연대장 최창언(崔昌彦) 중령이 부상을 입었다. 결국 제5연대는 과천 방면으로 철수해 병력을 수습하게 되었다. 그 결과 말죽거리 방면이 북한군 제8연대에 완전히 개방되고 말았다. 이한림 대령은 제5연대가 고전한다는 보고를 받자 과천에 배치되어 있던 보병학교 혼성연대를 투입하기로 결심했다.[52]

북한군 제3사단장은 예비대로 있던 제9연대에도 공격을 명령했다. 한강 도하를 마친 뒤 둔전동 부근에 집결해 있던 북한군 제9연대는 7월 2일 오전에 공격을 시작했다. 그러나 국군 혼성 제3사단이 맹렬하게 역습을 가해 북한군 제9연대의 1제대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북한군 제9연대장은 연대의 예비대를 투입해서 국군의 공격을 격퇴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혼성 제3사단은 지속적으로 역습을 개시해 북한군 제9연대에 손실을 강요했다.[53]

한편 이한림 대령의 명령을 받은 보병학교 혼성연대는 7월 2일 새벽 과천-말죽거리 도로를 따라 이동해 193고지에 도착했다. 이때 연대는 보급품을 수송하던 북한군의 트럭 종대를 발견해 기습하고 평촌으로 도주한 잔당을 소탕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보병학교 혼성연대는 북한군 보급부대를 격파한 뒤 193고지 일대에 진지를 구축하고 방어태세를 갖추었다.[54] 보병학교 혼성연대가 북한군 보급부대를 섬멸하면서 금곡동 방면을 방어하는 국군 혼성 제3사단은 방어에 상당한 도움을 받게 되었다. 북한군은 7월 3일 공격을 재개했다. 금곡동에서 국군 제22연대와 제25연대가 미국 공군의 지원을 받으며 북한군 제3사단의 공격을 저지하는 동안 수원에서 재편성을 마친 국군 제1사단이 7월 3일 오후 용인 풍덕천 방면으로 진출해 진지를 편성하였다. 국군 제1사단이 진지를 편성하자 제22연대와 제25연대는 금곡동에서 철수를 시작해 7월 3일 오전 풍덕천 일대의 국군 제1사단에 합류하였다. 국군 금곡동에서 제22연대와 제25연대가 방어전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국군 제1사단은 풍덕천 방어선을 구축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안양-군포 방면의 전선이 무너지면서 국군 제1사단도

50) 양영조·남정옥 외, 앞의 책 198-200쪽.
51) 라주바예프, 앞의 책 169쪽.
52) 양영조·남정옥 외, 앞의 책 202-203쪽.
53) 라주바예프, 앞의 책 169쪽.
54) 양영조·남정옥 외, 앞의 책 203-쪽.

7월 4일 오후 금곡동-풍덕천 지구의 방어선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여 성남 지역의 전투가 일단락 되었다.

5. 맺음말

이 짧은 글로 성남 지역에서 전개된 전투의 양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다. 전투의 많은 부분을 참전자들의 불완전한 회고에 의존해 재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남아있는 문헌 자료가 매우 적기 때문에 참전 용사들이 남긴 증언의 신뢰성을 교차검증하는 일도 상대적으로 어렵다. 게다가 성남 지역에서 전개된 전투는 기간이 짧았던 반면 한국군이 투입한 부대는 많았다. 당시 국군은 급박한 전황 때문에 단기간에 재편성한 부대들을 성남 방면에 대거 투입했다. 이렇게 전투의 양상이 혼란하게 진행된 데 비해 자료는 부족해서 6·25전쟁 초기 성남 지역에서 전개된 전투를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참전 용사들의 귀중한 증언 자료를 바탕으로 이 전투의 윤곽을 그릴 수는 있다. 당시 국군은 불리한 여건에서도 선전하여 압도적인 전력을 가진 북한군에 맞섰다. 성남 지역에서 전개된 전투가 낙동강 방어선 까지 이어지는 지연전의 일부로 북한군의 전투력을 소모시켜 아군이 반격을 감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하는데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김행복, 『6·25전쟁과 채병덕 장군』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블라지미르 라주바예프 저, 기광서·백준기·이신철 역,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 전쟁 보고서 1』,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박동찬, 「한국전쟁의 발발과 전개」, 『성남시사 2 : 한눈에 보는 성남의 기록』 (성남: 성남시사 편찬위원회, 2014)

손승호, 「교통로와 시장의 발달」, 『성남시사 1 : 자연환경과 인문·사회지리』 (성남: 성남시사편찬위원회, 2014)

양영조·남정옥 외, 『6·25전쟁사 3 : 한강선 방어와 초기 지연작전』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이한림, 『이한림 회상록 : 세기의 격랑』 (서울: 팔복원, 2005)

한남전우회 편, 『육군 독립기갑연대사 : 번개부대의 6·25혈전기』 (서울: 도서출판 한컴, 1997)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Washington D.C.: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61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Washington, D.C.: Office of Air Force History, United States Air Force, 1983

6.25민간인 희생자 義死團 활동

윤 종 준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 상임위원)

6.25민간인 희생자 義死團 활동

윤 종 준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머리말
1. 6·25전쟁시 의사단 피살일시와 장소
2. 의사단(義死團) 추모비 - 殉命義士倡義碑
3. 6.25사변 중 피살자명부
맺음말

머리말

6.25사변은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 전쟁이었다. 산업시설의 파괴는 물론 인명 피해와 1천만 이산가족의 발생을 초래하였다. 특히 남과 북이 평화적 통일을 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주었다.

이 글에서는 6.25 당시 광주지역 민간인 피살현황을 조사하였고, 특히 광주군 돌마면이었던 성남 분당구 지역에서 의사단(義死團)이라는 현대판 의병단체가 존재하였다는 사실과 이들이 공산군의 계략에 휘말려 28명이 희생되고 12명이 생존한 사실을 밝혔다.

지금까지는 의사단의 존재만 인식하고 있었으나, 희생자의 주소지와 직업, 피살된 장소와 피살된 일시를 밝혀냈다. 이제 의사단 단원들의 희생을 추모하고 기념하는 사업을 펼치는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 6·25전쟁시 의사단 피살일시와 장소

6.25전쟁의 전황(戰況)은 이중근 편저, 『6.25전쟁 1129일』(요약본)에서 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 25일부터 다음해 10월 말까지의 전황 및 주요사건 내용 중 전쟁의 주요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55] 이 자료에다 경기도 광주군 지역

55) 이중근 편저, 『6.25전쟁 1129일』(요약본).우정사. 2013.7.29.

에서 피살된 사람들의 이름과 피살 장소를 피살된 날짜에 추가하였다.

■ 6월 25일(일요일, 비·아주 맑음)

▫ 전황 : 북한군 (인민군) 전면 남침. 새벽4시, 남침암호 '폭풍'을 전군에 하달. 38도선 전역에 걸쳐 북한군 11개 지점에서 침공, 북한군 선두 부대, 임진강 도하.

▫ 채병덕 육군총참모장, 북한 지상군 4만 명 내지 5만 명 및 전차 94대가 남침을 개시했다고 발표.

▫ 국내 : 이승만 대통령, 유엔한국위원회와 긴급회의, 평화적 해결 희망, 정부 각 기관, 비상사태돌입, 신성모 총리서리 겸 국방부장관, 미국에 무기원조 요청.

▫ 유엔한국위원회, 북한 측에 즉시 전쟁 중지 요구, 평화회담을 통해 사태 해결하라고 방송.「비상사태하의 범죄처단에 관한 특별조치령」(대통령령 긴급명령 제 1호) 공포.

▫ 해외 : 유엔안보리, 특별회의를 개최하여 한반도에서 전투 중지와 북한군의 38도선 철수 결정, 미국이 요구한 정전요구결의안 채택(9:00, 소련불참, 유고 기권.)

▫ 연합군최고사령부(SCAP), 한국에 무기 긴급 공수. 트루먼 대통령, 38선 이남 지역에 국한된 미 해·공군작전 승인.

■ 6월 26일

▫ 전황 : 북한기 2대, 김포비행장과 여의도비행장 재폭격.

미 무스탕기(F80대) 1대, 서울 상공에서 소련제 야크 전투기와 첫 공중전.

▫ 북한 군사위원회 설치

(위원장 : 김일성, 위원 : 박헌영·홍명희·김책·최용건·박일우·정준택).

▫ 해외 : 맥아더 원수, 일본 정부에 공산당지『적기』정간 지령.

▫ 유엔한국위원회, 북한의 남침이 계획된 전면적 기습침략이라고 리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고.

■ 6월 27일(흐리고 비)

▫ 국내 : 정부, 대전으로 수도 이전.

▫ 해외 : 유엔한국위원회, 도쿄로 이전.

트루먼 대통령, "6·25 전쟁은 공산세력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해 도발한 불법 남침이다."라는 성명 발표.

미 국무부, "맥아더 원수를 한국작전의 최고사령관에 임명한다."라고 발표.

▫피살자 : 언주면 소사리(서울 강남구) 거주하는 최광운이 주소지 뒷산에서 피살됨

언주면 신사리(강남구 신사동) 안태영(23)이 마을 뒷산에서 피살됨

■ 6월 29일

▫ 국내 : 이승만 대통령, 방한한 맥아더 미 극동군사령관과 회동.

▫ 해외 : 유엔안보리, 한국군사지원 결의안 채택.

■ 6월 30일(금요일, 흐리고 비)

▫ 전황 : 미국 전방지휘소, 수원에서 대전으로 이전.
▫ 국내 : 약 500명의 학생, 수원에서 비상학도대 조직.
▫ 해외 : 32개국, 유엔안보리에서 한국 무력원조 결의안 지지 표명.
맥아더 미 극동군사령관, 주일미군 제24사단 사용 권한 및 38선 이북에 대한 미 공군 공격권 수령.
▫ **피살자 : 남종면 분원리 거주 변규현(32)이 주소지에서 피살됨**

■ 7월 1일(비)

▫ 전황 : 미 지상군 선발대 부산 도착, 한·미(정일권·처치)간 연합작전 협조.
▫ 외신 : 중공군 부대가 압록강 연안에 집결 중이라고 보도.
▫ **피살자 : 문천란(文千蘭, 55세). 대왕면 신촌리(성남시 신촌동)에 거주하던 중 피살됨**
(명부상으로는 성남지역 유일한 여성 피해자)
구천면 상일리(강동구 상일동) 거주하는 심로섭(35)이 구천면 곡교리(강동구 굽은다리)에서 피살됨

■ 7월 2일

▫ 전황 : 북한군 용인 점령, 북한 공군 전력 100대에서 110대로 증강.
▫ **피살자 : 대왕면 세곡리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던 23세 김장수(金長壽)가 대왕면 둔전리(현 성남 둔전동)에서 피살됨.**

■ 7월 3일

▫ **피살자 : 둔전리 거주 이태근(30)과 함흥 출신으로 세곡리에 거주하던 상업인 이성만이 둔전리에서 피살됨. 대왕면 시흥리(성남 시흥동) 거주 최귀남(22)이 주소지에서 피살됨. 도척면 노곡리 거주 최권이(57)가 주소지에서 피살됨.**

■ 7월 4일

▫ 전황 : 맥아더 원수, 대전에 주한미군사령부 설치, 미군 부산기지사령부 설치,
육군본부, 대전으로 이전.
평양방송, 김일성이 '인민군최고사령관'에 취임했다고 방송.
「남한 '해방지구'에서의 토지개혁 실시강령」 발표.

■ 7월 5일(비)

▫ **피살자 : 도척면 진우리 신대현(25)이 이천 마장면 관리에서 피살됨.**

■ 7월 7일

▫ 국내 : 이승만 대통령, 북한군 포로를 인도적으로 대우하라고 명령.
▫ 해외 : 유엔안보리, 유엔통합군사령부 설치할 것과 미국 측에 사령관 임명 요청하는 결의안 채택. 유엔통합군사령부 설치하고 유엔군사령관에 맥아더 원수 임명.

■ 7월 9일(비오고 흐림)

▫ **피살자 : 남종면 분원리 거주 홍창성(32)이 초월면 상번천리에서 피살됨.**

■ **7월 10일**

▫ 국내 : 이승만 대통령, 북한의 침략으로 38도선 효력 소멸되었다고 주장.

■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 맥아더 원수에게 한국군 작전지휘권 이양 서한 전달(대전 협정).
정부, 대전에서 대구로 이동.

■ **7월 18일**

▫ **피살자 : 낙생면 궁내리(성남 궁내동)거주하는 이영복(29)이 주소지에서 피살됨**

■ **7월 19일(비오고 흐림)**

▫ **피살자 : 구천면 암사리(강동구 암사동) 거주 박성복(26)이 중부면 상곡리(하남시 상산곡동)에서 피살.**

■ **7월 20일(흐리고 비)**

유엔군, 대전비행장에서 신로켓포로 북한군 전차 7대 격파.
대전 상실, 미 24사단장 딘 소장 실종.
김일성, 전선사령부가 있는 수안보에서 독전명령, "8·15까지 부산 점령하라."

■ **7월 21일(흐리고 비)**

북한군, 대전을 압박하면서 전주와 남원까지 진격, 북한군, 영덕 돌입.

■ **7월 22일(비)**

딘 소장 20일 이후 계속 행방불명[56)]

■ **7월 25일**

미 제1기병사단, 영동 서북방 12Km 진지 확보.
한국 수도사단 기갑연대, 청송에서 접전 개시.

▫ **피살자 : 남종면 수청리 거주 정재홍(39)이 남종면 분원리에서 피살됨**

■ **7월 27일**

미군, 영동터널 폭격으로 북한군 대부대 궤멸.
채병덕 소장 하동에서 전사.

■ **7월 29일(비오고 흐림)**

56) 윌리엄. F. 딘 :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 북한군에 납치되었다가 휴전 후에 미국 육군소장으로 예편하였다.

부산 직장의용대, 조직결성 및 궐기대회개최.

▫ **피살자 : 김수근(37)이 언주면 대치리(강남구 대치동) 집 앞 강가에서 피살됨**

■ 7월 30일(비)

애틀리 영국 수상, 북한군 남침은 공산주의 세계적 음모의 일환이라고 연설.

▫ **피살자 : 대왕면 오야리(성남 오야동) 거주하는 경찰관 이규철(36)이 서부면 감북리(하남시 감북동)에서 피살됨.**

■ 8월 3일

북한, 남한 침략지역에서 1만 8,000개 농민위원회 조직.

■ 8월 4일

부산 교두보의 유엔군 총병력 14만 1,808명(국군 8만2,000명, 미군 4만7,000명, 기타 1만 2,808명).

▫ **피살자 : 실촌면(곤지암읍) 유사리 거주 이기수(26)와 이주만(23)이 여주군 금사면 하호리에서 피살됨.**

▫ **피살자 : 석진국(29)이 서부면 항리(하남시 항동, 고골)에 거주하던 중 국군이 오기 전에 잘못 판단하여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다가 서부면 감북리(하남시 감북동)에서 피살됨. (전 하남시재향군인회장 구자관 증언)**

▫ **피살자 : 엄형섭(22) 서부면 춘궁리(하남시 춘궁동) 거주하던 중 광암리에서 피살됨.**

■ 8월 5일(흐리고 비)

마오쩌둥, 동북변방군은 “이달 내에 모든 작전 준비를 완료하라”라고 명령.

■ 8월 10일

▫ **피살자 : 남종면 분원리 거주하는 이석근(31)이 초월면에서 피살됨**
퇴촌면 오리에 거주하는 이종식(33)이 쌍령리에서 피살됨
서부면 감북리(하남시 감북동) 거주하는 청년단장 박수철(45)과
서부면 감북리 청년단 부단장 박상천(48)이 동부면 미사리(하남시 미사동)에서 피살됨.
서부면 춘궁리 거주 조민식(39)이 동부면 미사리에서 피살됨
서부면 감일리 거주 구성회(56)가 서부면 광암리(하남시 광암동)에서 피살됨-
(실제 나이는 59세, 조카 구자관 전 하남시재향군인회장의 증언)
서부면 감일리 거주 구중회(39)가 미사리에서 피살됨
퇴촌면 광동리 거주 면장 임택현(49) 퇴촌면 오리 거주 임봉식(36)이 쌍령리에서 피살됨
퇴촌면 광동리 거주 조원선(36)과 퇴촌면 도마리 조관중(45 정미소)이 서울에서 피살됨.

■ 8월 11일

▫ **피살자 : 남종면 귀여리 거주 한기익(35)과 분원리 거주 한숙교(35)가 분원리에서 피살됨**

■ 8월 13일

학도병, 낙동강 전투에서 북한군 300여 명 격퇴.

□ **피살자 : 실촌면(곤지암읍) 건업리에 거주하는 이중건(57)과 이중현(39)이 건업리에서 피살됨.**

■ 8월 18일

국내 : 정부, 대구에서 부산으로 이동.

철수작전에 동원된 차량 현황 : 객차 3,354량, 화차 1만1,755량.

■ 8월 19일

국내 : 금산군 금성면 화림리 골짜기에서 금성면 주민 14명 희생사건 발생.[57]

■ 8월 25일

□ **피살자 : 중부면 탄리(성남 태평동) 거주하는 박춘봉(65), 박억천(64), 박진원(46)이 수진리(성남 수진동)에서 피살됨**

■ 9월 1일

□ **피살자 : 구천면 상일리(강동구 상일동) 거주 한창성(33)이 구천면 곡교리(강동구 굽은다리)에서 피살됨**

■ 9월 2일

□ **피살자 : 대왕면 신촌리(성남 신촌동) 거주하는 이석동(31)이 중부면 수진리(성남시 수진동)에서 피살됨**

■ 9월 12일

□ **피살자 : 남종면 수청리 거주 유현종(22)이 분원리에서 피살됨**

■ 9월 13일(비)

□ 피살자 : 도척면 도웅리에서 농민 김기성(61 농)과 학생 안보현(19)이 피살되고,
실촌면(곤지암읍) 건업리에서 박성희(58), 박성삼(38), 박성석이 주소지에서 피살됨.

□ **의사단 최초 피살자 : 남상필(17)이 돌마면 율리(성남 분당구 율동) 주소지에서 피살됨**

■ 9월 14일(비오고 흐림)

□ **피살자 : 쌍령리에서 의사단원 3명 피살됨**
오포면 신현리 거주하는 교사 김운권(26)
오포면 신현리 거주하는 교사 구철모(22)
오포면 신현리 거주 용산경찰서 경찰 장태영(23)

57) 1950년 8월 19일 금성면 화림리 화림저수지 인근 구주바위 골짜기에서 김재준 등이 희생된 사건

■ 9월 15일(비오고 흐림)

유엔 해병대, 인천상륙 개시

월미도 탈환, 오후 5시30분에 주력 공격 개시.

유엔군 병력 약 7만 명, 유엔군 전함 260여 척과 공군의 지원하에 상륙작전.

국군 해병대, 인천상륙잔전과 동시에 해안 상륙.

□ **피살자 : 오포면 신현리 거주하는 김광렬(27)과 이희덕(34), 서만석(34) 3명이 오포면 고산리에서 피살됨.**

■ 9월 16일(토요일, 비)

□ **피살자 : 남종면 분원리 거주 경찰관 이영재(26)가 주소지에서 피살됨**

■ 9월 18일

서울에서 역습해온 북한군 전차 16대 격파, 국군 선발대, 영등포 돌입.

유엔 해병대, 서울 서북방 한강에서 진격, 다른 해병대는 경인가도로 전진.

북대서양조약기구 이사회, 최종회의 '유럽통합군(NATO군)' 창설 승인.

■ 9월 19일

해병대 탐색대, 4개처에서 한강 도하, 선봉대, 서울 서남 교외 3km에 돌입.

국군 및 유엔군, 한강 도하, 김포비행장 사용 개시.

이승만 대통령, 인천상륙 축하식에서 통일 방해 불허, 국군은 한·만 국경 진격 명령.

□ **피살자 : 중부면 상산곡(하남시 상산곡동)에서 다수의 피살자 있었음**

구천면 곡교리(강동구 굽은다리) 거주 한청단장 양경찬(45)

구천면 곡교리(강동구 굽은다리) 거주 한청 부단장 김원배(47),

구천면 곡교리 거주하는 소방대장 김응옥(45),

구천면 곡교리 이규봉(32), 유석병(38), 황동환(45),

구천면 고덕리(강동구 고덕동) 거주하는 軍人 김종락(28),

구천면 성내리(강동구 성내동) 거주 유종식(26)

구천면 둔촌리(강동구 둔촌동) 거주 경찰관 최성창(33)

구천면 둔촌리(둔촌동) 거주 안종환(39)

구천면 명일리(강동구 명일동) 거주 신형련(28)

구천면 둔촌리(강동구 둔촌동) 거주 허연(32)

돌마면 진촌리(구천면 둔촌리를 잘못 표기한 듯) 거주 정방헌(33)

■ 9월 20일(수요일, 흐림)

해병대 탐색대, 한강 도하, 서울공략전 개시, 주력은 도하.

국군 해병대와 미 해병 제5연대, 한강 도하 수색으로 진격.

□ **피살자 : 광주군 돌마면(현재 성남시) 의사단(義死團) 단원들이 쌍령리에서 피살됨**

김점진(24 농), 김석진(28 농), 김춘식(31 경찰), 김흥준(50 농), 김만식(20 농),

김병규(35 상), 이각훈(35 농), 이복구(33 농), 이세구(25 면서기), 이선각(30 농),

이경구(22 농), 이인규(20 농), 이광석(32) 농), 이성규(21 학생), 이주백(30 농),
한민회(27 면서기), 조광필(26), 최운서(30), 공석표(20), 공석봉(21), 장일남(25 군인)

□ 의사단원은 아니지만 같은 날 쌍령리에서 피살된 사람 -
오포면 매산리 거주하는 경찰관 김건영(27)
하대원 거주 박상헌(23)
야탑리 거주 천현귀(35)
야탑리 거주 정광산(鄭光山, 28)- (의사단 희생자 중에 정주훈의 인적사항만 확인이 안되는데, 의사단원들이 피살당한 9월 20일 쌍령리에 정씨 성은 정광산 밖에 없고, 특히 정광산의 주소지가 돌마면 야탑리여서 정주훈의 다른 이름일 가능성이 있음)

□ 산성리 거주 이용순(56 상)이 남한산성 밖에서 피살되고, 도척면 노곡리 거주 이종우(36)이 주소지에서 피살됨. 경안 거주 상인 한철기(50)가 경안리에서 피살됨. 도척면 상림리 주소지에서 농민 장청본(21)과 오세화(20)가 피살됨.

■ 9월 21일

전황: 미 제5해병연대, 서울 서부 6km에 도달.
영등포의 북한군 보급소 폭파, 서울 전역에서 북한군 소탕전.
공산당원들, 서울에서 패주.
중앙고등군법회의, 한강철교 폭파 책임을 물어 공병감 최창식 대령에게 사형 선고
(사후 1964.11.14. 가족의 재심청구로 무죄 선고).

□ 피살자 : 산성리 거주 박경필(68 상업)과 박창서(30 상업)가 남한산성에서 피살됨.
남한산성 밖에서 김성만(29 농), 김연식(27 농), 김광록(42 농), 김동옥(42 농) 피살됨.
산성리 거주하면서 상업활동을 하던 추연상(23), 추광호(50), 추연철(27)과 초월면 상번천리에 거주하던 추양호(30 상업), 검복리 거주 임무성(45), 산성리 거주 석진완(23), 광지원 거주 강신상(61)이 남한산성 밖에서 피살됨.

■ 9월 22일

인천상륙 유엔군 (미 제7사단), 남하하여 수원에 돌입.
국군 해병대, 서대문으로 구시가지 돌입.
양평지역 거주 남성 33명, 좌익세력에 연행되어 총살[58)]
□ 피살자 : 남종면 수청리 거주 이인업(43), 유삼복(28), 함연수(26), 함정수(27) 등 같은 마을 주민 4명이 남종면 분원리에서 피살됨. 동부면 덕풍리(하남시 덕풍동) 거주 금융조합 서기 유태근(26)이 한강 강변에서 피살됨.

■ 9월 23일

김일성, 북한군(인민군) 총후퇴명령 하달.

58) 6.25사변 중 양평군의 피학살자는 강상면 27명, 강하면 39명, 개군면 12명, 단월면 26명, 서종면 24명, 양동면 16명, 양서면 16명, 양평면 144명, 옥천면 27명, 용문면 124명, 지제면 22명, 청운면 16명 등 493명인데, 9월 22일에 대량학살이 일어났다. 피살자 명단이 장삼현교수가 편찬하고 양평문화원에서 발행한 『양평전란사략』(2006)에 수록돼 있다.

■ 9월 24일

▫ **피살자 : 중부면(남한산성면) 산성리에서 4명 피살됨**
수진리 거주하는 한청총무 42세 김용운,
수진리 거주하는 한청단장 34세 이은석,
수진리 거주하는 28세 이정희
창곡리 거주하는 70세 이성재

■ 9월 25일

북한군, 서울에서 개전 이래 최대 저항, 해병대 진격 670m

▫ **피살자 : 도척면 노곡리 거주 이성우(30)가 주소지에서 피살됨.**
도척면 출신 군인 임성택(28)이 원미리에서 피살됨.
도척면 노곡리 주소지에서 신대희(33)가 피살됨
동부면 망월리(하남시 망월동) 홍성규(27)이 동부학교 뒷산에서 피살됨.

■ 9월 26일(화요일, 음력 8.15. 추석. 비)

▫ **피살자 : 동부면 덕풍리(하남시 덕풍동) 유춘근(33)이 서부면(하남시) 산에서 피살됨**

■ 9월 27일(음력 8.16)

▫ **피살자 : 대왕면 신촌리(성남 수정구 신촌동)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던 19세의 김창경(金昌經)과 20세의 김수철(金壽喆)이 대왕면 세곡리(서울 강남구 세곡동)에서 피살당함.**
세곡리 거주 이희석(36)이 둔전리에서 피살됨.
신촌리 거주하는 이수안(24)과 이등백(28)이 세곡리에서 피살됨.
대왕면 수서리(강남구 수서동) 거주하는 학생 정봉기(19)와 정근수(28 농)가 세곡리(강남구 세곡동)에서 피살됨.

■ 9월 28일

이승만대통령, 탈환지역에서의 사적 원한에 의한 타살, 구타금지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맥아더 원수, 북진계획 개요 보고

■ 9월 29일

이승만 대통령 서울 귀환
미국, 유엔군의 북진계획 승인

■ 9월 30일

워커 미 8군사령관, 국군에 38선 돌파명령

▫ **피살자 : 황해도 출신으로 남종면 분원리에 거주하던 금융조합 서기 이민구(36)가 주소지에서 피살되고, 오포면 매산리 거주 이상진(39)이 용인 모현면 왕산리에서 피살됨.**

■ 10월 1일(일요일)

국군3사단, 수도사단 38선 돌파
김일성, 모택동에게 파병요청

■ 1950년 10월 23일
도척면 도웅리에서 김준기(32), 김성식(38), 김학두(25 상) 피살됨

■ 1951년 1월 4일
개성-서울, 연천-서울 간 도로를 진격중인 중공군 부대, 유엔군에 근접하여 국군과 유엔군, 서울 철수

■ 1951년 1월 25일~2월20일
국군과 유엔군이 한강 남쪽에서 위력 수색작전 개시하여 썬더볼트작전 수행
이 기간 중 성남 불곡산, 용인 법화산 등지에서 격전(국군 유해발굴)

■ 1951년 1월 7일
중부면 단대리(성남시 단대동) 자택에서 김영조(70, 농업) 피살됨

■ 1951년 1월 25일
초월면 용수리 거주 이인환(39)이 무갑산에서 피살됨
초월면 늑현리 거주 허흔(35)이 퇴촌면 정지리에서 피살됨

■ 1951년 10월 23일
용인 포곡리(용인시 포곡면) 거주하는 박봉희(26)가 주소지에서 피살됨

2. 의사단(義死團) 추모비 - 殉命義士倡義碑

제1절. 순명의사창의비(殉命義士彰義碑) 해설

<순명의사창의비>는 6.25 당시에 돌마면사무소 앞에 세워졌는데, 그 후 몇 차례 이전을 거듭하다가 분당구 이매동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정문 입구 우측으로 이전되었다가, 2021년 6월에 이매역 1번 출구로 이전하였다. <순명의사창의비(殉命義士彰義碑)> 옆으로는 돌마면장 이근학(李根鶴) 송덕비와 물방아골의 상징인 물레방아가 나란히 서 있다.

이 비석은 6.25사변 때 이 땅에서 공산당을 몰아내기 위해 이 지역에서 주민들이 나서서 조직된 <의사단(義死團> 단원들이 희생된 의로움을 빛내고자 세운 기념비이면서 추모비이다. 이 비석에는 의사단 단원 중 순명(殉命)자 28명과 생존자 12명의 명단이 새겨져 있다. 의사단은 현대사의 의병단체라 할 수 있다. 박은식은 의병이 민족의 정수(精髓)라고 했으니, 의사단 단원들의 희생은 성남의 고귀한 정수이다.

비석이 세워진 시기는 단기 4283년 11월이고 건립한 주체는 돌마면 면민들이다.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1월에 세워진 것이다.

돌마면 주민들은 6.25 전쟁 초기에 의롭게 죽을 것을 결심하고 義死團을 결성하여 북한 공산군을 몰아내고 우리 고장을 지키기 위해 떨쳐 일어섰다가 기밀이 누설되어 28명의 희생자를 낸 것이다.

비석의 앞면 가운데 줄에는 '殉命義士彰義碑'라 새기고, 양 옆으로 4자 12행, 한문으로 쓴 추모의 시가 새겨져 있다. 뒷면에는 희생자 명단과 생존자 명단을 새겼는데, 생존자의 명단은 희생자의 이름보다 작은 글씨로 새긴 것이 특징이다. 옆면에는 비석의 건립 연월과 건립자인 돌마면면 일동이라고 새겼다. 이 비문으로 보아 의사단원은 총 40명이었음을 알 수 있다.

殉命義士彰義碑

(목숨을 바친 義士들의 義를 빛내고자 세운 비)

北賊猖狂　북쪽 적들이 미쳐 날뛰니,
到處飜覆　도처에서 뒤집어지고,
國民塗炭　국민은 도탄에 빠져,
幾乎全滅　거의 전멸할 지경이었도다.
當此之時　이런 때를 당하니,
豈不寒心　어찌 한심치 않으리오.
卄八義士　스물여덟 의사가,
以死團結　죽음으로써 단결하여,
滅賊壯志　적들을 물리치려는 장한 뜻이 있었으나,
機漏返殃　기밀이 누설되어 오히려 재앙을 당하였으니,
哀此遺恨　애통하구나! 이에 남은 한이,
千載不泯　천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으리.

목숨을 바친 의사(義士)들의 꽃다운 이름(28인)

金錫振(김석진), 金点振(김점진), 李福求(이복구), 李世求(이세구),

金春植(김춘식), 韓敏會(한민회), 張一龍(장일룡), 李仁圭(이인규),
趙光弼(조광필), 李光奭(이광석), 李盛圭(이성규), 李柱明(이주명),
朴尙憲(박상헌), 金萬植(김만식), 具喆模(구철모), 申敬雲(신경운),
李珏薰(이각훈), 李善珪(이선규), 南相弼(남상필), 孔錫奉(공석봉),
張泰英(장태영), 孔錫杓(공석표), 金雲權(김운권), 鄭柱薰(정주훈),
崔雲瑞(최운서), 李景求(이경구), 金秉基(김병기), 金興俊(김흥준).

의사단원 중 생존자(12인)

南相舜(남상순), 李宗烈(이종렬), 姜寅秀(강인수), 柳志昌(류지창),
李鐘瓚(이종찬), 金振星(김진성), 李世烈(이세열), 李柱環(이주환),
鄭永薰(정영훈), 鄭昌鉉(정창현), 林成奎(임성규), 李容卨(이용설)

단기 4283년 11월 일

돌 마 면 민 일동

목숨을 바친 의사(義士)들의 꽃다운 이름(28인)

성 명	성별	연령	직업	피살연월일	피살장소	본적 및 주소	비고
金錫振	남	28	농업	1950.9.20	쌍령리	이매리	
金点振	남	24	농업	1950.9.20	쌍령리	이매리	
金春植	남	31	경관	1950.9.20	쌍령리	이매리	
李福求	남	33	농	1950.9.20	쌍령리	수내리	
李世求	남	25	면서기	1950.9.20	쌍령리	수내리	
韓敏會	남	27	면서기	1950.9.20	쌍령리	서현리	
張一龍	남	25	군인	1950.9.20	쌍령리	이매리	張一男
李仁圭	남	20	농업	1950.9.20	쌍령리	야탑리	
趙光弼	남	26	농업	1950.9.20	쌍령리	중대면 석촌리	
李光奭	남	32	농업	1950.9.20	쌍령리	야탑리	
李盛圭	남	21	학생	1950.9.20	쌍령리	야탑리	
李柱明	남	30	농업	1950.9.20	쌍령리	야탑리	李柱伯
朴尙憲	남	23	농업	1950.9.20	쌍령리	하대원리	
金萬植	남	20	농업	1950.9.20	쌍령리	야탑리	金滿植
具喆模	남	22	교원	1950.9.14	쌍령리	오포면 신현리	
申敬雲	남	53	농업	1950.9.14	쌍령리	이매리	
李珏薰	남	35	농업	1950.9.20	쌍령리	정자리	
李善珪	남	35	농업	1950.9.20	쌍령리	서현리	李善珏
南相弼	남	17	농업	1950.9.13	주소지	돌마면 율리	
孔錫奉	남	21	농업	1950.9.20	쌍령리	야탑리	
張泰英	남	23	경관	1950.9.14	쌍령리	오포면 신현리	
孔錫杓	남	20	농업	1950.9.20	쌍령리	야탑리	孔錫標
金雲權	남	26	교원	1950.9.14	쌍령리	오포면 신현리	
鄭柱薰	남						
崔雲瑞	남	30	상업	1950.9.20	쌍령리	평남 용강군. 야탑리	
李景求	남	22	농업	1950.9.20	쌍령리	이매리	李庚求
金秉基	남	35	상업	1950.9.20	쌍령리	야탑리	金炳圭
金興俊	남	50	농업	1950.9.20	쌍령리	이매리	

※ 1. 위 표에서 비고란은 <6.25사변중피살자명부>에 표기된 이름인데, 동일인물이 확실하다고 본다.

2. 정주훈(鄭柱薰)의 기록을 찾을 수 없다. 여러 희생자 중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피살된 야탑리 출신의 정광산(鄭光山, 28세)일 것으로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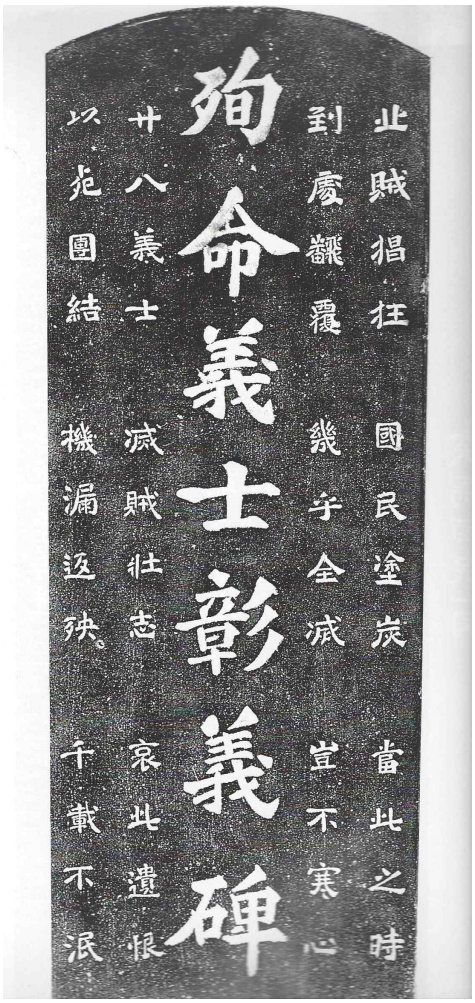
의사단원 중 생존자(12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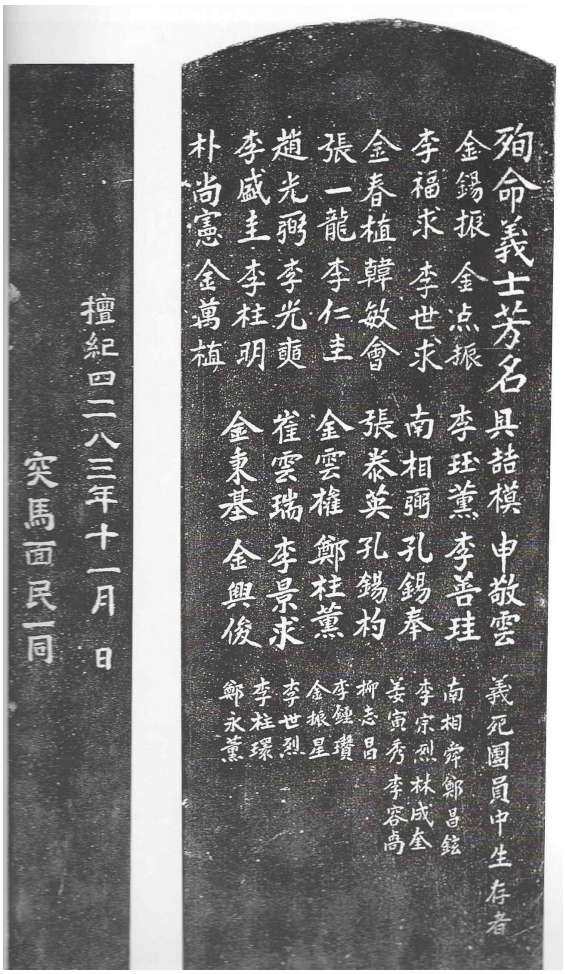
南相舜(남상순), 李宗烈(이종렬), 姜寅秀(강인수), 柳志昌(류지창), 李鐘瓚(이종찬), 金振星(김진성), 李世烈(이세열), 李柱環(이주환), 鄭永薰(정영훈), 鄭昌鉉(정창현), 林成奎(임성규), 李容卨(이용설)

※참고자료

● 생존자 류지창 회고「북괴의 간교」,『6.25실증자료』, 문교부, 1976. 130~133쪽

류지창(교사, 광명국민학교 교감 역임)
생존자 이종찬, 김진성(돌마면 서기)
생존자 정영훈(1932. 9. 17 ~ 2011. 4. 19)
교통부 기획관리실장, 제14~15대 국회의원(하남, 광주)
생존자 강인수 : 광주군청 산림과 근무(제1대 광주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강희수 4촌)
● 희생자 장태영 : 당시 용산경찰서 순경





비석 높이 : 110cm
폭 : 36cm
두께 : 12cm

제2절. 『6.25실증자료』[59]에 수록된 의사단 관련 증언

59) 문교부, 『6.25실증자료』, 1976. 7. 31

『6.25실증자료』는 1976년 7월에 문교부(당시 장관 유기춘)에서 펴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전쟁을 억제해야 하고, 전쟁의 쓰라린 경험을 되새겨야 하기에 이 책자를 발간하기로 하고 1975년 6월부터 1976년 4월까지 생명과 재산피해 그리고 주민들의 고통을 실감할 수 있는 자료 총 660여 편을 수집했고, 이를 다시 피해 유형별로 정선하여 수록하였다.

『6.25실증자료』에 수록된 이 증언은 의사단 생존자인 류지창 선생(오포 광명초등학교 교감 역임)이 생전에 남긴 수기이다. 이번 성남지역 6.25 조사사업의 기초자료가 되었고, 이 수기를 토대로 상당한 자료조사를 할 수 있었다. 이 증언록은 의사단이 공산군에게 피살되게 된 원인을 밝혀주는 근거자료가 된다. 또한 류지창 선생의 제자인 서울교대 이연복(李延複) 명예교수가 증언을 기억하고 있어서 증언을 채록할 수 있었고, 류지창 선생의 아들인 류덕선 전 경기도의원도 면담할 수 있었다.

- 북괴의 간교 -

증언 : 유치창(경기 광주)[60]

1950년 6월 26일 이전까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근무한 장태영 순경이 미처 후퇴를 못 하고 자기 고향으로 스며들었다.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신현 2리 가족이 살고 있는 태재부락에 아무도 모르게 땅거미가 스며드는 캄캄한 밤을 택해 와서 골방에서 은거하고 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같은 동료였으며, 같은 서에서 근무하였던 김정남 순경이 찾아와서 장태영 순경을 찾게 되므로 반갑고, 한 편으로는 누가 보지나 않는가 싶어 조바심에서 가족들은 김 순경을 집 안으로 안내하고 사실을 말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모든 소식이 갑갑하고 혼자서 숨어 있기가 두려웁던 터라 데리고 오라고 하여 가족들은 김순경을 장태영 순경이 숨어 있는 곳으로 안내하니, 둘이는 서로 반가웁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기적처럼 느꼈음인지 부둥켜 안고 눈물까지 흘렸던 것이다.

서로 한참 동안 이렇게 한 뒤 장 태영씨가 먼저 말을 끄집어내며, 지금 어떻게 이렇게 대낮에 찾아오게 되었느냐고 말을 묻자, 김정남 씨는 담배를 끄집어내어 불을 붙이면서 하는 말이,

"이미 인민공화국의 군대는 대구·부산만을 남기고 모두 점령하였으며, 그곳 점령도 시간문제로 되어 있어 자기는 할 수 없이 살기 위해 괴뢰군에 자수를 하였으며, 자수를 하고 보니 대우가 좋고 이렇게 활발하게 생활할 수 있어 같이 손을 잡고 일을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60) 유치창 : 유지창의 오타이다. <순명의사창의비> 생존자 명단에 柳志昌으로 새겨져 있다.

“너도 자수를 하여 숨어서 고생하지 말고 나하고 같이 떳떳하게 사는 것이 어떻겠냐”며 권고를 하여 오므로, 마지못해 타 면인 돌마면 분주소에 가서 자수를 하고 부역하던 중, 의사단원 유지창씨에게 포섭되어 공산당 섬멸을 위한 모의에 가담하게 되었다.

그런데 의사단은 6.25전 교사, 대한청년단, 경찰, 군인으로 패전하여 후퇴하지 못한 분으로 구성되어 30여 명에 달했으며, 당시의 목적은 돌마면 분주소를 습격하여 괴뢰군에게 아첨하는 자들과 빨갱이들을 섬멸하고 무기를 약탈, 계속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던 중 의사단의 한 사람이 고자질을 하여 김정남이 장태영 집을 찾게 되었다.

“너 왜 죽을 궁리를 하고 있으냐? 분주소에서는 이미 너희들 조직체를 다 알고 있으니, 잡혀가 죽느니 보다 반동분자인 의사단원을 잡기 위한 뜻에서 의사단에 거짓 가맹하였다고 하고서, 의사단원들의 명단을 밝히면 너는 무죄로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너를 더욱 믿어줄 게 아니냐? 현재 부산 대구만 해방시키지 못하고 다 점령한 이때에 네 살 구멍을 찾아야 할 것 아니냐”며 꾀어대는 것이었다.

장태영은 그래도 의사단 동지들을 배반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김정남을 돌려보내기 위해 “내가 지금 몸이 몹시 불편하니 내일 아침 분주소에 나가겠노라”며 따돌려 보냈다.

내가 살기 위하여 많은 동지들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 차라리 의용군이라도 지원해 나가버리는 것이 상책이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장태영은 광주군 정치보위부로 찾아가 의용군을 지원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정치보위부에서는 순경 장태영이 남하하지 못하고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잡으려 하던 참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와 의용군을 지원하여 오므로 수상히 여기고 돌마 분주소로 연락하여 보니, 돌마 분주소장은 즉시 김정남으로 하여금 장태영을 잡아 오라 명령하기에 이르렀다.

김정남은 장태영을 데리고 나오며 “네가 오늘 광주 정치보위부에서 의용군을 지원한 사실과 모든 내용을 알고 있으니, 이번에는 망설이지 말고 분주소에 가서 전모를 털어 놓아야만이 너는 살 수 있다.”고 하므로 장태영은 분주소에 도착하자마자 김정남을 믿고, 의사단에 대한 모든 사실을 털어놓아 버렸다.

그러자 정치보위부 소속의 행동대원들이 돌마로 몰려들어 의사단원 검거에 열을 올려, 이곳저곳 미친 개 마냥 쏘다니며 사흘 동안에 의사단원 전원을 검거하게 되었다. 잡힌 의사단 동지들은 아무리 심하고 악랄한 고문을 가해도 함구무언으로 모든 사실을 부인하였다. 기아의 도가니로 동지들을 몰아넣고도 김정남은 분주소원들과 함께 숙식을 하고, 전과 같이 생활하여 온 장태영을 의사단 동지들 앞에 끌고 와서 대질시킨 후 모든 사실을 밝히고 나서,

“의사단을 배반하고 많은 동지들을 죽도록 하고 자기 목숨만 건지려는 배신자는 우리 인민공화국에서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 새끼는 이놈들 보다(의사단을 가리키는 말) 더 악랄하고 얄미운 놈이다. 차라리 사나이답게 죽엄을 각오한 이 놈들이 낫다.”며 그 자리에서 수갑을 채우게 하고 심한 구타를 한 후 의사단원과 같은 감방(방공호)에 가두고 죽이는 날 까지 같은

대접을 하였다.

장태영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얼굴을 쳐들지 못하고 몇 번이고 자살을 기도했으나, UN군의 진격으로 공산당과 행동 대원들은 의사단원들과 장태영을 이끌고 가다가, 광주군 광주면 까치산기슭에[61] 이르러 결국 같은 총부리에 죽엄을 당했다.

그러나 괴뢰군의 총탄을 받고서도 생존자로 남아 유지창 교감(현 광명국교), 이종찬씨 김진성(당시 돌마면 서기)씨가 그때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북한 괴뢰군들은 실컷 이용을 하고서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자 그대로 처치해 버린 것이다. 친구를 꾀어 자수시키고 자기가 유리한 입장에 이르자 친구를 살해하는 공산당놈들. 그를 믿었던 얼빠진 사람들. 이용 가치가 없으면 그들에게는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라도 죽여야 했다.

지구상에 어디 또 그렇게 악한자가 있을까. 그 후 김정남이 공산 괴뢰군들에게 후퇴시 죽엄을 당했다는 것은 오히려 당연했지만, 그것이 그들의 상술이기도 했다.

제3절. 『6.25실증자료』에 수록된 하남지역의 구국결사대

이 수기도 류지창 선생의 수기와 함께 『6.25실증자료』에 수록돼 있다.

『6.25실증자료』라는 책자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하남지역의 독립운동사 자료를 수집하던 중에 알게 되었다. 필자가 1999년 5월부터 2004년 8월까지 하남문화원 사무국장 일을 할 때 원장으로 모셨던 구자관(具滋寬) 전 원장의 자택에 증언을 청취하러 갔다가 이 책자를 보게 되었다. 구자관 전 하남문화원장은 젊은 시절부터 광주군의 공직자를 지냈고, 하남시재향군인회장과 하남문화원 원장, 광주향교의 전교를 지내면서 지역문화 창달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6.25사변중 피살자명부>를 보면 이 수기에서 언급된 하남시 감북동 한청부단장 박상천(朴相天)은 8월 10일 미사리에서 피살당한 것으로 기록돼 있고, 당시 나이 28세였다고 기록돼 있다. 고골의 석진국(石鎭國)은 당시 나이 29세였고, 8월 4일 피살당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 외에 30여 명이 피살당한 것으로 증언하였다.

이 수기에 언급된 박상천은 실제로 당시에 50세가 넘어서 피살자명부의 기록이 잘못된 것이고, 이 수기에 언급된 구자관 회장의 백부는 피살자 명부에 수록된 구성회

61) 까치산 : 장태영 순경은 다른 의사단원들 보다 먼저 9월 14일에 피살당하였다. 공식적인 지도에는 까치산이 표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경기도 광주 파발극회 이기복 회장이 경화여자고등학교 교사로 재임 중에 수업에 빠지는 학생들을 찾아다니던 산이 까치산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어서 문의한 결과 구광주시청이 있던 작은 뒷산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임꺽정전>에 쌍령과 까치산이 같이 언급되어 있다. <6.25사변 중 피살자명부>에는 쌍령리에서 피살당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具聲會)이다.

- 마을을 지킨 사람들 -

증언 : 구자관(경기 광주)

서울이 적치하에 들어가자 식구들은 남한산, 동문 밖으로 피난하고 나만이 단신 집에 남아 위급하면 탈출 생각으로 숨어 있기로 하였다. 그러나 호전되리라 믿었던 전세는 더욱 불리하여 수원 오산이 함락되고 안성 평택이 떨어지니, 부친께서는 가족만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단신 남하하였다. 나는 그때 집에서 국군낙오병들에게 밥을 지어 주고 물을 떠다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낙오병이 부상한 몸으로 소총을 버리고 가기에 그 총을 실탄과 함께 뒷산에 묻었다. 그때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는데, 수일이 지난 어느 날 부락 공산분자가 찾아와 현장에 이르니 벌써 어느 놈이 가져간 후였다. 나는 그 길로 놈들에게 붙들려가서 갖은 곤욕을 당하였다. 우리 집은 반동분자로 낙인이 찍혀 한참 농번기인데도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 평생 농사라고는 모르던 모친과 누님, 가족들만이 모를 심게 되었다.

놈들은 매일 밤 회의를 하였고 공산주의를 자랑하더니 김일성을 선전하고 민심을 회유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더니 강제 의용군을 모집하고 간장 된장 고추장까지 거두어 갔다. 놈들은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수일 내로 국군 및 UN군을 바다로 몰아넣는다고 선전하고 있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란 하루 몇 차례씩 날아오는 UN기가 전부였고 간혹 떨어지는 전단 그리고 낡아빠진 라디오가 정보원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다. 놈들에게 짓밟혀 죽을 바에야 놈들과 싸워 한 놈이라도 피값으로 없애야 되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래서 당시 일군 출신으로 경찰과 기자 생활을 한 바 있는 재종형 구자철(현 서부산업 회장. 한국승마협회 상무이사)와 38선 포천군 양문지서 민형식 순경과 수원지구 전투에서 낙오된 육군 일등중사 문성규 그리고 나까지 네 사람이 구국 결사대를 조직하였다. 우익 인사를 규합하고 공산 분자들을 교란시키며, 적당한 시기에 놈들을 섬멸할 유격활동을 펴 나가기로 하였다.

그러나 우리에겐 그럴만한 무기가 없었다. 그래서 우선 무기를 구하는 일부터 걱정하였다. 7월 중순까지 지하실이나 근처 산에서 숨어 지내다가 날이 갈수록 눈이 무서워 본거지를 남한산성으로 옮겼다. 막상 옮기고 보니 식량난이 이만저만 아니었고 어제의 친지도 함부로 접촉할 수가 없었다. 그들 자신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지만, 남아 있는 부락 젊은이들은 거의 강제 의용군 또는 탄약 운반 복구 작업에 동원되었고, 부녀자들까지도 식량 걷어 들이기에, 여성동맹 회의에 밤낮으로 들볶였다. 우리 집은 부친이 남하하였으나 서울에서 백부께서 나와 계셨다.

우리는 무기를 구하는 일에 머리를 짜내고 있었는데 8월 중순 어느 날 정오쯤 되어 절호의 기회가 왔다. 산속에서 숨어 내려다보니 멀리서 괴뢰군 병사 2명이 무장한 채 걸어오고 있었다. 이때 자철 형이 “야, 자관아 우리 저놈들의 총을 빼앗자.”고 했다.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형님 맨손으로 어떻게 총을 빼앗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너는 나 하자는 대로만 하면 된다.”며 앞질러 큰길 가 가로수 그늘 밑에 가서 앉는 것이다. 나도 따라 앉았다. 그런데 잠시 후 괴뢰군 병사 두 놈이 다가왔다.

자철 형이 “동무들 수고하오. 해방군 동무들 더우니 잠시 쉬어 가시오.” 먼저 인사하니 놈들도 진심으로 환영하는 줄 알고 악수를 청하며 다가와 앉았다. 자철 형은 자기는 문학가 동맹원이라 소개하고 해방된 지역에 선무활동차 나왔다며, 나는 민청맹원이라 하니 무척 반갑단다. 자철 형이 이곳은 적기의 공습도 받기 쉬우니 다리 밑으로 가서 얘기하자고 권하자 서슴지 않고 따라 나섰다. 오금동 다리 밑에는 피난민들이 호구지책으로 밀주 막걸리를 팔고 있었는데, 놈들에게 큰 사발로 한 그릇 전하니 곧 취기가 돌기 시작했다.

술이 취하고 노곤하여 지니 잠시 쉬어 가겠다고 하기에 부락 뒤 산속으로 끌고 갔다. 산속에서 자철 형은 놈들에게 이 지역은 남한산을 중심으로 국군 패잔병이 많이 있어 위험한 지역이라고 설명하여 주었다. 나는 그동안 산에서 내려와 잠시 쉬고 있다가 오후 3시경 급히 산으로 뛰어올라 겁에 질린 표정으로 “형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국군 패잔병이 형님을 잡으려고 하니 빨리 이곳을 피하셔야 합니다.”고 다그치니 형도 놈들도 놀라 어쩔 줄을 몰라 한다.

형은 빨리 도망가야 한다고 서두르며 당신(괴뢰병사)들은 그 복장으로 이곳을 빠져나가기 힘들 텐데 어찌하면 좋겠냐고 하니, 놈들은 더욱 당황해 하였다.
나는 급히 하산하여 학생복(하복) 2벌을 갖고 왔다. 우선 변장을 하여야 하니 이 옷으로 갈아입고 모자를 벗으라고 하니 두 놈이 중머리였다. 그래 다시 내려가 밀짚모자 2개를 갖고 놈들에게 씌워 주니 그런대로 위장은 되었다. 그런데 정작 놈들을 무기를 갖고 가겠다니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일이 아닌가! 형은 “지금 그 긴 총을 어디다 감추어 갖고 가겠느냐?” 하니 머리를 솔깃했다. 그때를 놓칠세라 “총을 갖고 가다가는 국군에게 붙잡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내가 말하니, 놈들도 긍정이 가는지 총을 잘 숨겨 놓으라며 형과 셋이 급히 산을 뛰어 어디론가 가버리고 말았다. 나는 장총 2정의 총구를 막고 실탄 360발 수류탄 4개를 함께 땅속에 묻고 옷은 따로 뭉쳐 묻었다. 초조와 불안 속에 형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 형이 나타났다.

형은 급히 나를 불러 묻었던 옷을 꺼내라기에 캐어내니 “산 넘어 큰길로 가면 두 놈들이 올 것이니 되돌려 주라.”고 하였다. 얼마쯤 뛰어가니 효죽동 입구에 두 놈들이 급히 오고 있었다. 나는 반갑게 인사하며 옷을 돌려주니 놈들은 총까지 달랬다. 나는 임기응변으로 총은 동무들이 떠난 후 태워 버렸다고 하니 옷은 어째서 태우지 않았느냐고 다그쳤다. 내 옷은 동무들이 입고 가서 옷이 없기 때문에 군복이라도 고쳐 입으려 하였던 것이고 총은 필요 없고 후환이 두려워서 없앴다고 말하니, 현장까지 확인하려 하였다. 나는 그제사 대답을 잘못했다고 생각했으나 이미 생사의 가름 길에 서 있었다. 별 수 없이 죽이리라 결심하고 그들을 논밭으로 끌고 다니다 동지들이 모인 곳까지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어둠이 깔린 인적 없는 적막은 오히려 공포심마저 떠오르게 했다.

나는 놈들에게 국군 패잔병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 부락에 도착하자마자 급히 피하면서, 동무들과는 저녁 9시까지 송파나루터에서 만나자고 하였다고 했다. 나의 거짓말을 믿었는

지 두 놈은 아까와 달리 누그러져 있었다. 큰 놈은 겁이 많은지 군복을 찾았으니 그대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작은 놈은 꼭 현장을 확인하고 가겠다고 우겼다.

한참 더 걷다가 키 큰 놈이 우기고, 작은 놈이 또 우기고 그러다가 저희들 싸움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큰놈의 말대로 그냥 돌아가자면서 나에게 악수까지 하고 오던 길을 되돌아갔다. 얼마 동안 돌아가는가 확인하고서야 산으로 돌아오니 형이 보이지 않았다. 소리 높이 몇 번씩 불러도 대답이 없더니 솔 숲속에서 불쑥 고개를 내밀었다. 그동안 주위를 살피고 있었는지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를 얼싸안고 눈물까지 흘린다. 형은 괴뢰병사 놈들과 산으로 올라올 것이라고 믿고 살상할 준비로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나가 있자 형과 나의 집은 24시간 감시당하고, 우리는 주야로 남한산 속에 은거하며 구한 무기로 힘을 얻어 곧 행동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배고픈 것이었다. 밤이면 부락에 내려가 훔쳐 먹기도 하고 들에 옥수수, 수수, 콩 닥치는 대로 훔쳐다 구워 먹고 연명하였다. 그러던 중 8월 13일 하도 배가 고파서 형과 함께 새벽에 집에 스며들었다. 형이 밥을 먹고 급히 나를 독촉하는데 벌써 내무서원이 집을 포위하였다. 나는 급해서 집 앞으로 뛰어들며 웃옷을 집어 들고 뒷담을 뛰어들어 벼포기 우거진 논 속으로 숨어 버렸다. 몇 시간을 내리 쬐는 폭양 속에 숨어 있다가 기어서 오후 늦게야 동지들의 집합소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집의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대신 뜻밖에도 백부와 당숙이 놈들에게 잡혀갔음을 알았다.

이 소식을 듣고 우리 사람들은 부르르 떨며 행동하였으나, 좀 더 관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기다리기로 하였다. 다음날인 음력 8월 14일 당숙은 풀려 나왔으나 백부는 뒷산에서 살해되었다는 전갈이 왔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원수를 갚겠노라 맹서하고 출동을 개시하였다.

문성길 중사와 민형식 경관은 총을 들고 형과 나는 수류탄 2개씩을 들고 서부 국민학교 앞에 다다랐다. 내무서 앞까지 접근하여 원한에 사무친 총구를 겨누고 마구 쏘아댔다.

놈들은 기습공격에 당황하여 전원 도망하고, 우리는 급히 내무서로 뛰어들어 서류뭉치를 불지르고, 건물까지 불 지르려다 후일 우리가 사용할 것이기에 그대로 두고 되돌아오고 있었다. 그전에 누군가가 우리의 철수 길목에 누가 숨어 있다기에, 우리는 그 집을 덮쳐 감일리 김석근씨 댁에 숨어 있던 24세의 면 인민위원장의 딸을 인질로 하고 남한산으로 되돌아왔다. 그날 저녁 원수의 자식이나마 복수하려다 자식의 죄가 아니기에 용서하고, 후일 수복될 때까지 보호하다가 놓아 주었다.

우리는 속 시원히 원수를 갚지 못하였으나 적치하에서 그것도 백주에 기습 공격함으로써 놈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고, 숨어 있던 우익 인사들에게 힘이 되었으며 역연히 지방 공산분자들은 이로써 전전긍긍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날 저녁으로 동부면에 주둔하고 있던 괴뢰군 일개 중대가 우리 부락을 포위하고 3~4일간을 온통 북새를 떨고 약탈을 일삼았다.

그즈음 전세는 역전되어 UN군이 인천 상륙을 시작하였고 낙동강 전선에서도 반격을 개시, 적의 패색이 짙을 무렵이었다. 이때 우리 고장에서는 감북리 박상천(한청부단장)씨가 납치되

어, 동부면에서 30여 명의 우익 인사들과 함께 처참히 살해되었으며 고골 석진국씨는 국군이 입성 직전에 성급히 반공 삐라를 뿌리고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다 놈들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살해당했고, 국군이 미처 입성치 못해 괴뢰군은 동부 지역에서 집결하고 지방 빨갱이들이 미쳐 날뛰는, 극히 위험스런 공백기였다. 날이 갈수록 무고한 양민이 희생되므로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우리 결사대만으로 9월 23일경 놈들의 내무서를 접수하고 태극기를 내걸고 자체 치안대를 조직, 면내 치안을 확보하여 우익 인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산분자를 색출 검거하여 질서유지에 온 힘을 기울였다.

그런데 그 다음날 우리를 환영한다고 손에 손에 태극기를 든 30여 명의 집단이 총 든 놈을 앞세우고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서슴없이 치안대 안으로 들어오더니 누군가를 급히 찾는 듯 했다. 대장 자철 형을 발견하자 그대로 총으로 쏘려 하여 옆에서 총을 빼앗고 놈들과 격투 끝에 잡고 보니, 그들은 공산 극렬분자들로서 환영을 위장하고 우리를 살해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위기일발 위험을 모면하기도 했지만 이로써 놈들은 일망타진되었다.

며칠 후 UN군이 진주하고 경찰이 돌아오기에, 우리의 임무를 모두 인계하고 나는 다시 학창생활로 돌아갔고, 동지들도 먼저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제4절. 『광주시사』에 수록된 6.25 희생자들

정부수립 후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년단체 통합조직으로 대한청년단이 1948년 12월 19일 결성되었다. 당시 적극적으로 활동 중이던 국민회청년단, 대한독립청년단, 대동청년단, 조선민족청년단, 서북청년회, 청년조선총동맹 등 규모 면에서나 활동력에서 앞서 있던 이들 청년단체들이 통합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었다. [62]이에 따라 광주군에서는 기존 청년단체의 지부조직들을 해산하고 대한청년단 광주군단으로 재편하였다. 단장에 박재덕(朴在悳), 부단장에 김세영(金世榮), 박경득(朴慶得)이 선출되었다.[63]

이 밖에도 해방 후 각 청년운동 간부명단에는 오르지 않았으나 구연천(九然千), 안종뢰(安鍾雷) 등이 청년운동에 종사하였다고 한다.[64] 그러나 이 지역의 활발한 청년단체 활동은 한국전쟁 발발 후 조직원들의 희생으로 나타났다.

한국전쟁기 광주지역 반공청년단체 소속 희생자 명단

성 명	출생연월	본적	소속	학 력	경 력	순국투쟁 상황	유가족

62) 하유식, 「이승만 정권 초기 정치기반 연구 : 대한청년단을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3, 부경역사연구소, 1997, 210쪽.
63) 건국청년운동협의회총본부,「대한민국건국청년운동사」, 1989,1491쪽.
64) 건국청년운동협의회총본부,「대한민국건국청년운동사」, 1989, 1497쪽.

		(주소)	및 직위			발생 (당시 나이)	장 소	상 황	
이복구 李福求	1919.7.18	돌마면 수내리 225	한청원	광주농업실습교 졸	돌마면 직원 3년	1950. 9.20. (32)	초월면 서하리	한청원으로 괴뢰치하에서 지하공작 중 발각되어 피살	자 이환복
이정신 李正信	1903.8.25	대왕면 고등리 404	한청원	한문수학 5년	농업	1950. 9.20.(48)	대왕면 고등리	6·25 발발 전 북한비행기 추락 시 비행사 2명을 체포, 아군에 인도하는 데 일조한 혐의로 괴뢰군에게 밀고되어 피살	자 이민수
김승업 金勝業	1918.7.28	대왕면 둔전리 169	한청원	돌마심상소학교 졸	농업	1950. 9.20.(33)	대왕면 고등리	6·25 발발 전 북한비행기 추락 시 비행사 2명을 체포, 아군에 인도하는 데 일조한 혐의로 괴뢰군에게 밀고되어 피살	부 김씨 제 김해수
임택현 林宅鉉	1907.9.14	퇴촌면 광동리 247	독청원	한문수학 7년	면장 3년 방단장 6년	1950. 9.20. (44)	초월면 대쌍령리	6·25 전쟁 전까지 독청원으로 활약, 전쟁 발발 후 남하하지 못하고 내무서원에게 발각되어 피살	남제 임영경
이기수 李奇洙	1924.12.27	실촌면 장심리 52	한청원	곤지암공립보통학교 졸	-	1950. 10.9. (27)	실촌면	한청원으로 활약하다 전쟁시 피난, 9·28 수복 당시 실촌면 치안대원으로 순찰 중 북한군 패잔병에게 납치, 피살	제 이경수

성명	출생연도	본 적 (주소)	소속 및 직위	학 력	경 력	순국투쟁 상황			유가족
						발생 (당시 나이)	장소	상황	
함규원 咸圭元	1918.9.16	남종면 분원리 65	한청 감찰부장	분원공립보통학교졸	-	1950.7.20. (33)	남종면 분원리	전쟁 전까지 한청 감찰부장으로 활동, 북한정보원의 밀고로 내무 서원에게 체포되어 피살	부 함창섭 모 지기라 형 함규선
이영헌 李永憲	1923.1.16	남종면 분원리 97	호국단 면대장	분원공립보통학교졸	-	1950.7.20. (28)	돌마면	전쟁 전까지 호국단 대장으로 종사, 피난치 못하고 피신 중 정보원의 밀고로 체포, 보안서원에게 피살	모 황재 형 이의선
김석진 金錫鎭	1922.6.5	돌마면 이매리 78	한청원	돌마소심상학교 졸	농업	1950.9.20. (29)	초월면 쌍령리	한청원으로 괴뢰 치하에서 전복 목적으로 지하공작을 하다가 사전 발각되어 피살	제 김태진
한민회 韓敏會	1927.7.15	돌마면 서현리 458	한청원	돌마소심상학교 졸	면 서기 4년	1950.9.20. (24)	초월면 쌍령리	한청원으로 괴뢰 치하에서 전복 목적으로 지하공작을 하다가 사전 발각되어 피살	처 김문희 자 한백희 여 한묘순
이규훈 李珪薰	1917.6.4	돌마면 정자리 88	한청원	남한산공립보통학교졸	정자리 이장 3년	1950.9.20. (34)	초월면 쌍령리	한청원으로 괴뢰 치하에서 전복 목적으로 지하공작을 하다가 사전 발각되어 피살	자 이○구
오봉운 吳奉雲	1908.2.27	대왕면 세곡리 354	한청원	대왕심상소학교 졸	-	1950.9.20. (43)	대왕면 고등리	6·25 발발 전 북한 비행기 추락시 비행사 2명을 체포, 아군에 인도하는 데 일조 혐의로 북한군에게 밀고되어 피살	제 오봉길
김덕남 金德南	1913.6.27	대왕면 둔전리 69	한청원	왕남국민학교 졸	농업	1950.9.20. (38)	없음	전쟁 시 치안대장으로 활동하다가 피난치 못하여 체포되어 피살	제 김철수
조원순 曺元淳	1916.8.7	퇴촌면 광동리 836	독청 퇴촌 감찰 부장	도수공립보통학교졸	농업	1950.9.20. (34)	초월면 상번천리	전쟁 전까지 독청 감찰부장으로 활약, 전쟁 후 피난치 못해 피신 중 정보원의 밀고로 내무 서원에게 체포되어 피살	장남 조태한

이주만 李柱滿	1931.10.7	실촌면	한청원	곤지암공립 보통학교 졸	-	1950.10.9. (20)	실촌면	한청원으로 활약하다 전쟁시 피난, 9·28 수복 당시 실촌면 치안대원으로 순찰 중 북한 패잔병에게 납치, 피살	부 이호련 모 김립분 장남 이채훈
김희창 金喜昌	1913.6.4	남종면 분원리 59	한청원 면단장	세브란스 의전 졸	의사 5년	1950.7.20. (38)	남종면 분원리	한청원 면단장으로 활동 중 피난치 못해 내무서원에게 체포되어 피살	부 김우락 장남 김일재
김점진 金點鎭	1928.11.28	돌마면 이매리 78	한청원	돌마심상 소학교 졸	농업	1950.9.20. (23)	돌마면 이매리	한청원으로 괴뢰 치하에서 전복 목적의 지하공작 중 사전 발각되어 피살	자 김근식
신경운 申敬雲	1900.8.15	돌마면 이매리 345	한청원	돌마심상 소학교 졸	농업	1950.9.20. (51)	초월면 쌍령리	한청원으로 괴뢰 치하에서 전복 목적의 지하공작 중 사전 발각되어 피살	처 이필구
이세구 李世求	1927.2.14	돌마면 수내리 13	한청원	돌마심상소 학교 졸	면직원 4년	1950.9.20. (24)	초월면 쌍령리	한청원으로 괴뢰 치하에서 전복 목적의 지하공작 중 사전 발각되어 피살	자 이상복

※ 비고 : 한청원은 대한청년단원, 독청원은 대한독립청년단원의 약칭임
※ 출전 : 청우회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 합동위령제집행위원회,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 : 경기도 제1호」, 1963.
※ 『성남시40년사』도 이 자료 속에서 성남 관련 인물만 소개되어 있다. 『광주시사』에는 유가족이 추가되어 있다.

1963년 10월 11일 서울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제1회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 합동위령제가 거행되었다.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발발 이후 희생된 우익청년운동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것으로 총 1만 625명이 대상이었다.[65] 그 중 경기도는 총 461명이었고, 광주군은 18명이 희생된 것으로 집계되었다.[66] 이 중 2명은 대한독립청년단원이었고, 1명은 호국단, 15명은 대한청년단원이었다.

65) 건국청년운동협의회총본부, 「대한민국건국청년운동사」, 1989, 1524쪽.
66) 청우회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 합동위령제집행위원회,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 : 경기도 제1호」, 1963 ; 건국청년운동협의회총본부, 「대한민국건국청년운동사」, 1989, 1543쪽.

3. 6.25사변 중 피살자명부

『6.25사변 중 피살자 명부』는 6.25 전쟁 중이던 1952년 3월 31일 기준으로 공보처 통계국이 조사한 자료이다. 피랍자 명부와 달리 이 자료는 전국에서 피살된 상황을 조사하였는데, 군인이나 경찰도 있지만, 전투로 인한 사망이 아닌 희생자들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자료에는 총 59964명의 피살자 명단이 수록돼 있는데, 일부 중복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 하지 못하였고, 누락된 사례가 이 숫자의 몇 십 배는 될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면 성남지역 의사단(義死團) 단원이 28명 희생되었는데, 1명은 찾을 수가 없고, 경기도 하남시에서도 30여 명이 피살당한 것으로 증언이 있는데, 기록에는 서너 명 밖에 안 보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자료집은 전쟁 발생 직후부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피살된 숫자만 조사된 것이기 때문이다. 전쟁이 끝날 때 까지는 더 많이 희생되었을 것이다.

이 자료는 성명, 성별, 연령, 직업, 피살연월일, 피살 장소, 본적과 주소 등의 항목을 정하여 조사되었고, 이를 각 시도별로 구분하여 편집하였다. 또한 인구 수가 많은 성씨를 우선 기록하였다. 또한 전시 중임에도 글씨가 또박또박 쓰여 있어서 판독에 어려운 글자가 많지 않다. 다만 피살자가 사는 지역의 지리에 밝지 않은 사람이 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각 지방에서 보고된 자료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모르나, 지명 표기에 오류가 많다. 다음은 공보처 통계국이 작성한 이 명부의 작성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는 범례이다.

1. 6.25사변 중 공무원 및 일반민이 잔인무도(殘忍無道)한 괴뢰도당(傀儡徒黨)에 피살당한 상황을 조사 편찬하였다.

1. 피살 인사의 개별적 내용을 상세히 하기 위하여 성명, 성별, 연령, 직업, 피살연월일, 피살 장소, 본적, 주소 등등 항목을 정하여 조사하였다.

1. 피살인사의 색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서울특별시 및 각 도, 시, 군별로 편집하고 다시 다수 성별(性別)순으로 구별 정리하였다.

이상 조사는 군경(軍警)을 제외한 비전투원에 한하였다.

단기 4285년(1952) 3월 31일 현재

공보처 통계국

6.25사변 피살자명부

-광주에서 피살된 서울사람 명부-

성 명	성별	연령	직업	피살연월일	피살장소	본 적	주 소
이중현 李重賢	남	38	고물상	1950.9.29	광주군 실촌면		을지로 5가
김동옥 金同玉	남	42	상업	1950.9.25	광주 남한산성	연건동	연건동
이승재 李承宰	남	45	공무원	1950.6.28	광주군		원남동
이명수 李明洙	남	45	상업	1950.9.28	광주군		창신 서동
김예진 金禮鎭	남	53	목사	1950.8.5	광주군		후암동 동부
박승관 朴承琯	남	39	경무관 警務官	1950.9.30	광주군 언주면		후암동 동부
박상희 朴商熙	남	25	공무원	1950.7.1	광주군 언주면		한남동
박명구 朴明九	남	26	노동	1950.9.25	광주군 언주면		한남동

***광주군 실촌면은 곤지암읍으로 변경되었음
언주면은 현재 서울 강남구 지역임

6.25사변 피살자명부

-광주에서 피살된 경기도민(화성, 안양, 안성, 용인) 명부-

성 명	성별	연령	직 업	피살연월일	피살장소	본 적	주 소
박용조 朴容祚	남	20	한청원	1950.8.10	오포읍 장지리 자택	화성시 동탄면 반송리	좌동
조관현 趙寬鉉	남	36	농업	1950.8.10	자택	분당구 정자동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김명연 金明淵	남	25	교사	1950.9.28	광주	안성시 보개면 적가리	서울 성동구
김두식 金斗植	남	29	공업	1950.9.6	광주	안성시 양성면 노곡리	좌동
김원식 金元植	남	34	공업	1950.9.6	광주	안성시 양성면 노곡리	좌동
김학술 金學述	남	26	농업	1950.9.6	광주	안성시 양성면 노곡리	좌동
이태식 李泰植	남	32	경찰	1950.8.20	광주	안성시 옥천동	서울 성동구
이강호 李康浩	남	25	농업	1950.8.9	광주	안성시 양성면 동항리	좌동
류해문 柳海文	남	45	농업	1950.9.20	광주	안성시 보개면 북좌리	좌동
류도형 柳道馨	남	37	경찰	1950.9.20	광주	보개면 신장리	좌동
류해경 柳海暻	남	34	경찰	1950.9.25	광주	안성 대덕면 삼한리	좌동
박종덕 朴鍾悳	남	32	면서기	1950.9.25	광주	대덕면 대농리	좌동
황규창 黃圭昌	남	55	조합 이사	1950.9.6	광주	안성 양성면 석화리	좌동
황신성 黃愼性	남	25	경찰	1950.9.6	광주	양성면 추곡리	좌동
황근용 黃根容	남	29	농업	1950.9.6	광주	양성면 노곡리	좌동
홍낙기 洪洛基	남	42	간수	1950.7.6	광주	양성면 추곡리	좌동
홍성학 洪性鶴	남	31	면서기	1950.7.6	광주	양성면 이현리	좌동
강성학 姜聲學	남	27	경찰	1950.7.6	광주	양성면 동항리	좌동
강성만 姜聲萬	남	19	농업	1950.7.6	광주	양성면 노곡리	좌동
윤종원 尹鍾源	남	35	구장	1950.9.25	광주	대덕면 삼한리	좌동
허 각 許 坮	남	35	농업	1950.9.25	광주	대덕면 대농리	좌동

성 명	성별	연령	직 업	피살연월일	피살장소	본 적	주 소
정락춘 鄭樂春	남	23	군인	1950.9.6	광주	양성면 동항리	좌동
정주영 鄭周永	남	26	농업	1950.9.21	광주	죽산면 죽산리	좌동
정정남 丁貞男	남	27	경찰	1950.9.6	광주	양성면 동항리	좌동
유병갑 兪炳甲	남	37	군속	1950.9.6	광주	양성면 명목리	좌동
오인영 吳麟泳	남	32	상업	1950.7.18	광주	삼죽면 용월리	삼죽면 덕산리
방기태 方起泰	남	56	농업	1950.9.3	광주	죽산면 죽산리	좌동
박 씨 朴 氏	녀	67	농업	1950.9.15	광주면 유봉리	용인 포곡면 삼계리	좌동
정만수 鄭萬洙	남	25	농업	1950.9.10	오포읍 추자리	용인 모현면 능원리	좌동
정익교 鄭翼敎	남	30	농업	1950.9.10	오포읍 추자리	용인 모현면 능원리	좌동
최복석 崔福石	남	29	농업	1950.9.10	오포읍 추자리	용인 모현면 능원리	좌동
안경서 安慶西	남	67	농업	1950.9.15	오포읍 매산리	용인 포곡면 유운리	좌동
조영달 趙寧達	남	30	농업	1950.9.10	오포읍 추자리	모현면 능원리	좌동
이은순 李殷淳	남	31	공무원	1950.8.12	서현동 뒷산	이천시 율현동	좌동

*** 성남(광주) 인접 지역 중에 특히 안성지역 주민들이 광주에서 희생된 사례가 유난히 많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고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북한군의 이동경로와도 관련이 있을 듯한데 정확한 것은 아니다. 대략 전투 진행 과정과 주민들의 증언으로 보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 된다. 광주시의 전투 상황 중에 도척면 방향에 대한 작전 과정을 보면, 필자가 들은 이야기로는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장을 역임하고 퇴임한 故 전기영 선생이 도척면으로 피난을 갔었는데, 노곡리 넘어가는 고개 부근에 인민군 1개소대를 사살해서 묻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하였다.

6.25사변 피살자명부

-피살된 경기도민(광주) 명부-

성 명	성별	연령	직 업	피살연월일	피살장소	본 적	주 소
김장수 金長壽	남	23	농업	1950.7.2	수정구 둔전동	강남구 세곡동	좌동
김창경 金昌經	남	19	농업	9.27	강남구 세곡동	수정구 신촌동	좌동
김수철 金壽喆	남	20	농업	9.27	세곡동	수정구 신촌동	좌동
김점진 金点振	남	24	농업	9.20	광주면 쌍령리	이매동	좌동
김석진 金錫振	남	28	농업	9.20	광주면 쌍령리	이매동	좌동
김춘식 金春植	남	31	경찰	9.20	광주면 쌍령리	이매동	좌동
김흥준 金興俊	남	50	농업	9.20	광주면 쌍령리	이매동	좌동
김만식 金滿植	남	20	농업	9.20	광주면 쌍령리	야탑동	좌동
김병규 金炳圭	남	35	상업	9.20	광주면 쌍령리	야탑동	좌동
김성만 金聖萬	남	29	농업	9.21	남한산성 밖	중부면 산성리	좌동
김연식 金然植	남	27	농업	9.21	남한산성 밖	중부면 산성리	좌동
김광록 金光錄	남	42	농업	9.21	남한산성 밖	중부면 오전리	좌동
김동옥 金同玉	남	42	농업	9.21	남한산성 밖	중부면 불당리	좌동
김기성 金基成	남	61	농업	9.13	도척면 도웅리	궁촌리	좌동
김준기 金俊基	남	32	농업	10.23	도웅리	도웅리	좌동
김성식 金成植	남	33	농업	10.23	도웅리	도웅리	좌동
김학두 金學斗	남	25	상업	10.23	도웅리	도웅리	좌동
김수근 金壽根	남	37	농업	7.29	주소지 앞 강가	대치동	좌동
김영조 金永祚	남	70	농업	1.7	자택	수정구 단대동	좌동
김용운 金龍雲	남	42	한청 총무	9.24	중부면 산성리	수진동	좌동

성 명	성별	연령	직 업	피살연월일	피살장소	본 적	주 소
김원배 金元培	남	47	한청 부단장	9.19	중부면 산곡리	구천면 곡교리	좌동
김응옥 金應玉	남	45	소방대 장	9.19	산곡리	구천면 곡교리	좌동
김종락 金鍾樂	남	28	군인	9.19	중부면 산곡리	구천면 고덕리	좌동
김운권 金雲權	남	26	교원	9.14	초월면 쌍령리	오포면 신현리	좌동
김광렬 金光烈	남	27	농업	9.15	오포면 고산리	오포면 신현리	좌동
김건영 金健寧	남	27	경관	9.20	초월면 쌍령리	오포면 매산리	좌동
김동수 金東洙	남	24	학생	7.28	구천면 성내리	중대면 가락리	좌동
이희석 李熙奭	남	36	농업	9.27	대왕면 둔전리	대왕면 세곡리	좌동
이동근 李東根	남	30	농업	7.3	둔전리	둔전리	좌동
이규철 李圭喆	남	36	경관	7.30	서부면 감북리	대왕면 오야리	좌동
이성만 李成萬	남	35	상업	7.3	둔전리	함흥시	대왕면 세곡리
이수안 李壽安	남	24	학생	9.27	대왕면 세곡리	대왕면 신촌리	좌동
이등백 李登伯	남	28	농업	9.27	세곡리	신촌리	좌동
이석동 李石東	남	31	농업	9.2	수진동	신촌동	좌동
이중건 李重建	남	57	농업	9.13	실촌면 건업리	실촌면 건업리	좌동
이중현 李重賢	남	39	농업	9.13	건업리	건업리	좌동
이기수 李奇洙	남	26	농업	8.4	여주 금사면 하호리	실촌면 유사리	좌동
이주만 李柱滿	남	23	농업	8.4	금사면 하호리	실촌면 유사리	좌동
이석근 李石根	남	31	농업	8.10	광주시 초월면	남종면 분원리	좌동
이인업 李仁業	남	43	농업	9.22	남종면 분원리	남종면 수청리	
이영재 李永在	남	26	경찰	9.16	주소지	남종면 분원리	좌동
이민구 李民求	남	36	금융조 합서기	9.30	주소지	황해도	분원리
이종식 李鍾植	남	33	농업	8.10	초월면 쌍령리	퇴촌면 오리	좌동

성 명	성별	연령	직 업	피살연월일	피살장소	본 적	주 소
이영복 李榮福	남	29	농업	7.18	주소지	분당구 궁내동	좌동
이각훈 李珏薰	남	35	농업	9.20	광주면 쌍령리	정자동	좌동
이복구 李福求	남	33	농업	9.20	광주면 쌍령리	수내동	좌동
이세구 李世九	남	25	면서기	9.20	광주면 쌍령리	수내동	좌동
이선각 李善珏	남	30	농업	9.20	광주면 쌍령리	서현동	좌동
이경구 李庚求	남	22	농업	9.20	광주면 쌍령리	이매동	좌동
이인규 李仁圭	남	20	농업	9.20	광주면 쌍령리	야탑동	좌동
이광석 李光奭	남	32	농업	9.20	광주면 쌍령리	야탑동	좌동
이성규 李盛圭	남	21	학생	9.20	광주면 쌍령리	야탑동	좌동
이주백 李柱伯	남	30	농업	9.20	광주면 쌍령리	야탑동	좌동
이용순 李容旬	남	56	상업	9.20	남한산성 밖	중부면 산성리	좌동
이종우 李鍾宇	남	36	농업	9.20	주소지	여주 흥천 상대리	도척면 노곡리
이성우 李聖宇	남	30	농업	9.20	주소지	강원도	도척면 노곡리
이인환 李仁煥	남	39	농업	1951.1.25	초월면 무갑산	초월면 용수리	좌동
이은석 李殷錫	남	34	한청단장	1950.9.24	중부면 산성리	수진동	좌동
이정희 李定熙	남	28	상업	9.24	산성리	수진동	좌동
이성재 李星載	남	70	무직	9.24	산성리	창곡동	좌동
이규봉 李揆奉	남	32	면서기	9.19	하남 상산곡	구천면 곡교리	좌동
이희덕 李喜德	남	34	농업	9.15	오포읍 고산리	오포읍 신현리	좌동
이상진 李相珍	남	39	농업	9.30	모현면 왕산리	오포읍 매산리	좌동
박성희 朴性禧	남	58	농업	9.13	주소지	여주 금사 소유리	실촌면 건업리
박성삼 朴性三	남	38	농업	9.13	주소지	실촌면 건업리	좌동
박성석 朴性錫	남	38	농업	9.13	주소지	건업리	좌동

성 명	성별	연령	직 업	피살연월일	피살장소	본 적	주 소
박상헌 朴商憲	남	23	농업	9.20	광주면 쌍령리	하대원동	좌동
박경필 朴慶弼	남	68	상업	9.21	남한산성	중부면 산성리	좌동
박창서 朴昌西	남	30	상업	9.21	남한산성	산성리	좌동
박봉희 朴奉熙	남	26	농업	10.23	주소지	용인시 포곡면	좌동
박수철 朴秀哲	남	45	청년단장	8.10	하남 미사동	하남시 감북동	좌동
박춘봉 朴春奉	남	65	농업	9.25	수진동	중부면 탄리	좌동
박억천 朴億千	남	64	농업	9.25	수진동	중부면 탄리	좌동
박진원 朴鎭遠	남	46	농업	9.25	수진동	중부면 탄리	좌동
박성복 朴聖福	남	26	상업	9.19	중부면 상곡리	강동구 암사동	좌동
박상천' 朴相天	남	48	농업	8.10	하남시 미사동	하남시 감북동	좌동
추연상 推淵相	남	23	상업	9.21	남한산성 밖	산성리	좌동
추광호 秋光鎬	남	50	상업	9.21	남한산성 밖	산성리	좌동
추연철 秋淵哲	남	27	상업	9.21	남한산성 밖	산성리	좌동
추양호 秋良鎬	남	30	상업	9.21	남한산성 밖	산성리	광주시 상번천리
정봉기 鄭鳳基	남	19	학생	9.27	강남구 세곡동	강남구 수서동	좌동
정근수 鄭根洙	남	28	농업	9.27	강남구 세곡동	성동구 마장동 45	강남구 수서동
정재홍 鄭在洪	남	39	농업	7.25	남종면 분원리	남종면 수청리	좌동
정광산 鄭光山	남	28	농업	9.20	광주면 쌍령리	야탑동	좌동
정방헌 鄭邦憲	남	33	농업	9.19	중부면 상산곡리	돌마면 진촌리	좌동
한기익 韓基翼	남	35	농업	8.11	남종면 분원리	남종면 귀여리	좌동
한숙교 韓肅敎	남	35	상업	8.12	분원리	분원리	좌동
한민회 韓敏會	남	27	면서기	9.20	광주면 쌍령리	서현동	좌동
한철기 韓哲基	남	50	상업	7.20	경안리	경안리	좌동

성 명	성별	연령	직 업	피살연월일	피살장소	본 적	주 소
한창성 韓昌成	남	33	농업	9.1	구천면 곡교리 (굽은다리)	강동구 상일동	좌동
조원선 趙元善	남	36	농업	8.10	서울시	퇴촌면 광동리	좌동
조관중 趙寬中	남	45	정미소	8.10	서울시	퇴촌면 도마리	좌동
조광필 趙光弼	남	26	농업	9.20	광주면 쌍령리	중대면 석촌리	좌동
조민식 趙敏植	남	39	농업	8.10	동부면 미사리	서부면 춘궁리	좌동
최귀남 崔貴男	남	22	농업	7.3	주소지	대왕면 시흥리	좌동
최운서 崔雲瑞	남	30	상업	9.20	광주면 쌍령리	평안남도 용강군	돌마면 야탑리
최권이 崔權伊	남	57	무직	7.3	주소지	이천읍	도척면 노곡리
최광운 崔光雲	남	27	농업	6.27	주소지 뒷산	언주면 신사리	좌동
최성창 崔性昌	남	33	경관	9.19	중부면 상산곡리	구천면 둔촌리	좌동
유현종 劉玄鍾	남	22	농업	9.12	남종면 분원리	남종면 수청리	좌동
유삼복 劉三福	남	28	농업	9.22	분원리	수청리	좌동
유종식 劉鍾植	남	26	농업	9.19	중부면 상산곡리	구천면 성내리	좌동
함연수 咸延洙	남	26	농업	9.22	남종면 분원리	남종면 수청리	좌동
함정수 咸貞洙	남	27	농업	9.22	분원리	수청리	좌동
임택현 林宅鉉	남	49	면장	8.10	초월면 쌍령리	퇴촌면 광동리	좌동
임봉식 林鳳植	남	36	농업	8.10	초월면 쌍령리	퇴촌면 오리	좌동
임무성 林戊成	남	45	농업	9.21	남한산성 밖	중부면 검복리	좌동
임성택 林成澤	남	28	군인	9.25	실촌면 열미리	경주	도척면 진우리
유태근 兪台根	남	26	금융조합 서기	9.22	한강 강변	동부면 덕풍리	좌동
유춘근 兪春根	남	33	농업	9.26	서부면 추성산	덕풍리	좌동
유석병 兪奭炳	남	38	농업	9.19	중부면 상산곡리	구천면 곡교리	좌동
홍창성 洪昌成	남	32	농업	7.8	초월면 상번천리	남종면 분원리	좌동

성 명	성별	연령	직 업	피살연월일	피살장소	본 적	주 소
홍성규 洪性珪	남	27	농업	9.25	동부학교 뒷산	동부면 망월리	좌동
공석표 孔錫標	남	20	농업	9.20	광주면 쌍령리	돌마면 야탑리	좌동
공석봉 孔錫奉	남	21	농업	9.20	광주면 쌍령리	야탑리	좌동
구철모 具喆模	남	22	교원	9.14	초월면 쌍령리	오포면 신현리	좌동
구성회 具聲會	남	56	농업	8.10	서부면 광암리	서부면 감일리	좌동
구중회 具仲會	남	39	농업	8.10	동부면 미사리	서부면 감일리	좌동
신경운 申敬雲	남	53	농업	9.20	광주면 쌍령리	돌마면 이매리	좌동
신대현 申大鉉	남	25	농업	7.5	이천 마장면 관리	도척면 진우리	좌동
신형련 申亨連	남	28	농업	9.19	중부면 상산곡리	구천면 명일리	좌동
안보현 安輔鉉	남	19	학생	9.13	도척면 도웅리	도척면 궁평리	좌동
안태영 安泰榮	남	23	농업	6.27	마을 뒷산	언주면 신사리	좌동
안종환 安鍾煥	남	37	농업	9.19	중부면 상산곡리	구천면 둔촌리	좌동
장태영 張泰榮	남	23	경관	9.14	초월면 쌍령리	오포면 신현리	좌동
장청본 張靑本	남	21	농업	9.20	주소지	도척면 상림리	좌동
장일남 張一男	남	25	군인	9.20	광주면 쌍령리	돌마면 이매리	좌동
석진완 石鎭玩	남	23	상업	9.21	남한산성 밖	중부면 산성리	좌동
석진국 石鎭國	남	29	농	8.4	서부면 감북리	서부면 항리	좌동
문천란 文千蘭	녀	55	무직	7.1	대왕면 신촌리	대왕면 신촌리	좌동
변규현 卞奎鉉	남	32	농업	6.30	주소지	남종면 분원리	좌동
남상필 男相弼	남	17	농업	9.13	주소지	돌마면 율리	좌동
천현귀 千鉉貴	남	35	상업	9.20	광주면 쌍령리	성동구 신당동 115	**3. 6.25 사변 중 피 살 자 명 부** 돌 마 면 야탑리
강신상 姜信商	남	61	상업	9.21	남한산성 밖	중부면 광지원	좌동
신대희 辛大熙	남	33	농업	9.25	주소지	도척면 노곡리	좌동

성 명	성별	연령	직 업	피살연월일	피살장소	본 적	주 소
오세화 吳世和	남	20	농업	9.20	주소지	도척면 상림리	좌동
허 흔 許 炘	남	35	농업	1.25	퇴촌면 정지리	초월면 학동리	초월면 늑현리
허 연 許 涓	남	32	농업	9.19	중부면 상산곡리	구천면 둔촌리	좌동
엄형섭 嚴亨燮	남	22	농업	8.4	서부면 광암리	서부면 춘궁리	좌동
양경찬 梁景燦	남	40	한청단장	9.19	중부면 상산곡리	구천면 곡교리	좌동
황동환 黃東煥	남	45	농업	9.19	중부면 상산곡리	구천면 곡교리	좌동
심로섭 沈魯燮	남	35	농업	7.1	구천면 곡교리	구천면 상일리	좌동
서만석 徐晩錫	남	34	농업	9.15	오포면 고산리	오포면 신현리	좌동

※ 위 표에서 의사단원들 대부분은 쌍령리에서 피살당하였다. 그리고 피살 날짜가 9월 20일에 많은데,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함에 따라 긴박하게 퇴각하면서 집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상천의 나이는 28세가 아닌 48세이고, 구성회는 하남의 치안대 활동을 한 구자관의 백부이며 실제 나이는 59세였다

맺 음 말

옛 광주군 일대에서는 민간인들의 피해자가 다수발생하였다. 인접한 용인시에서는 민간인희생자 추모탑을 건립하고 해마다 추모제를 지내고 있다.

성남에서도 2020년부터 간소하게나마 성남문화원이 주최하고 주관하여 추모제를 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추모제는 성남시민 모두가 알 수 있어야 하고 현재의 번영한 나라를 이루기까지 희생되신 선열들의 애국정신이 있었음을 널리 선양해야 한다.

민간인 희생자 추모사업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잊기 쉬운 현대사의 여러 사건들 중에 6.25관련 사업이 매우 부진하다.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하나 둘 세상을 뜨고 없다. 시간이 많지 않다.

성남 지역 6.25 한국전쟁의 사회 문화적 영향

서 승 갑
(동서울대 외래교수)

성남 지역 6.25 한국전쟁의 사회 문화적 영향

서 승 갑
(동서울대학교 교수)

Ⅰ. 머리말
Ⅱ. 공산주의 배제에 따른 민주주의 이념의 강화
Ⅲ. 6.25 한국전쟁기 성남인들의 동향
Ⅳ. 한국전쟁이 남긴 성남의 무형적 자산
1)무형적 자산에 의한 공감 능력 확산
2)성남의 교육열 폭증 현상
3)한국전쟁이 사회 문화적으로 미친 영향
4)한국전쟁 직후 성남의 놀이 문화
Ⅴ. 맺음말

Ⅰ. 머리말

6.25 전쟁의 역사적 연구 경향은 민족진영과 공산진영의 대립 구도로 이해하여 이데올로기의 갈등과 민족상잔에 초점을 둔 것이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전쟁사 연구의 기본 틀을 완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한국의 선진국 진입의 관점에서 보면 선진화의 원동력은 6.25 한국전쟁에서 태동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6.25 한국전쟁이 성남 공동체인들에게 남긴 무형적 자산이 성남 사회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요인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선진국인 동시에 문화 강국의 면모를 갖추고 세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실정이며 성남은 정보 선진화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E.H. 카는 역사에 대해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를 해석하고 이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이라 규정한다. 이런 사관에서 보면 현재 한국은 선진국으로 발전시킨 지속가능한 요소로 성숙한 시민의식이나 교육열 등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여 다양성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서 의문을 갖게 만드는 것은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지속가능한 중심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원동력을 6.25 한국전

쟁에 적용시켜 본질에 대해 접근해 보면 성남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해석의 필요성을 재고할 수 있는 것이다.

성남 지역은 북한군이 점령한 기간으로 보면 약 70여 일 정도에 해당한다. 북한군 점령 기간 동안 북한식 사회제도의 실상을 체험하게 되었고 강제동원과 납치되어 학살당하는 극한 상황을 경험하였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분단된 남한과 북한은 전쟁 기간 동안 개인별로 자신의 이념에 따라 지리적 공간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6.25 한국전쟁은 성남 지역의 경우 민주주의 가치의 이념이 오히려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게 되어 결속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아닌가 한다.

전쟁은 부정적인 문제만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요소도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당시대적 모순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생존 방식에 관심을 기울이게 만들어 새로운 원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남인들의 민주주의적 가치의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한 저항 정신이나 6.25 한국전쟁에서 비롯된 유형적 문화자산의 소실로 인해 무형적 문화 자산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양상을 검토하는 것은 성남의 진면목을 이해하기 위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여기에서는 6.25 한국전쟁이 미친 성남 사회의 시대적 인식이나 문화적 충격이 성남인들의 의식 구조에 어떠한 영향력을 야기한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성남인들이 공감한 세대 단절에 대한 불안감 등이 성남의 교육열로 폭증한 계기도 아울러 검토하기로 한다. 나아가 6.25 한국전쟁으로 인한 무형적 자산의 가치를 살펴보고 전쟁 기간 중 열악한 의식주가 성남인들에게 미친 영향력에 대해서도 접근하고자 한다.

이런 전제 하에서 성남 지역인들이 경험한 6.25 한국전쟁에 대한 사회 문화적인 무형적 자산을 검토하는 것은 성남의 다양성을 발견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원동력은 실로 6.25 한국전쟁에서 배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미시사적 관점에서 성남의 6.25 한국전쟁이 미친 영향력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Ⅱ. 공산주의 배제에 따른 민주주의 이념의 강화

6.25 한국전쟁은 일제에 투쟁하던 한민족 공통된 이념이 단절되며 남한 중심의 정통적 민족주의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6.25 한국전쟁은 민

족이 재편성되는 인위적 과정을 체험하면서 부정적으로는 민족 구성원의 인적 자원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해방 후 좌우대립의 혼란 양상이 6.25 한국전쟁을 통해 명확하게 정리되면서 이념적 소모의 비효율성이 사라지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가치가 공고해지고 내부 결속력이 확고하게 정착하는 현상이 성남의 지역사에서 잘 드러난다. 정치적으로 반공이데올로기를 강화하면서 극단적인 배제 논리가 확산되었고 반대급부로 남한 정부는 공산주의와의 차별화를 통해 내부 결속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로 삼았기 때문이다.

먼저 6.25 한국전쟁으로 인한 광주군의 인적 피해 상황을 살펴보면 총 희생자는 4,859명에 달한다. 1951년 9월을 기준으로 사망자는 4163명, 부상자 300명, 행방불명 327명, 납치 69명이다.[67] 특히 사망자의 경우 남자가 2498명, 여자가 1665명으로 나타나며 부상자도 남자 180명, 여자의 경우 120명으로 집계된다. 사망자와 부상자의 희생에서 주목되는 것은 전쟁의 희생자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극단적인 전쟁 상황에서 사망자의 증가 현상은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안긴 것은 물론 살아남아야 한다는 신념이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한국전쟁 상황에서 이데올로기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것은 갈현동의 임희철 사례이다. 성남 의사단 박신근의 증언에 따르면 정치적 가치관의 갈등을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다.

갈현동에 임희철씨가 있었는데, 적색분자인 아들은 6.25 전쟁 전에 월북했다. 사람들이 임희철을 돌마면 민청위원장을 시켰는데, 그 때 추석이 얼마 안남았는데(9월 26일이 추석이었음. 인천상륙작전으로 수복되기 직전이었음) 공산당이 추석을 앞두고 추석에 송편에 독을 넣어 지역 유지들을 독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런데 수복되면서 임희철이 마을 주민들을 피신하도록 알려줘서 주민들이 무사했다. 저수지 밑에 비석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뭔지 몰랐다.[68]

6.25 한국전쟁 당시 갈현동에 거주한 임희철은 민청위원장을 지낸 인물인데 그의 아들이 6.25 전에 월북했다는 것이다. 혈육임에도 불구하고 사상과 이념이 다르면 북한으로 월북한 사실은 앞에서 지적한 이념과 대립으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 방식이다. 광주의 경우 1951년 월북자 통계에 따르면 남자 296명, 여자 11명으로 총 308명이 월북한 것으로 나타난다.[69]

---

67)경기도지편찬위원회, 경기도지(중), 1956, 300쪽.
68)성남문화원, 성남(광주)지역 6.25 한국전쟁과 성남 의사단 조사보고서, 박신근의 증언, 2021.
69)정병준, 역사학의 시선으로 읽는 한국전쟁, 한국전쟁기 남한 민간인 인명피해 조사의 유형

갈현동의 성남인들은 한국전쟁 기간을 전후해서 이념에 따라 지리적 공간을 달리하면서 대립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한 가족도 이념으로 대립하면서 유교에 기초한 전통적 가치 체계는 전쟁으로 인해 와해되는 불행한 사태가 초래된 것이다. 세부적인 면에서 보면 성남 지역에서 펼쳐진 6.25 한국전쟁은 민족상잔의 피폐함을 야기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월북의 형태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지리적 공간을 선택한 것이 된다. 이를 통해 남한 전체 사회는 물론 특히 성남 지역은 이념적 내부 갈등의 중대한 요인을 제거하고 내부 결속력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

성남인 임희철은 민청위원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을 비밀리에 대피하도록 한 행동은 민주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공동체 논리를 추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당연한 논리이지만 역사성의 관점에서 보면 성남인들은 일제에 대항하여 형성시킨 한민족공동체 의식에서 탈피하여 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한 성남공동체 이념에 천착하게 된 것이다. 즉 성남인들은 기존의 민족공동체 인식을 좀 더 좁게 해석하고 강화시켜 남한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에 입각한 민족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배제하려는 의지가 확산될수록 이것에 비례하여 내부적인 결속력은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현상이 남한 사회에 정착된 것이다. 6.25 한국전쟁이 남긴 중요한 가치 체계는 공산주의를 오랑캐로 인식하여 격멸하려는 민주주의 이념이다. 한민족 전체의 역사성에서 보면 일제 강점기에 투쟁한 사회주의 이념은 일제에 항거한 민족투쟁의 수단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6.25 한국전쟁을 경험하면서 사상에서 대전환이 발생하여 북한은 박멸해야만 하는 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이러한 전환기 이념 논리는 쉽게 변화되기 어려운 것인데 불행하게도 한국전쟁에서 죽음과 삶의 논리가 작동되어 오히려 민주주의 이념이 강화되는 구조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6.25 한국전쟁의 긍정적 요소는 지속적인 남북의 대립적 경쟁 구조가 긴장감을 조장하였고 결국 생존을 위해 배수진을 치고 전력을 다하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었다. 물론 이데올로기가 작동한 측면도 있지만 의식만으로 형성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를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은 남한의 특수한 군사문화이며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차별하려는 성향은 보편화되어지고 사회에서 일반적 현상으로 자리한 것도 사실이다. 부정적으로 측면에서 보면 차별을 통한 배제 논리는 단기간적으로 부정부패와 사회모순의 갈등을 조장한 것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무의식적으로 경쟁하여 살아남으려는 의지가 한국의 빨리 빨리 문화로 자리하였고 정보화 사회에서 빠른

과 특징- 한국정부의 통계 명부를 중심으로-, 휴머니스트, 2010.

속도로 세계를 장악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점에서 보면 좌우대립의 소모적 양상이 일정 부분 불식되며 성남의 사회 구조는 오히려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성남 지역을 한정해서 규명해 보면 한 지리적 공간에서 이념적으로 대립하여 비효율성과 갈등이 촉발된 사회가 해방 후 일정 동안 유지되었다. 그러나 한 공간에서 이념 대립을 하던 성남인들은 6.25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서로 격리된 지리적 공간을 선택하여 완전 분할된 것이다. 민주주의 이념으로 결집된 성남 사회는 한 가지 이념으로 통합되면서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성남 사회는 공산주의에 대한 배제력을 강화할수록 내부 결속력이 증가되는 경향을 드러냈으며 이러한 원동력이 사회 발전을 이루는 내적 요인으로 작동되었다. 6.25 한국전쟁은 민족적 시각에서 보면 상잔의 아픔이었지만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 각자 소신의 이념에 따라 서로 다른 공간을 선택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결국 남북의 인적 자원의 구성이 정리된 결과가 되었다. 즉 민주주의 이념을 공동적인 자산으로 선택한 성남인들은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우선하는 통일된 공감 정신이라는 무형적 자산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

Ⅲ. 6.25 한국전쟁기 성남인들의 동향

성남 지역의 6.25 한국전쟁은 전쟁사 관점에서 세밀하게 분석되어 정리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성남인들의 입장에서 6.25 한국전쟁이 갖는 의미에 대한 연구는 소흘하게 취급되어 왔다. 여기서는 성남인들이 한국전쟁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고 성남 의사단 조사보고서의 증언록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성남인들의 전쟁에 관한 동향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

광주 피살자 명부는 정확한 자료라 할 수 없지만 대략적인 진실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분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접근하기로 하자. 광주 피살자 명부는 다면적으로 분석하여 접근해 보면 시사하는 바가 있다. 광주 피살자는 총 128명으로 나타나며 농업 종사자는 93명으로 73%를 차지하고 있다. 경찰, 면장과 면서기, 공무원, 교사, 학생, 상업인(16명), 금융조합원, 군인, 정미소, 무직 등 다양한 직업군의 종사자들이 희생되었다,

광주군의 경우 북한군 점령 기간 동안 85명이 납치되고 143명이 피살되었다. 남한사회에서 집중적으로 납치되는 상황은 김일성 밀명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김일성은 그의 전집에서 '남조선에서 인테리들을 데려올데 대하여'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남한 사회에서 인테리층을 집중적으로 납치한 것은 북한 인테리층을 보충하려는 전략이었기 때문에 치밀하게 수행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성남 지역 대왕면 둔전리 김재수, 김덕남 등 16명이 납치되고 분당구 야탑동 공석봉, 공석표 등 39명이 피살된 것은 북한 점령군의 계획적 만행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70]

류덕선의 증언에 따르면 광주 돌마초등학교 교사였던 구철모는 철사줄에 묶인 상태로 끌려 갔는데 감시가 소흘한 틈을 타 소나무 옹이에 철사줄을 비벼 끊은 후 탈출하였다는 것이다. 돌마면 면서기였던 이서구는 동료의 무리에서 약간 멀리 떨어져 있다가 밤에 철사줄을 풀고 탈출하는데 성공하였다.[71]

위의 사실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피살자의 선정 기준이다. 대체로 북한 인민군은 공동체 내에 해악을 미치거나 신뢰를 잃거나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선정 기준으로 삼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공산주의 계급의식에 사로잡힌 집행자들은 신분의 위치나 계급에 의해 피살자를 선정하고 잔인하게 처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민군 전술은 지주나 지식인, 경찰 등을 처형하여 인민들에게 호응을 얻으려는 것이었지만 민주주의 이념을 경험한 남한 시민들은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잔혹한 만행이었던 것이다.

성남인들은 죽음을 마주한 극단적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행한 선한 행위가 자신의 목슴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피폐한 삶에서도 나눔을 베풀고 상대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려는 과정에서 공감 정신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전쟁을 통하여 공동체를 이끌거나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처세술을 학습하게 되었다. 전쟁을 통해 경험적으로 체득한 부정적 행동 요령은 성남인들의 정신세계를 확고하게 지배하는 것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이러한 처세술은 살아가는 지혜로 여겨졌으며 민문화 형태로 전승되는 계기가 되었다.

앞에서 지적한 성남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북한 점령군의 비상식적인 만행에 분노하여 점령군을 전복하려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성남의 반공청년운동자들은 점령군 북한군에 타격을 가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공유하는 한편 지하공작의 활동을 전개하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피살되었다. 민주주의 신념을 확신한 반공청년운동자들은 자발적으로 지하 활동을 전개하고 선각자적 희생을 감내하여 성남인들의 정신적 지주가 된 것이다. 반공청년단원의 상세한 저항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70)김명호, 「6 • 25전쟁 납북자 실태의 실증적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 Ⅰ,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2006, 1114~1149쪽.

71)성남문화원, 성남(광주)지역 6.25 한국전쟁과 성남 의사단 조사보고서, 유덕선의 증언, 2021.

반공청년단체 한청원 소속인 김승업(33)과 이정신(48)은 대왕면 출신으로 6.25 한국전쟁 이전에 북한군 비행기가 추락하자 조종사 2명을 체포하여 아군에 인도하였는데 북한군이 이를 알아내어 학살하였다. 산성소학교를 졸업한 돌마면 이규훈(34)은 북한 점령군 하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전복을 기도하는 지하공작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순국하였다. 대왕면 둔전리 출신인 김덕남(38)은 6.25 전쟁 중 치안대장으로 활동하였으며 미처 피난하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군에 체포되어 피살당하였다. 돌마면 이매리 출신인 신경운(51)은 농민으로 북한군 점령 하에서 전복을 목적으로 지하 활동을 전개하던 중 체포되어 피살되었다.

성남인들의 북한 점령군에 대한 본격적인 저항은 순명의사창의비에 새겨진 의사들의 순국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대한청년단원인 이세구는 돌마면 수내리 출신으로 돌마심상소학교를 졸업하고 면직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세구(24세)는 1950년 9월 20일에 북한 점령군의 치하에서 지하공작 활동 중 사전에 발각되어 광주 쌍령리에서 피살되었다. 한편 이복구(32세)는 대한청년단원으로 돌마면 수내리 출신으로 돌마면 면직원이었는데 지하공작 활동 중 체포되어 살해되었다. 면직원이었던 이들의 상세한 활동 내역은 알 수 없지만 점령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단원 및 민간인과 공유하고 점령군 치하를 전복하기 위한 공작 활동을 감행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겠다.

김석진(29)은 대한청년단원으로 활약하였으며 순명의사창의비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 김석진은 돌마면 이매리가 본적이며 돌마소학교를 졸업하고 농업에 종사하였다. 순국한 의사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김춘식(31)은 경관, 이세구(25) 한민회(27)는 면서기, 장일식(25) 군인, 이성규(21) 학생, 구철모(22) 김운권(26)은 교원, 최운서(30) 김병기(35)는 상업이며 나머지 의사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었다. 순국한 의사들의 평균 연령은 28세이며 피살당한 일자는 9월 13일을 시작으로 9월 20일에 집중되어 있다. 피살 장소는 남상필이 돌마면 율리 자택에서 순국한 것과 기록이 불분명한 정주훈을 제외하면 모두 광주 쌍령리에서 피살되었다. 성남순명의사단원을 직업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성남순명의사단원의 직업표

직군	순국자 명단
농업	김석진 김점진 이복구 이인규 조광필 이광석 이주명 박상헌 김우식 신경운 이각훈 이선규 남상필 공석봉 공석표 이경구 김흥준
공무원	김춘식(경관) 장태영(용산경찰서 순경) 이세구(면서기) 한민회(면서기)
교원	김운권 구철모
상업	최운서 김병기

군인	장일룡
학생	이성규
불명	정주훈
생존자	류지창(교사), 남상순, 이종렬, 강인수, 이종찬, 김진성(돌마면 서기), 이세열, 이주환, 정영훈(광주 국회의원), 정창현, 임성규, 이용설

1950년 11월에 건립된 순명의사창의비는 돌마면 면민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추모비를 세웠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것이다. 순명의시창의비에 새겨진 희생자는 28명이며 이와 더불어 생존자 12명의 이름도 새겨져 있다. 순명의사창의비가 건립된 것은 1950년 11월 전쟁 기간 중에 돌마면민들이 자발적으로 건립한 것이어서 의미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삶의 터전인 돌마를 지키려던 숭고한 의지를 비석에 새겨 공동체인 전체에 경각심을 주고 의사들의 정신을 천년 동안 기억하게 하려는 성남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순명의사창의비는 12행의 한시이며 함축적인 내용을 담아낸 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북한 적들이 미쳐 날뛰니, 도처에서 뒤집어지고, 국민은 도탄에 빠져, 거의 전멸할 지경이었다. 이런 때를 당하니, 어찌 기가 막히지 않으리오. 스물여덟 의사가, 죽음으로써 단결하여, 적들을 물리치려는 장한 뜻이 있었으나, 기밀이 누설되어 오히려 재앙을 당하였다. 애통하구나! 이에 남은 한은, 천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으리.[72]

순명의사창의비를 세부적인 내용으로 접근해 보면 북한 점령군을 적군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의사들은 항거의 당위성을 도탄에 빠져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인데 북한군이 전멸 수준으로 살상한다는 점에 분노하고 있다. 의사들의 항전 의지는 죽음으로 배수진을 치고 단결하여 북한 점령군을 물리치겠다는 각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천 과정에서 정보가 누설되어 역으로 의사들이 재앙을 맞이하게 된 원통함을 기리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성남의사단은 북한 점령군의 만행에 분노하여 자신들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실천적 행동을 실행한 의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성남 의사들의 항전 정신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조선 선비 정신을 계승하여 공동체가 위난에 처했을 때 스스로 발현시켰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북한군의 점령지에 대한 전술은 단시간에 민중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공동체를 양분시키는 것이었다. 즉 일부 공동체원을 타도 대상으로 지목하여 처단한 후 민중의 지지를 확보하는 전형적인 공산주의 전술인 것이다. 그러나 북한군이 의도한 배제를 통한 지지의 획득 작전은 수긍할 수 없는 가혹한 방식의 처단과 대상 선정에서도 동의할 수 없는 점으로 인하여 실패로 돌아간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남의사단의 항전에서처럼 거의 전멸 수준으로 인식되어 항전의 의지만을 고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었

72)성남문화원, 성남(광주)지역 6.25 한국전쟁과 성남 의사단 조사보고서, 순명의사창의비, 2021.

기 때문이다.

북한 점령군의 만행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식선을 벗어나 잔혹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치 않았다. 계급사관으로 무장한 북한군은 이분법적 단순 논리로 공동체원을 계급이나 지위만으로 편을 갈라 처형하는 행태로 인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한 것이다. 성남의사단원들은 공산당식 편견으로 가족이나 친족이 살해되는 악행에 분노하여 항전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성남 의사들은 도탄에 빠진 삶의 터전을 지키고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행동으로 실천하게 되었던 것이다.

Ⅳ. 한국전쟁이 남긴 성남의 무형적 자산

1)무형적 자산에 의한 공감 능력의 확산

6.25 한국전쟁은 유형문화재가 일정 부분 단절시킨 결과를 초래한 반면에 성남인들이 개별적으로 간직한 무형문화재는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되면서 중요성이 배가되었다. 성남 유산인 연안이씨 묘역의 경우가 유형문화재가 소실된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판교동 지역마을지에 따르면 6.25 한국전쟁 동안에 연안이씨 묘역 10만평이 소멸되어 가옥과 사당만이 남았다는 것이다.

마을 뒤편으로 연안이씨 묘역이 약 10만 평 펼쳐져 있는데, 묘역 이외에는 한국전쟁 때 거의 다 불타버려 중요한 유적은 별로 남지 않았다. 모두 불타버리고 겨우 종손의 집과 연성군의 사당이 남았을 뿐이다.[73]

이상의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전통적 가치 체계의 근본이 되는 유형문화 자산이 전쟁으로 인해 소멸되면서 그에 따른 가치 체계도 어떤 형태로든 변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유형문화재의 소실은 물론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토지대장도 소실되어 재복원하는데 행정력이 동원되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유형문화재를 비롯한 토지대장의 복원이 중차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공동체의 유형문화재 복원 등은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고 대신에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무형문화 유산이 전통 계승에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북한군이 물러난 후 면서기 생활을 하였다. 당시 면서기의 중요 임무는 공출에 관한 것이었고, 소실된 토지대장 등을 복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다. 면사무소의 토지대장이 소실되어 회복등기라는 것을 시행했는데, 용인세무서에 일부 자료가 남아 이

73) 성남 분당구 판교동 지역마을지, 디지털성남문화대전 참조

것을 참조하는 한편 일반인들에게 신고를 받아 등기를 복구하였다.[74]

성남 고등동에 거주한 이찬의 증언은 토지대장을 복구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일단을 짐작케 하는 논증 자료라 할 수 있다. 성남인들이 겪은 혼란은 경제적 자산의 토대인 토지대장의 소실이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유형문화 자산의 단절이며 반대급부로 정신적 무형문화의 자산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성남의 교육열 폭증 현상

6.25 한국전쟁이 성남에 미친 영향은 다양한 형태로 잔존하는 것이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점은 한 세대의 단절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성남의 미래 사회를 이끌 지식인층을 비롯한 공동체 선각자들이 전쟁으로 희생되면서 성남인들은 본능적으로 계승문제에 관심이 초집중되었다. 즉 자식을 잃은 부모는 손자 세대에 애정을 쏟아 부었으며 미래 세대의 육성은 자연스럽게 교육열로 증폭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도 미래 세대 육성은 중차대한 과제였기 때문에 개인적 열망과 맞아 떨어져 교육기관을 재구축하는 일이 긴급하게 시행된 것이다. 여기에 6.25 한국전쟁기에 체험한 배워야만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는 선험적 경험은 교육에서 경쟁 구도로 이어지면서 학교 건립에 치중한 것이다.

초등학교 학생 수의 증가도 교육열을 높이는데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1945년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학생 수는 136만 명이었는데 1960년에 이르면 362만 명으로 증가하여 3배 이상 늘어난 것이었다.[75] 특히 정부가 시행한 교육 정책에서도 교육열의 일단을 짐작해 볼 수 있다. 1951년 7월 정부는 남한 수복지구에 대해 중학교 입학지원자에 대해 국가고시 실시를 공표하였다. 중학교 입학은 국가고시를 통해 합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실질적인 교육 경쟁의 시작이었다. 경쟁을 촉발시키는 국가고시제는 결국 교육열 폭증에 일조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가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물이 성남에서는 초등학교 건립으로 나타나며 국군 장병을 동원하여 준공한 낙생초등학교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6.25로 불탄 학교를 육군 1사단 장병들이 건축해 1954년 11월 3일 학생의 날에 낙생초등학교에서 준공식이 거행되었다. 1950년 북한군의 남침으로 학교는 모두 불타버렸고, 맨바닥에 멍석을 깔고 공부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전쟁이 끝난 후 1954년 봄에 미8군사령관 테일러(Taylor) 장군이 다녀가고, 한국군 1사단 장병들이 학교를 다시 지어, 1954년 11월 3일 학생의 날에 임충식 사단장과 면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준공식을 가졌다. 이 때 교

74) 성남 수정구 고등동 지역마을지, 고등동 이찬의 증언, 디지털성남문화대전 참조.
75)오세연, 한국형대생활문화사 1950년대, 팽창하는 학교와 학생, 창비, 2016년. 111쪽.

실 10개와 책걸상 및 부속건물까지 준공되었다.

성남인 교육열은 전통적으로 가문을 이어야만 한다는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기반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성남인들은 유교적 가치관에 더해 6.25 한국전쟁으로 인한 사망자의 증가로 세대 단절이라는 절박한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내재적 요인이 결합되어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승화한 것이다. 길게 보면 교육에 대한 성남인의 열정이 오늘날의 성남인 사회의 기반으로 자리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한국전쟁이 사회 문화적으로 미친 영향

해방 후 바지와 저고리를 주로 착용했던 성남인들의 의복 형태는 한국전쟁을 계기로 실용적이고 간편한 복장을 추구하게 된 것이 특징이다. 6.25 한국전쟁이 성남인들의 의상 문화에 영향을 미친 것은 의복에 실용성을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즉 전쟁 중 숨거나 도피할 경우 눈에 띄는 흰색의 저고리 등은 발각되기 쉬워 치명적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광동에 거주하던 김영규의 증언은 의복 문화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해방되기 전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초등학교 다닐 때는 바지, 저고리에 조끼를 입는 한복을 입고 다녔다. 농촌이므로 옷감은 자급자족이었다. 베, 모시 등의 여름옷과 겨울에는 무명으로 된 바지저고리와 여자들은 저고리와 치마를 입었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남녀의 옷의 차이가 줄어들었다. 한국전쟁 후에는 일반인은 물론 학생들도 염색한 군복을 입었다.[76)]

위의 증언에 따르면 6.25 한국전쟁 이후에는 대부분 한복의 바지와 저고리는 퇴색하고 성남인들과 학생들의 의복 형태가 주로 염색한 군복으로 대체된 것이 특징이라는 것이다. 결국 6.25 한국전쟁 후 성남인들의 의복이 동일하다는 것은 공동체의 집단의식도 동질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쟁 후 악화된 경제력은 개인의 취향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므로 적어도 의복 문화의 경우 계층적으로 수평적 대등관계의 성향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수평적 대등관계의 성향은 성남인들이 공감대를 형성 과정에서 쉽게 동화될 수 있는 토대가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북한군에 협력한 내부 조력자들이 처형자로 지목하는 경우 타인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평판이 중요하게 작용된다는 사실을 6.25 한국전쟁 기간 동안 경험하게 되었다. 성남인들은 생존을 위한 처세는 상대의 처지에 대해 공감하고 도우려는 배려 정신이 있어야만 생존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자각

76) 성남 중원구 금광동 지역마을지, 금광동 김영규의 증언, 디지털성남문화대전 참조.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무형적 자산이 의복 문화에 영향을 미치면서 타인보다 튀는 색상은 피하고 다른 사람과 동일한 종류의 옷을 선택하는 경향이 보편화된 것이다.

6.25 한국전쟁으로 인한 성남의 경제 상황은 최악의 빈곤이 지속되었으며 굶주림이 일상화되는 것이 현실이었다. 성남을 포함한 광주 지역의 경우 대표적인 피난민 수용지로 부상하였다. 전쟁 기간 동안에 광주 지역은 계속해서 피난민의 수가 증가하였는데, 1951년 말에 1만 5803세대, 8만 3206명이었던 피난민이 1953년 말에는 2만 129세대, 10만 5733명으로 늘어난 상황이었다.[77] 당시 자유신문의 기사 내용은 피난민의 열악한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엄동을 맞아 그들도 면내 원주민 주택과 움집, 가막사 등에 간신히 수용되고 있으나 근간 수송난과 물자 결핍으로 인하여 식량을 위시한 모든 구호물자가 원활치 못하므로 극도의 생활난에 빠지고 있다. 8월 이후 현재까지 4개월 동안 1일 3홉 배급도 한 달에 20일분 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78]

6.25 한국전쟁 기간의 식생활은 생존을 위한 음식 섭취가 일상의 최대 목표였던 시기였다. 인간의 음식 섭취량으로 보면 한국전쟁 기간의 섭취량은 인간 생존의 최저치의 양으로 연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굶주림의 공포는 반대급부로 생존을 위한 간절함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인내하는 내성이 길러지고 음식물의 중요성을 몸으로 체험하는 산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런 산경험들이 한국전쟁 후 남한을 성장시키는 무형적 자산으로 작동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도 최악의 상황을 이겨냈다는 자부심이 긍정적으로 작동되어 도전정신을 높이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주거 문화는 기존 가옥이 대거 소실된 것으로 성남은 특히 움집과 가막사의 주거 형태가 자리하게 되었다. 성남 수내동 이연복의 증언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는 마을 전체가 파손되었고 월남한 피난민들이 성남에 정착하면서 임시 막사나 움집 형태의 가옥이 증가한 것이다.[79] 전쟁이 종결된 후의 상황도 대동소이한 것이어서 주거 문화는 열악한 상태를 유지한 것이었다.

시장 풍경 중 깔판을 깔고 앉아, 군의 잔밥을 끓여 먹는 지게꾼과 시민의 모습은 생명력이다. 집은 군용 텐트로 된 천막집이다. 장사하는 분은 손수레를 개조하여 건축허가도 없이 제멋대로 지었다. 장사할 때는 상점이고 잘 때는 주택이다. 이동도 가능했다.[80]

77) 경기도지편찬위원회, 경기도지 (중), 1956, 315~316쪽.
78) 자유신문, 1951년 12월 13일.
79) 성남의 마을이야기(수내동), 이연복 증언, 디지털성남문화대전 참조.

성남인들은 6.25 한국전쟁을 통하여 음식과 주거 문화의 경우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감내하며 견디어 냈다. 결과적으로 성남인들은 6.25 한국전쟁으로 인한 열악한 환경을 온몸으로 부딪혀 해결하면서 생존의 의지력을 강화시켰다. 최악의 음식과 주거의 실정이 성남인에게 평등하고 수평적 대등관계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성남 공동체원들은 자신의 생존력을 높이는 길은 타인의 처지에 공감하고 배려하는 즉 공생적 관계망이라는 사실을 체득하게 된 것이다. 결국 성남인들이 구축한 공생적 관계망은 성남인의 무형적 자산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4)한국전쟁 직후 성남의 놀이 문화

6.25 한국전쟁은 아이들의 놀이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주목되는 사실은 공동체 가치를 실현시키는 지리 공간적 터전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했다는 점이다. 6.25 한국전쟁의 후반기에는 남한과 북한이 38선들 두고 영토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다. 공동체 터전을 지킨다는 것은 죽음을 담보로 한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고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다. 이러한 잠재적인 의식이 학생들의 놀이 문화로 변형되어 학교 교실에서 책상에 선을 그어 자신의 영토라 주장하는 놀이로 재현된 것이다. 성남인 현영조의 증언 내용은 6.25 한국전쟁 당시 놀이 문화에 대해 언급한 것인데 재해석해 보면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6.25 당시 초등학교 교실의 책상을 경계삼아 피난민들의 임시 생활 속에서 산다는 것은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간에 재난의 대피 모습으로 기억된다. 그리고 각 세대를 책상 울타리(열려진 칸막이)로 구획하면서 주먹밥을 먹을 대에 비하면 행복하다. 교실 하나에 여러 세대가 겸계 금(선)을 긋고 소유권을 행사하던 시대다.[81)]

선을 그어 구역이나 울타리 경계를 구분하려는 성남 학생들의 놀이 문화 형태는 6.25 한국전쟁이 남긴 무형적 문화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대사회 울타리 문화와 연관된 경계 문화는 전쟁에서 중요 지역을 확보하려는 전략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대적으로 울타리를 확보하거나 넓히려는 의지가 약화되어 경계선이 안정화되면 경계선 문화는 일상에서 소멸되는 것이다. 한국전쟁 직후 울타리 경계 문화는 성남인들에게 자의식을 형성하게 하고 사유재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Ⅴ. 맺음말

80) 현영조, 성남시40년사 제1권, 성숙된 도시의 시작, 2014. 463~464쪽.
81) 현영조, 성남시40년사 제1권, 공간구조와 주민 생활권, 2014. 463~464쪽.

6.25 한국전쟁의 부정적 측면인 이념적 대립이나 민족적 상잔이라는 일반적 인식은 역사적으로 미시사적 해석이기 때문에 한계점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의 선진화된 한국의 시각에서 과거 6.25 한국전쟁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다양한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전쟁 상황에서 차별화의 배제 논리가 민주주의 이데올로기로 집적되면서 성남인들의 공감 정신이 확대되고 한편으로 내부 결속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6.25 한국전쟁은 민족상잔이라는 기본적 시각이 있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지리적 공간을 선택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광주 지역의 경우 강제 월북자를 포함한 월북자가 308명에 달하는 것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갈현동 임희철의 아들이 자진 월북한 것은 이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성남 지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6.25 한국전쟁은 이념적으로 좌우 대립하는 소모적 양상을 불식시키고 나아가 통합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향하면서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한국전쟁은 성남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남한과 북한의 지리적 공간에 공동체 구성원을 재편성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성남인들은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 투쟁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내부적으로 통일된 가치관을 수립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성남 사회는 한 가지 이념으로 통합되면서 효율성이 증대되는 기반을 형성할 수 있었다. 6.25 한국전쟁이 성남 지역에 미친 영향은 공산주의 타도의 배제 논리를 강화시킨 것에 비례하여 내부 결속력이 강화된 것이다. 즉 이념의 차별화를 통해 민주주의에 의한 민족적 정통성을 확보하게 되었고 성남의 경우 민주주의가 지역 공동체 정신으로 자리하게 된 것이다.

북한 점령군의 만행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식선을 벗어나 잔혹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자행하였다. 계급사관으로 무장한 북한군은 이분법적 단순 논리로 공동체원을 계급이나 지위만으로 편을 갈라 처형하는 행태는 성남인들의 분노를 촉발하였다. 성남의사단원들은 공산당식 편견에 사로잡힌 북한 점령군이 가족이나 친족을 살해하는 장면을 묵도하다가 전멸의 악행에 분노하여 항전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성남의사단원들은 도탄에 빠진 삶의 터전을 지키고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행동으로 실천하였다. 한국전쟁 중 성남의 의사들은 공동체를 수호하고 자신의 민주주의적 신념을 죽음으로 드러내 후세인들에게 귀감이 된 것이며 이것이 성남의 정통적 정신이다.

6.25 한국전쟁이 성남 지역이 미친 영향력은 유형적 문화자산이 불에 타 소멸되는 상황으로 인해 전통적 맥락을 유지하려는 의지로 나타난다. 한국전쟁 과정에서 성남

인들은 유형적 문화자산보다는 무형적 문화자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결국 패러다임을 달리하는 계기가 되었다. 성남인들의 무형적 자산은 의식 구조를 장악하게 되는데 6.25 한국전쟁을 계기로 문제를 해결하는 극복력이 강화되었다. 즉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도 최악의 상황을 이겨냈다는 자부심이 긍정적으로 작동되어 도전정신을 높이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다.

6.25 한국전쟁의 무형적 자신이 성남 문화에 미친 영향 중 주목되는 것은 교육열의 폭증이다. 한국전쟁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세대 단절로 이해할 수 있으며 사회를 이끌어야 하는 성남인 젊은 세대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 맥락을 계승하려는 차원에서 보면 성남인들은 청소년층을 일으켜 세워야만 하는 절박감이 교육열의 폭증으로 발현되었다. 이런 내재적 요인으로 인해 성남지역은 전쟁 후 복구 과정에서 학교 건립을 제일의 목표로 삼아 온 관심을 집중시킨 결과물이 낙생초등학교 준공인 것이다.

성남인들의 의식주 관련 무형적 자산은 일정 부분 6.25 한국전쟁에 영향을 받아 발생한 요인이 있다. 전쟁으로 인한 열악한 경제적 요인이 의복이나 주거, 음식의 부문에서 차이를 줄여 수평적 대등관계를 형성하게 했다는 점이다. 의복 문화의 경우 실용성을 중시하고 타인보다 튀는 색상은 피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다른 사람과 동일한 종류의 옷을 선택하려는 취향이 보편화된 것이다. 주거의 형태에서도 움막이나 가건물에 기거하고 기아선상에서 생존을 위한 음식물을 섭취하면서 인내하고 감내하려는 정신력을 함양할 수 있었다.

6.25 한국전쟁이 성남인의 무형적 문화 자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공생에 관해 새롭게 자각했다는 점이다. 성남인들은 생존을 위한 처세는 상대의 처지에 대해 공감하고 도우려는 배려 정신이 있어야만 생존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전쟁 상황에서 자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광주대단지 사건을 계기로 성남인들은 인적 구성이 재편성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공감에 기초한 공생의 가치관을 지켜내면서 오늘날 성남을 만들어 낸 것이다.

종 합 토 론 문

제1주제 토론문

김 용 달(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제2주제 토론문

<6.25한국전쟁 시 민간인 희생과 의사단> 토론문

최 명 숙(성남학연구소 소장)

제3주제 토론문

“성남 지역 6.25 한국전쟁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토론

조 남 두(신구대학 명예교수)

토 론 문

김 용 달(前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1. 제27회 성남문화원 학술회의에 토론자로 초대해주셔서 영광입니다. 저는 조선 건국에 반대하여 조선초기 성남시에 은거하였던 충정공 김약시의 20대 종손으로 성남시 창곡동에서 태어나 대왕초등학교 3학년을 마치고 상경하였다가 귀향해 현재는 위례신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광산 김가 일문은 성남시 창곡동과 금광동에 세거지를 두고 600여 년을 살아 내려와 성남시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2. 오늘 '6.25전쟁시 의사단 활동과 추모사업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학술회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학술발표를 들으며 애향심이 새삼 새록새록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양영조 박사를 비롯한 발표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특히 윤종준 박사의 '6.25민간인 희생과 의사단 활동'과, 제가 토론을 맡은 서승갑 교수의 '성남지역 6.25 한국전쟁의 사회문화적 영향'이라는 발제문에 크게 계몽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모르던 충격적인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한국전쟁이 성남 사회에 미친 영향을 깨닫게 되어 대체로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4. 하지만 추모사업 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저는 추모사업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토론의 소임을 조금이나마 면해보려 합니다. 대한민국 국가보훈의 영역은 크게 독립운동과 국가수호(호국), 민주화운동으로 대별됩니다. 곧 독립유공자와 국가수호유공자(호국영령), 그리고 민주유공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독립유공자는 일제로부터 주권을 되찾아 대한민국을 건국하려던 분들이고, 국가수호유공자는 민주공화국으로 건국된 대한민국을 지켜냈던 분들이며, 민주유공자는 이렇게 건국되고 지켜온 대한민국을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기 위해 헌신한 분들을 말합니다.

5. 그렇다면 성남시의 추모사업도 이분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라 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추모사업 방안으로 독립운동과 국가수호와 민주운동의 거점을 중심으로 이들을 연계한 탐방벨트 조성을 제안합니다. 곧 ① 판교낙생대공원의 '성남항일의병기념탑'과 낙생고등학교의 '낙생면사무소 3.1운동만세시위지', 분당율동공원의 '성남3.1독립만세운동기념탑'을 독립운동의 거점으로 하고, ② 분당 이매동의 성남 6.25전쟁 '순명의사창의비'를 국가수호(호국)의 거점으로 하며, ③ 성남시의 서북관문이자 투쟁지인 복정동에 '(가칭)광주대단지사건기념비'를 세워 민주운동의 거점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6. 사실 1971.8.10. 일어난 '광주대단지사건'은 군사 독재정부의 소외와 차별정책에 맞선 성남시민의 민주화운동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시민들 주체의 소외에 맞선 참여, 차별에 맞선 평등 욕구를 동력으로 하여 꽃을 피웁니다. 따라서 '광주대단지사건'을 성남시민의 민주운동으로 자리매김하여 서북관문이자 투쟁지인 복정동에 기념탑(비)을 세워 이를 성남민주의 거점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판교낙생대공원(성남항일의병기념탑)과 낙생면사무소 3.1운동만세시위지(낙생고등학교)와 분당율동공원(성남3.1독립만세운동기념탑)을 독립운동의 거점으로 하고, 분당 이매동의 성남 6.25전쟁 '순명의사창의비'를 국가수호(호국)의 거점으로 하며, 수정구 복정동의 '광주대단지사건기념탑(비)'를 민주운동의 거점으로 하는 탐방벨트를 조성함으로써, 성남시를 독립과 호국과 민주의 성지로 재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25한국전쟁 시 민간인 희생과 의사단> 토론문

최 명 숙(성남학연구소 소장)

윤종준 상임위원의 발표문 잘 보았습니다. 숨겨지고 잊혀가는 자료 발굴을 위해 애쓴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남은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운 남상목 의병장과 윤치장 의병장 등 많은 의병들이 항일 투쟁을 전개한 역사적 발자취가 뚜렷한 고장입니다.

그런데 민족의 참혹한 전쟁인 6.25사변 당시에도 현대사의 의병이라 할 수 있는 의사단(義死團)이 성남지역에 있었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습니다. 우리 고장을 스스로 지켜 내고자 하는 자발적인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 뭉클하게 합니다.

이번 학술회의를 계기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6.25당시 민간인 희생자 수가 매우 많고, 그 외에도 실종자 숫자도 많은 줄로 압니다. 앞으로 더욱 자료 발굴과 선열들의 업적 재조명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희생자들이 자기가 살던 고장이 아닌 타지에서 희생된 경우도 많고 다른 고장 사람이 성남에서 희생된 사례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접 지역과 공동으로 학술조사를 한다든지, 연구 발표회를 가지는 방안이 모색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간인 희생자 추모 또는 위령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시대에 병자호란 전몰장병들을 경기도 광주에서는 지금도 쌍충묘(雙忠廟)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성남에도 제단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잊히고 말았습니다.

돌마면 주민들은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1950년 11월에 추모의 마음을 담아 殉命義士倡義碑를 세웠습니다. 현재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고 가장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는 우리 성남시민들은 선조들이 이 땅을 지켜 내고자 한 의지를 길이길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민간인 희생자 추모 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곳이 많은 줄 압니다. 우리 성남시에도 이런 조례가 있는지요? 호국보훈의 도시 성남을 가꾸어 나가려면 민간인 희생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성남 지역 6.25 한국전쟁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토론

조 남 두(신구대학 명예교수)

성남 지역 6.25 한국전쟁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해 그동안 역사학자들이 보여준 6.25 전쟁의 역사적 연구 경향인 민족진영과 공산진영의 대립구도로 이해하여 이데올로기의 갈등과 민족상잔에 초점을 둔 것에 대해 서승갑교수는 시각을 달리하여 6.25 한국전쟁이 성남 공동체들에게 남긴 무형적 자산이 성남사회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요인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선진국 진입의 관점에서 보아 선진화의 원동력은 6.25 한국전쟁에서 태동되었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6.25 한국전쟁은 성남 지역의 경우 민주주의 가치이념이 오히려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게 되어 결속력이 강화되는 계기라고 보았다.

I. 공산주의 배제에 따른 민주주의 이념의 강화

정치적으로 반공이데올로기를 강화하면서 극단적인 배제 논리가 확산되었고 반대급부로 남한 정부는 공산주의와의 차별화를 통해 내부결속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로 삼았다.

극단적인 전쟁 상황에서 사망자의 증가 현상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충격과 살아남아야 한다는 신념이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는 원인 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성남사회는 공산주의에 대한 배제력을 강화할수록 내부 결속력이 증가되어 이러한 원동력이 사회발전을 이루는데 내적 요인으로 작동되었다.

II. 6.25 한국전쟁기 성남인들의 동향

성남지역의 6.25 한국전쟁은 전쟁사 관점에 세밀하게 분석되어 정리되었으나 성남시민들의 입장에서 6.25 한국전쟁이 갖는 의미에 대한 연구는 소홀하게 취급되어 왔다.

한국전쟁을 통하여 공동체를 이끌거나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처세술을 학습하여 이러한 처세술은 살아가는 지혜로 여겨졌으며, 민문화 형태로 전승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성남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북한 점령군의 비상식적 만행에 분노하여 점령군을 전복하려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점령군의 만행에 분노하여 자신들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실천적 행동을 실행한 의인들을 추모하고자 1950년 11월에 돌마면 면민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추모비를 세웠다. 추모비에 새겨진 희생자28명, 생존자 12명의 이름을 보고, 머리가 절로 숙여진다.

III. 한국전쟁이 남긴 성남의 무형적 자산

1) 무형적 자산에 의한 공감 능력의 확산

유형문화재 복원 등은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고 대신에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무형문화 유산이 전통 계승에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게 되었다.

2) 성남의 교육열 폭증 현상

성남인 교육열은 가문을 이어야 한다는 유교적 가치관에 더해 한국전쟁으로 인한 사망자의 증가를 세대 단절이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내재적 요인이 결합되어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승화한 것이다. 토론자는 이 문제는 성남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교육열이 타올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본다.

3) 한국전쟁이 사회문화적으로 미친 영향

한국전쟁 중 성남과 광주지역이 피난민 수용지로 사용되었으며, 가옥이 파괴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도 최악의 상황을 이겨냈다는 자부심이 긍정적으로 작동되어 도전정신을 높이는 결과가 되었다. 또한 6.25 한국전쟁을 통해 성남인들이 구축한 공상적 관계망은 성남인의 무형적 자산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옷은 바지, 저고리,조끼 등을 입다가 염색한 군복을 입었는데 성남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본다.

4) 한국 전쟁 직후 성남의 놀이 문화

6.25 한국전쟁은 아이들의 놀이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주목되는 사실은 공동체 가치를 실현시키는 지리 공간적 터전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했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학교 교실에서 책상에 선을 그어 자신의 영토라 주장하는 놀이로 재현했다. 울타리 경계문화는 성남인들에게 자의식을 형성하게 하고 사유재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놀이문화는 다른 지역에서도 성행한 것으로 본다.

한국전쟁은 인적.물적 피해와 더불어 좌.우익 활동으로 인한 주민 내부의 갈등과 분단의 고착화를 초래하였다. 즉, 한국전쟁이 가져온 민족 내부의 대결.대립구도의 강화,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이 한 체제의 존재 정당성을 증명해주는 민족적 비극이 생겨났던 것이다. 이는 성남 시민은 물론 모든 국민들 사이에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개인적.집단적 고통의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결국 한국전쟁은 70년이 지난 현재에도 “끝나지 않은” 진행형의 전쟁으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부 록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 현황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 현황

○ 개 소 일 : 1993년 9월 20일

○ 위　　치 :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15번길 7(신흥동 6926). 성남문화원 2층

○ 조　　직 : 원장(문화원장)
사무국장(문화원 행정사무 총괄)
총무팀장(문화원 총무회계 담당)
연구소장(1인, 연구소 업무 총괄)
상임연구위원(1인, 연구소 학술분야 총괄)
연구위원(10인 내외)

○ 연구위원 : 원　　장 : 김대진(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전 성남시의회 의장)
소　　장 : 최명숙(가천대학교 교수, 문학)
상임위원 : 윤종준(한국사, 성남시립박물관건립 자문위원)
연구위원 : 강은주(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강사)
김용달(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김주홍(경상남도 문화재위원, 역사고고학)
서철수(신구대학교 명예교수, 지적학)
성기용(동서울대학교 교수, 건축학)
정태열(한국풍수지리감정원 부원장)
조남두(교육행정학, 신구대학교 명예교수)
최만순(도시계획 박사, 서정대학교 겸임교수)
홍대한(농림축산식품부 학예연구관)

○ 주요사업
학술회의 : 연 1회 정기 개최(2022년 10월 24일 제27회)
학술토론회 : 비정기적 개최(현재까지 13회)
연구위원 회의 : 분기별 1회 개최
『성남문화연구』: 연1회 발간(2022년 9월 20일 제29호 발행)
각 문중별 인물사 관련 자문
성남시의 향토문화와 성남지역사, 문화유산 관련 자문
성남학아카데미, 문화재해설의날 운영
향토유적지순례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 연혁

1992. 10. 10 풍생고등학교 교사 한춘섭 선생이 <향토문화연구소 설치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게 됨.

1993. 3. 10 향토문화연구소 창립총회 개최
성남문화원 정관 제4조(사업) 규정에 의거하여 성남시 향토사를 연구하고, 그 체계를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성남문화원 부설 기구로 설립.

1993. 9. 20 성남문화원 이사회에서 향토문화연구소 설립 인준

1993. 9. 21 향토문화연구소 현판식, 초대소장 이창열 원장이 겸직

1993. 10. 21. 제1차 연구위원 회의 개최
- 향토문화 연구논문 공모
- 연구소 사업과 활동방향 협의

1993. 11. 16 제2차 연구위원 회의 개최
- 태평동 4911번지 출토 영창대군 묘지석 반출 반대 결의문 채택

1994. 5. 20 『성남문화연구』 창간호 발행,

1995. 8. 29 제6대 이형하 원장 선출 및 취임으로 제2대 소장 이형하 원장이 겸직

1996. 11. 18 제3대 소장 전보삼 신구대교수 위촉
광복 50주년 기념행사, 학술세미나, 의병기념탑, 만세운동기념탑 건립 등을 추진, 남한산성 인접도시 중 처음으로 경기도립공원 제1호 남한산성을 국립공원 지정추진, 세계유산 남한산성이 되기까지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의 노력,

1996. 8. 15 천림산봉수지 위치확인(윤치장 의병장 증손자 윤효상씨 제보)

1996. 10. 10~11(2일간) 제1회 국제학술회의 <남한산성의 현대적 재조명> 개최

1997. 3. 20 천림산봉수터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2019년 9월 24일 복원 준공식)

1998. 3. 9 제8대 남선우 원장 선출
제4대 소장 한춘섭(풍생고 국어교사) 위촉

1998. 11. 향토사료관 설치를 위한 기초조사 연구 착수

1999. 2. 23 제5대 소장 조병로(경기대학교 사학과 교수) 위촉

1999. 10 천림산 봉화 고증을 위한 학술세미나

2000. 10. 30 제5회 학술회의 <향토인물 연구 문정공 한계희> 개최

2001. 2. 20 제6대 소장 백남욱(동서울대 교수) 위촉

2001. 2. 20 성남향토문화총서 1권『성남의 마을신앙과 가정신앙』발행
마을지 편찬사업으로 이어져 연차적으로 9권까지 발행하게 됨.

2003. 2. 12 제7대 소장 천화숙(경원대학교 교수) 위촉

2003. 12. 24 『성남금석문대관』(상) 발행

2004. 12. 15. <광주대단지 사건의 역사적 재조명> 학술회의 개최

2005. 2. 제8대 소장 조유전 교수 위촉

2005. 6. 20 <판교 신도시 지명 제정> 용역 사업 수행

2005. 7. 1 성남시향토유적 제1호인 강정일당이 한춘섭 전 원장 청원으로,
문화관광부 선정 '이달의 문화인물'로 선정

2006. 3. 9 제10대 한춘섭 원장 취임
제9대 소장 손환일 박사 위촉
3. 27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7호 광주이씨 묘역군 지정 청원
4. 25 광주문화권협의회 창립(광주·성남·하남 3개 문화원 참여)

2006. 5.16~17 천림산 봉수지 원형복원을 위한 워크숍
7. 4 천림산 봉수지 원형 복원 시민 종합토론회
8. 30 『성남 천림산 봉수』종합보고서 발간

2007. 5. 20 한중 문화교류 - 삼족오 문화 -

2007. 7. 20 전국의 봉수터 100여 곳을 현지 조사하여「한국의 봉수 40선」발간

2008. 02. 19 제10대 소장 문수진 신구대 교수 위촉
03. 01 3.1운동 학술토론회, <성남지역 3.1운동의 역사적 의미 재조명>
02. 27 제4회 학술토론회, <전주이씨 신종군 이효백 연구>
04. 04 제5회 학술토론회, <동천 남상목 의병장 공훈 재조명>

05. 26 둔촌 이집 묘역을 경기도기념물 제219호로 승격 지정
07. 05 『성남문화원30년사』 발간 및 기념식
09. 17 성남시향토문화재 제8호 신종군 이효백 묘역 지정
10. 10 제6회 학술토론회, <청주한씨 청연공파 세장지 석조물 연구>
10. 17 제13회 학술회의, <판교 도촌지구 발굴 문화재의 보존방안>
11. 04 동천 남상목 의병장 11월, 이달의 독립 운동가 선정

2009. 05. 29 제14회 학술회의, <성남 모란의 과거와 미래>
06. 25 성남시향토문화재 제9호, 청주한씨 청연공파 묘역 지정
08. 15 제7회 학술토론회, <성남지역 독립운동사 재조명>
11. 18 제8회 학술토론회, <조선 초기 평양서윤 김순성 묘역의 가치>

2010. 03. 07 제11대 소장 전봉구 동서울대 건축과 교수 위촉
03. 08 제11대 한춘섭 원장(연임)
04. 25 『역사 숨소리가 있는 남한산성』 / 2009년도 기호일보에 38주간 연재
07. 05 『성남인물지』(광복이전 편) 발행
08. 15 제15회 학술회의, <일제하 성남(광주)지역 신간회 연구>

2011. 07. 04 제9회, 학술토론회 <한성백제시대 남한산성 문화권의 위상>
10. 25 제16회 학술회의 <스마트 성남, 도시 만들기>
12. 07 제10회 학술토론회 <덕수 이씨 의정공파 세거 연구>

2012. 01. 19 제12대 한동억 소장 위촉
07. 04 제17회 학술회의 <한성백제시대 남한산성문화권의 위상>
09. 20 성남문화해설사(5기) 양성 교육
찾아가는 내고장 바로알기 교육
12. 21 성남시향토문화재 제10호, 덕수이씨 의정공파 묘역 지정

2013. 05. 20 제11회 학술토론회 <중·한 文學交流의 成果>
07. 04 제18회 학술회의 <한성백제시대 남한산성문화권의 위상>
제6기 성남문화해설사양성교육
11. 17 『남한산성일대 독립운동사 자료집』 발간(국가보훈처 수원지청 지원)
12. 27 성남학연구소로 명칭 변경

2014. 03. 07 제12대 김대진 원장 취임
09. 19 제19회 학술회의 개최 <성남시 문화유산의 발굴과 전승방안>
09. 20 『성남문화연구』 21호 발간
12. 15 『성남시 40년사』 발간

2015. 02. 성남시40년사 보급판 『성남의 역사와 문화』 발간
03. 27 제12회 학술토론회 <평양조씨 석실공 조철산 연구>

10. 14 제20회 학술회의 <광복70주년 기념 성남지역 독립운동사의 역사적 의미>

2016. 02. 04 제13대 소장 조남두 신구대 교수 위촉
02. 17 성남시향토문화재 제14호, 평양조씨 석실공 조철산 묘역 지정
06. 01 『성남옛이야기』(증보판) 발간
09. 20 『성남문화연구』 제23호 발간
10. 26 제21회 학술회의 <낙생행궁 기록을 통해 본 성남의 역사>
12. 20 『성남지명총람』 발간
12. 30 판교 널다리상징 조경물 <희망-판교> 제막

2017. 01. 17 성남시향토문화재 제15호 지정 - 이무술집터다지는 소리
성남시향토문화재 제16호 지정 - 성남오리뜰 농악
03. 24 ABN 아름방송과 성남지명산책 기획 방송 시작
09. 05 가천대 아시아문화연구소와 업무협력 체결
09. 20 『성남문화연구』 제24호 발간
10. 20 제22회 학술회의 <성남 판교 역사의 재조명> 개최
상, 하반기 성남학아카데미 개설
상, 하반기 수요인문학 개설(한국학중앙연구원 지원)

2018. 03. 07 김대진 원장 제13대 재선
성남학아카데미 개강(17주 과정)
04. 27 아름방송과 공동 기획한 <지명산책>방송 종료 (56회)
05. 23 수요인문학 개강(상.하반기 각 16주)-성남문화재단 지원
07. 05 『성남문화원40년사』 발간 및 기념식
09. 20 성남학연구소 개소 25주년, 『성남문화연구』 제25호 발간
10. 31 제23회 학술회의, <성남문화원 40년의 성과와 과제>

2019. 01. 25 제1차 연구위원회의
06. 14 제2차 연구위원회의
09. 03 제13회 학술토론회 <전주이씨 덕양군파 참판공 이순제 연구>
09. 20 『성남문화연구』 제26호 발간
09. 24. 14:00 성남 천림산봉수 복원 준공식
10. 30. 13:00 제24회 학술회의 <성남 독립운동사의 재조명>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경기지역독립운동사아카데미> 10주과정 및 서대문형무소 답사
※대통령 직속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100주년 기념사업회'로부터 기념사업 국민참여 행사 6종목 인증서 받음

2020. 02. 03 제1차 연구위원회의 개최
04. 28 전주이씨 덕양군파 이순제 묘역이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17호로 지정됨
09. 20 『성남문화연구』 제27호 발간

11. 04　제25회 학술회의<광주대단지 주민생활공간과 도시형성>

2021. 01. 01　天祭봉행(유튜브 방송)
03. 01　3.1절 기념식 거행
03. 13　김대진 원장 제11대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취임(임기3년)
04. 26　금토동 권오범 전통가옥 및 외동정미소 보존 청원서 제출
04. 28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광주대단지의 문화유산을 찾아서> 개강
07. 28　1학기 성남학아카데미 종강
08. 20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지원사업, '마을 큐레이터' 개강
09. 08　2학기 성남학아카데미 개강
09. 20　『성남문화연구』 제28호 발간
11. 01 - 제26회 학술회의<광주대단지(성남)의 문화유산현황과 활용방안> 개최
3월~11월 경기도문화유산활용사업 - 광주대단지(성남)의 문화유산을 찾아서 특강
12. 20　경기문화재단의 경기지역학활성화 공모지원 『우리지역공동체』사업에 윤종준 위원이 「근현대 성남지역의 야학 공동체」를 조사하여 수록됨
12. 26　국가보훈처 문헌발간지원사업 『6.25한국전쟁과 義死團조사보고서』 발행

2022. 02.　성남문화원 정기총회
제14대 소장 최명숙 교수 위촉
성남학아카데미(연간 34주 운영)
문화가 있는 날 - 문화재 전문해설 프로그램 운영

『성남문화연구』

1994년도 제1호

발행일 : 1994. 5. 20
발행인 : 이창열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 김창환(金昌煥), 성남시의 지형환경 연구
- 박상규(朴相圭), 성남지역의 지명성격 고찰 -百濟語와 高句麗語的인 요소를 중심으로-
- 어순영(魚順英), 민족문화 선양에 관한 소고
- 이형구(李亨求), 永昌大君 묘지명 발견과 永昌大君 略史
- 장삼현(張三鉉), 성남의 세거성씨와 인물고-분묘를 중심으로-
- 전보삼(全寶三), 碧巖 覺性禪師의 생애와 사상
- 한춘섭(韓春燮), 성남 漢詩 同人 [詩集] 자료 고찰

1995년도 제2호

발행일 : 1994. 12
발행인 : 이창열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 김창환(金昌煥), 성남시 모란 지역의 상가 기능에 관한 연구
- 박상규(朴相圭), 성남시 지명연구 -수정구 고등동 '도랑터'를 중심으로-
- 백남욱(白南郁), 백제의 초기 강역에 관한 연구
- 어순영(魚順英), 전재열(全在烈), 한국 민속 공연장 시설기준을 위한 기초적 연구
- 전보삼(全寶三), 남한산성의 민족정신 연구
- 한춘섭(韓春燮), 모란지역의 향토사 정리

1995년도 제3호

발행일 : 1995. 12. 20
발행인 : 이형하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 김창환(金昌煥), 성남시의 인구증가와 인구구조에 관한 연구(Ⅰ)
- 박상규(朴相圭), 성남지역의 지명어 '-재' 연구
- 백남욱(白南郁), 고대 남한산고
- 소진광(蘇鎭光), 성남의 산업구조
- 장삼현(張三鉉), 금광동 광산 김씨에 관한 연구
- 장철수(張哲秀), 경기지역과 동구릉의 문화적 연관성
- 전보삼(全寶三), 인조대왕 실록에 나타난 남한산성의 위상 연구
- 한춘섭(韓春燮), 성남지역 의병사 연구

- 허창무(許昌武),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설립목적과 활동
- 조병로(趙炳魯), 조선 후기 남한산성의 수축과 방어시설(Ⅰ)

1996년도 제4호

발행일 : 1997. 1. 20
발행인 : 오세순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 허창무, 제1회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본 남한산성의 위상과 가치 재조명
- 장철수, 남한산성 백제 시조 溫祚王廟의 건립과정
- 백남욱, 백제 한성시대의 도성에 관한 연구
- 조병로, 17, 8세기 남한산성의 재수축에 관한 일고찰
- 장삼현, 남한산성과 의리사상에 대한 연구
- 박상규, 삼전도 대청황제 공덕비문의 원문재구와 보존책에 관한 연구
- 전보삼, 남한산성 문화재 현황과 보존책에 관한 연구
- 한춘섭, 남한산성 가톨릭 순교사 고찰
- 김창환, 남한산성의 지형환경 연구
- 소진광, 남한산성의 가치와 활용방안

1999년도 제5호

발행일 : 2000. 1. 20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 백남욱, 삼국의 전성기의 성남지역에 대한 考察
- 조병로, 조선 후기 남한산성의 수축과 방어시설(Ⅱ)
- 장철수, 남한산성 현절사의 건립과정
- 전보삼, 남한산성 문화유적의 보존과 현안에 대하여
- 조유전, 남한산성과 북한산성 비교 연구
- 한춘섭, 遁村 李集의 연구
- 최종민, 경기도 동남부 지방의 상여소리와 달구소리 연구
- 천화숙, 1920년대 조선 여자기독교청년회의 연합회의 농촌사업과 경기지역
- 소진광, 『삶의 질』제고를 위한 성남시 정부의 역할
- 허창무, 성남과 심양 간 자매도시 결연의 역사적 의의와 21세기를 향한 협력강화 방안

1999년도 제6호

발행일 : 2000. 2. 29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 백남욱, 고려시대의 성남지역에 대한 고찰
- 김기빈, 병자호란과 분당의 땅이름
- 천화숙, 1920~30년대의 여성운동과 兪珏卿

- 한춘섭, 향토 인물의 기초 연구
- 허창무, 삼학사를 통해 본 성남의 시민공동체적 정체성 문제
- 장철수, 성남의 마을신앙과 민간신앙
- 박순임, 성남에 있어서 시민 교양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 지교헌, 『노인복지법』의 기본 이념과 성남시 노인복지정책의 강화방안
- 소진광, 사회적 자본형성과 성남시 발전방향
- 전보삼, 남한산성 발전을 위한 주민 참여 방안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호

발행일 : 2001. 2. 20
발행인 : 박은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 조병로, 조선시대 天臨山烽燧의 연혁과 위치
- 백남욱, 조선후기 金陵 南公轍의 정치운영론
- 김기빈, 남한산성의 문루, 누정, 사찰 등의 명칭에 대한 소고
- 한춘섭, 근현대 성남의 역사 시론(試論)
- 지교헌, 성남 「향토인물연구」에 나타난 선비정신의 원형
- 허창무, 가칭 『성남시향토문화전자대전(CD-Rom)』의 硏究 계획

2001년도 제8호

발행일 : 2001. 12. 30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 조유전, 유적·유물로 본 성남의 고대 역사
- 백남욱, 고려 말과 조선 초의 성남지역에 관한 고찰
- 문수진, 성남시의 集姓村 연구
- 김기빈, 성남시 관내 청계산의 여러 지명에 관한 조사 연구
- 지교헌, <삼학사전>과 항청의리의 유학적 평가
- 천화숙, 한국근대 여성운동의 전개와 성남 여성운동 -YMCA의 운동을 중심으로-
- 한춘섭, 학고(鶴皐) 권오선 文士의 한시 연구

2002년도 제9호

발행일 : 2002. 12. 30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 백남욱, '伯濟國'의 성립과 성남지역
- 문수진, 羅末麗初의 지배세력과 성남
- 조유전, 발굴조사를 통해 본 남한산성 행궁지
- 정은경, 19세기 성남지역의 농민항쟁
- 서승갑, 일제 강점기 성남지역의 노동운동

- 한춘섭, 박태현 작곡가의 예술 활동 연구
- 김기빈, 청계산의 여러 지명에 관한 조사 연구(2)
- 한동억, 일제에 의해 변경된 성남지역의 지명연구
- 박종민, 널다리 쌍용줄다리기의 내용과 의미

2003년도 제10호

발행일 : 2003. 9. 21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 김기빈, 성남지역의「地名偶合」또는「豫言性」지명의 사례연구
- 박종민, 지역사회 喪葬禮 과정의 변화에 대한 일고찰
- 백남욱, 百濟 초기의 영역 확대와 지방통치
- 서승갑, 협동전선의 측면에서 본 성남지역의 신간회 운동
- 전보삼,, 성남의 정체성에 관한 일고찰
- 정은경, 근대 성남지역의 지방제도 변천과정
- 한동억, 성남지역 왕실문화의 연구
- 한춘섭, 성남시 향토문화의 반성

2004년도 제11호

발행일 : 2004. 9. 21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 채수명, 탄천문화 창출 방법론에 관한 심층조사 연구
- 천화숙, 조선후기 강위의 개화사상
- 한동억, 율리마을 구비문화 연구
- 한춘섭, 龜川君 생애에서 얻어진 시문 연구
- 허흥식, 낙생지역 延安 李氏의 세거와 중요자료
- 현영조, 환경과 문화관점에서 본 도시공간 연구

2005년도 제12호

발행일 : 2005. 9. 20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 조유전, 분당지역의 선사문화 시론
- 김덕묵, 성남의 무속신앙
- 채수명, 모란시장문화 창출 방법에 관한 심층조사 연구
- 천은복, 성남지역의 불교의례 연구
- 한동억, 성남지역의 왕실문화의 연구Ⅱ
- 한춘섭, 성남의 충효 인물 조사

2006년도 제13호

발행일 : 2006. 9. 20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 손환일, 연성군 이곤 묘비 삼족오의 위상과 가치
- 문수진, 조선 초기 성남의 인물 검토
- 이형구,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삼족오 신앙에 대하여
- 김주미, 朱雀旗와 日旗를 통해 본 日象文의 변천
- 최명숙, 성남의 문인과 작품연구
- 윤종준, 조선의 유형 집행과 양녕대군 이제의 광주 안치

2007년도 제14호

발행일 : 2007. 9. 20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 한춘섭, 성남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 찾기
- 손환일, 조선시대 경기도 성남지역 금석문의 서체
- 문수진, 양란의 극복과 성남지역
- 이 영, 남한산성의 원형경관 복원에 대하여
- 윤종준, 한말 성남지역 의병전쟁 연구
- 최명숙, 성남의 문인과 작품세계

2008년도 제15호

발행일 : 2008. 9. 20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 손환일, 경기도 성남지역 조선시대 석비의 표제양식과 서체고찰
- 윤종준, 천림산 봉수 복원사업의 추진 경과와 봉수 운영의 실태
- 김위성, 성남시 향토문화재의 보존관리 개선연구
- 최명숙, 성남의 문인과 작품연구
- 조남두, 성남지역 평생교육 실태 조사연구
- 이수철, 지방화 시대에 문화적 요구의 대응을 위한 성남문화원의 역할

2009년도 제16호

발행일 : 2009. 9. 20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 문수진, 조선시대 시장의 발달과 성남 모란시장
- 손환일, 한지(韓紙)의 현대적 실용화 전략
- 조남두, 성남지역의 취학전 교육 실태조사 연구

- 윤종준, 탄천(炭川)의 지명 유래와 역사 고찰
- 권 일, 성남시 지역축제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홍성일, 성남시 초등학교 교가에 나타난 특성 연구

2010년도 제17호

발행일 : 2010. 9. 20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 한동억, 성남지역의 역사와 충절
- 백종오, 조선시대 봉수유적의 문화자원 활용방안
- 김주홍, 조선후기 지방지도의 봉수표기
- 윤종준, 명선·명혜공주에 대한 고찰
- 강진갑, 성남지역독립운동사적지 문화콘텐츠 개발방안
- 이수철, '모란민속5일장' 의 성립과 발전의 사회적 의미

2011년 제18호

발행일 : 2011. 9. 20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 한동억, 성남의 백제 전설·설화
- 김주홍, 성남의 선현묘역(Ⅰ) - 청주한씨
- 서종원, 판교 쌍용거(巨) 줄다리기 재고찰
- 문수진, 성남학 연구의 현주소
- 최만순, 성남시 역사문화 환경의 특성연구
- 조남두, 성남지역 다문화 교육 조사 연구

2012년 제19호

발행일 : 2012년 9월 20일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 정성권, 남한산성 발굴성과 고찰
- 전봉구·윤종준·김주홍·송원흠, 성남 天臨山 烽燧 정비·복원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 한춘섭, 성남 관할의 서원(書院)·사당 조사 자료
- 한동억, 성남지역의 선현묘역(Ⅱ)-덕수 이씨
- 조남두, 성남지역 특수교육 실태 연구
- 권 일, '성남아리랑'의 가치와 작품성에 관한 연구

2013년 제20호

발행일 : 2013. 9. 20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 손환일, 조선 후기 김의신의 해서법
- 문수진, 한국의 근대화의 성남지역
- 서굉일,「성남 인물지」에 대한 고찰
- 윤종준, 조선의 강무장 운영과 성남
- 이웅재, 성남을 소재로 한 문학 소고
- 최만순, 성남시 도시성장을 위한 문화여가산업 육성방안 연구

2014년 제21호

발행일 : 2014. 9. 20
발행인 : 김대진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
- 홍대한, 망경암 마애불상의 제작 시기와 조성배경
- 최만순, 성남시 지명유래의 유형분석 및 지명유래에 대한 주민인지특성 연구
- 김웅호, 조선 전기 군사훈련과 성남
- 한동억, 한성백제와 남한산성의 재조명
- 정태열,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바라본 성남
- 윤종준, '성남학' 연구 20년의 성과와 과제

2015년 제22호

발행일 : 2015. 9. 20
발행인 : 김대진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
- 김주홍, 조선시대 성남의 봉수 현황
- 한동억, 성남의 교통 통신 발달사
- 전봉구·성기용, 남한산성 약사사(藥師寺)에 관한 연구
- 박민영, 동천 남상목(東泉 南相穆) 의병장의 항일전에 대한 분석적 고찰
- 조남두, 성남지역 초·중·고생의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실태
- 홍대한, 사물인터넷과 증강현실을 이용한 문화재 활용방안 연구
- 서굉일, 광복 70년 한일 역사 인식에 관한 탐구

2016년 제23호

발행일 : 2016. 9. 20
발행인 : 김대진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
- 김주홍, 성남 천림산 봉수의 학술조사와 정비안
- 조남두, 성남지역 문화유산의 교육적 활용방안
- 최만순, 성남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전략 연구
- 서굉일, 한말 일제 강점기 신채호의 독립운동과 유훈
- 정태열, 성남시 탄천 서부지역에 대한 풍수지리 고찰

- 윤종준, 성남 금토동 남원윤씨 묘역 인물

2017년 제24호

발행일 : 2017. 9. 20
발행인 : 김대진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
- 홍대한, 조선시대 태실조성 특징과 운영연구
- 전봉구, 망경암을 중심으로 한 역사고찰 및 기초조사연구
- 이은희, 성남 모란장에 대한 역사적 기억의 재구성
- 윤종준, 성남시 무용 예술의 역사
- 최만순, 삼천병마골 이야기를 활용한 역사공원 조성방안 연구
- 조남두, 성남시 문화복지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2018년 제25호

발행일 : 2018. 9. 20
발행인 : 김대진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
- 김주홍, 성남 천림산봉수의 정비 복원
- 정태열, 성남시 음택문화재에 대한 풍수적 해석과 활용방안
- 조남두, 문화를 통한 성남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 최명숙, 문학작품의 공간적 배경, 성남
- 홍대한, 고려시대 京畿制의 도입과 변화
- 윤종준, 조선통신사와 판교에 대하여

2019년 제26호

발행일 : 2019. 9. 20
발행인 : 김대진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
- 서철수, 성남시 토지등록제도의 고찰
- 홍대한, 매듭장 연구 - 중요무형문화재 제22호 정봉섭을 중심으로
- 조남두, 성남의 교육 역사와 현황
- 민덕식, 낙생역과 판교원
- 최만순, 성남시 문화도시조성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
- 윤종준, 천림산봉수 원형복원 과정과 활용방안

2020년 제27호

발행일 : 2020. 9. 20
발행인 : 김대진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
- 김주홍, 성남 천림산봉수의 거연(擧烟) 비품

- 최명숙, 강정일당 문학의 주제 연구
- 정태열, 명당입지가 주변 지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홍대한, 나전칠기장 칠장 보유자 배금용
- 성기용, 성남시 공공시설의 유니버셜디자인에 관한 연구
- 윤종준, 전주이씨 이순제 문중 소장 고문서 고찰

2021년 제28호

발행일 : 2021. 9. 20
발행인 : 김대진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
- 윤종준 - 8.10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 50주년 - 인간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 헌시 '성남이여, 행복의 땅이여!'
  광주대단지사건 전개과정
- 최명숙, 이문열의 『변경』에 나타난 광주대단지사건 연구
- 김주홍, 병자호란시 근왕병의 왕실구원 시도와 사회상
- 서철수, 쇠뿔에 담은 화각공예의 전수
- 정태열, 성남시 지정문화재 스토리텔링에 관한 연구
- 조남두, 성남시립박물관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연구
- 성기용, 성남시 교육시설의 범죄예방 환경 현황에 관한 연구

성남향토문화총서

성남향토문화총서1
『성남의 마을신앙과 가정신앙-성남시 민간신앙 조사보고서』

인쇄일 : 2001. 2. 10
발행일: 2001. 2. 20
발행인 : 박은
발행처 : 성남문화원
인 쇄 : 동아인쇄
- 제1편 조사개요
- 제2편 마을신앙
  마을신앙의 성격과 의미
  수정구의 마을신앙
  중원구의 마을신앙
  분당구의 마을신앙
  조사 결과의 분석

- 제3편 가정신앙
  가정신앙의 성격과 의미
  수정구의 가정신앙
  중원구의 가정신앙
  분당구의 가정신앙
  조사 결과의 분석
- 부록 : 성남지역 민간신앙 일람표

성남향토문화총서2『판교마을지』

발행일 : 2001. 12. 31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인 쇄 : 삼문인쇄
- 제1장 판교의 자연환경
  자연적 위치
  지질과 지형
  기후
  면적
  판교의 지명유래
- 제2장 판교의 역사
  지방사의 개념과 자료
  판교의 역사적 개관
  조선시대의 교통로와 판교
  조선시대의 장시와 낙생장
  판교인물
- 제3장 판교의 생활과 문화
  판교의 의식주 생활
  세시와 놀이
  일생의례
  판교의 민간신앙
- 제4장 판교마을의 실태조사
  판교 마을의 개황
  판교 마을 개발의 문제점
  판교 조사 마을의 지역 특성
  판교 조사 마을의 실태

성남향토문화총서3『판교마을지』

발행일 : 2002. 12. 31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인 쇄 : 삼문인쇄

- 제1장 들어가는 말
- 제2장 전근대사회 판교지역의 지리
- 제3장 판교의 생활과 문화
- 제4장 판교 지역의 문학
- 제5장 판교 지역의 실태 1(삼평동. 백현동. 궁내동)
- 제6장 판교 지역의 실태 2(운중동. 석운동. 대장동. 하산운동)
- 부록 판교 및 성남의 인물 연구사 정리

성남향토문화총서4『대왕마을지』

발행일 : 2004. 12. 30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인 쇄 : 동아인쇄
- 제1장 들어가는 말
- 제2장 대왕마을의 자연. 인문환경
- 제3장 문화유적에 나타난 대왕마을
- 제4장 대왕마을인의 삶과 문학
- 제5장 지명으로 풀어 본 대왕마을
- 제6장 대왕마을의 일상사적 접근

성남향토문화총서5『복정,태평마을지』

발행일 : 2005. 12. 20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인 쇄 : 예나루
- 제1장 들어가는 말
  Ⅰ. 복정동
  Ⅱ. 창곡동
  Ⅲ. 태평동
- 제2장 마을의 역사
  Ⅰ. 복정동
  Ⅱ. 창곡동
  Ⅲ. 태평동
- 제3장 마을의 문화유적
  Ⅰ. 복정동
  Ⅱ. 창곡동
  Ⅲ. 태평동
- 제4장 마을의 정치. 경제. 사회
  Ⅰ. 마을의 정치와 사회
  Ⅱ. 마을의 주요기관과 시설
  Ⅲ. 마을의 생업과 경제

- 제5장 마을의 생활과 문화
  Ⅰ. 의식주 생활
  Ⅱ. 세시풍속
  Ⅲ. 일생의례
  Ⅳ. 민간신앙
  Ⅴ. 놀이와 여가생활

성남향토문화총서6『금광,단대,상대원마을지』

발행일 : 2006. 12. 30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인 쇄 : 한누리미디어
- 제1장 마을의 역사
  1. 상고시대부터의 전래 역사
  2. 근대화 이후의 마을 역사
- 제2장 상대원동 마을지
  ◎마을의 역사와 지명 및 세거성씨
  1. 금광동/ 2. 상대원동/ 3. 신흥동
  4. 단대동/ 5. 산성동/ 6. 양지동/ 7. 은행동
  ◎광주군 동족집단 상황
- 제3장 마을의 지리적 환경과 문화유산
  1. 지리적 환경 / 2. 문화유적
  3. 행정구역의 변천사 / 4. 도로 등 생활환경
- 제4장 마을의 주요기관과 사회적 기능
  1. 주민자치와 동사무소 / 2. 행정기관
  3. 보건 및 의료기관 / 4. 사회복지기관
  5. 교육기관 / 6. 문화정보기관
  7. 체육 및 공원시설 / 8. 산업경제와 생활
  9. 이웃 사랑의 실천-자원봉사활동 조직
- 제5장 전래풍속(傳來風俗)
  1. 풍속에 대한 총설 / 2. 세시풍속
  3. 민간요법 / 4. 먹거리 / 5. 전통상례
  6. 홀기 / 7. 전통혼례 / 8. 기타풍속
- 제6장 성남시 재개발 현황과 방향
  1. 주택재개발 사업 / 2. 주거환경개선사업
  3. 성남시도시,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 4. 결론

성남향토문화총서7『돌마마을지(상)』

발행일 : 2007. 12. 30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인 쇄 : 대창
- 제1장 돌마 지역의 역사와 문화
  1. 성남지역의 역사와 돌마
  2. 돌마지역의 문화유산
  3. 돌마지역의 민속
- 제2장 돌마면의 지명유래
  1. 하대원동의 유래/ 2. 갈현동/ 3. 도촌동
  4. 여수동/ 5. 야탑동/ 6. 이매동
- 제3장 돌마면의 세거성씨
  1. 하대원동/ 2. 갈현동/ 3. 도촌동
  4. 여수동 / 5. 야탑동 / 6. 이매동
- 제4장 성남의 경제활동 현황
  1. 성남의 경제연혁 / 2. 성남의 경제 현황
  3. 성남 경제의 미래 / 4. 성남경제 관련 단체 및 기타 소개
- 제5장 마을의 주요 기관과 사회적 기능
  1. 마을의 조직 / 2. 각 주민센터(동사무소) 현황
  3. 행정기관 / 4. 의료 및 복지기관
  5. 교육기관 / 6. 문화예술기관 / 7. 기타

성남향토문화총서8『돌마마을지(하)』

- 분당동, 서현동(율동마을), 수내동, 정자동 -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2008. 11. 28
- 윤종준 '돌마 지역의 역사와 문화'
- 한동억 '돌마면의 유래'
- 한동열 '세거성씨와 인물'
- 전봉구 '마을 주요 기관(1)'
- 김형진 '마을 주요 기관(2)'

성남향토문화총서9『낙생마을지』

발행일 : 2009. 11. 30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 제1장 낙생면의 역사와 문화 - 문수진
- 제2장 낙생지역의 문화유산 - 윤종준
- 제3장 낙생마을 지명 - 한동억
- 제4장 낙생지역 세거성씨 집성촌 및 인물조사 - 정재영
- 제5장 마을의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전봉구
- 제6장 마을의 주요기관 - 이보영

『성남문화원30년사』
발행일 : 2008년 7월 5일
발행처 : 성남문화원

『성남시40년사』(전 10권 1질)
발행일 : 2014년 12월 15일
발행처 : 성남시사편찬위원회(성남문화원), 성남시

성남시40년사 보급판 『성남의 역사와 문화』
발행일 : 2015년 2월
발행처 : 성남시사편찬위원회(성남문화원), 성남시

『성남지명총람』
발행일 : 2016년 12월 20일
발행인 : 김대진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

『성남문화원40년사』
발행일 : 2018년 7월 5일
발행인 : 김대진
발행처 : 성남문화원

『광주대단지사건 자료집』(상,하)
발행일 : 2019년 12월 20일
발행인 : 김대진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

『6.25한국전쟁과 義死團조사보고서』
발행일 : 2021년 12월 26일
발행인 : 김대진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

학술회의 발표

제1회 국제학술회의 - 남한산성의 현대적 재조명

발행일 : 1996. 10. 9
발행인 : 이형하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표일 : 1996. 10.10 ~ 11
장 소 : 시민회관 소강당

○ 첫째 날(1996. 10. 10)

- 백남욱, '백제한성시대의 남한산성'
- 조병로, '최근에 발견된 남한산성수축비에 대하여'
- 진 완, '남한산성 전투와 그 영향'
- 전보삼, '남한산성의 민족정신'
- 張 杰, '병자호란과 조선'
- 박상규, '지명어를 통해서 본 남한산성에 관한 연구'
- 차용걸, '한국의 산성연구 동향과 과제'
- 小田富士雄, '서일본 고대산성에 관한 최근의 조사 성과'
- 孫玉良, '동북 역대산성의 흥망성쇠 약술'

○ 둘째 날(1996. 10. 11)

- 소진광, '남한산성의 가치와 활용방안'
- 종합토론

제2회 국제학술회의 - 남한산성과 삼학사

발행일 : 1997. 10. 9
발행인 : 오세순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표일 : 1997. 10.9 ~ 10
장 소 : 성남문화원 대강당

○ 첫째 날

- 유승국, '남한산성과 삼학사의 절의정신'
- 千文甲, '삼학사의 민족정신과 그의 기념비'
- 전보삼, '한중 사행로 답사 보고'
- 정옥자, '병자호란시 삼학사의 활동과 의의'
- 장철수, '조선 현절사의 건립배경'
- 張玉興, '삼학사와 구의사의 비교 연구'
- 한춘섭, '삼학사의 시문학 고찰'

○ 둘째 날

- 姜相順, '삼학사 사상과 인조와의 갈등'

- 지교헌, '상도와 권변의 생존철학'
- 종합토론

제3회 학술회의 - 향토인물연구, 둔촌(遁村) 이집(李集)선생

발행일 : 1998. 10. 16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표일 : 1998. 10. 16
장 소 : 성남문화원 대강당
- 둔촌 선생에 대한 자료모음
- 민병하, '둔촌선생의 성리학적 지위(遁村先生의 性理學的 地位)'
- 최영희, '갑자사화와 광이(甲子士禍와 廣李)'
- 한춘섭, '한국여인의 표상(여류문사 강정일당 작품세계)'
- 김미란, '강정일당의 생애와 문학(姜靜一堂의 生涯와 文學)'

제4회 학술회의 - 향토인물연구, 白軒 李景奭과 金陵 南公轍

발행일 : 1999. 10. 14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표일 : 1998. 10. 14 ~ 15
장 소 : 성남문화원 대강당
○ 첫째 날
- 이성무, '성남문화와 백헌 정신'
- 신원봉, '백헌 이경석의 노겸정신'
- 이은순, '백헌 이경석의 국정운영과 대외인식'
- 강혜선, '백헌 이경석 시세계 연구'
- 부록
○ 둘째 날
- 이장희, '정조 순조연간의 학풍과 남공철의 위상'
- 지교헌, '금릉 남공철의 생애와 학문'
- 박순임, '금릉 남공철의 문학론'
- 부록

제5회 학술회의 - 향토인물연구, 문정공 한계희

발행일 : 2000. 10. 30
발행인 : 박은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표일 : 2000. 10. 30
장 소 : 분당구청 1층 대회의실
- 문수진, '문정공 한계희의 생애와 사상'

- 지교헌, '율동 청주 한씨 집성촌의 연원과 애국 독립운동'

제6회 학술회의 - 향토인물연구, 아천군 이증

발행일 : 2001. 12. 11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표일 : 2001. 12. 11
장 소 : 주택전시관 대강당
- 정은경, '선조조 정치세력의 동향과 이증의 활동'
- 박순임, '이증의 한시 연구'

제7회 학술회의 - 조선시대 청백리정신의 현대적 조명

발행일 : 2002. 9. 6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표일 : 2002. 9. 6
장 소 : 성남시민회관 소강당
- 기조강연 : 이서행, '공직부패와 청백리 윤리'
- 문수진, '조선시대 청백리제도와 기능'
- 한춘섭, '탄천 이지직의 청백리정신'
- 지교헌, '청백리 이병태의 정치철학과 공직윤리'

제8회 학술회의 - 일제하 성남지역의 민족해방운동 양상

발행일 : 2003. 9. 27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표일 : 2002. 9. 27
장 소 : 중원문화정보센터 시청각실
- 유준기, '한국민족운동의 올바른 이해와 현대적 의의'
- 박민영, '성남지역의 의병 항쟁'
- 서승갑, '성남지역 3.1운동의 특성'
- 한상도, '일제하 성남지역의 항일민족운동'

제9회 학술회의 - 광주 대단지 사건의 역사적 재조명

발행일 : 2004. 12. 15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표일 : 2004. 12. 15
장 소 : 중원문화정보센터 시청각실
- 손정목, '8.10사건의 경위 - 서울시의 입장에서'

- 하동근, '8.10사건에 대한 입장들'
- 박태순, '밑에서부터 본 8.10사건'

제10회 학술회의 - 성남지역에서 천장된 역사인물 연구

발행일 : 2005. 10. 14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표일 : 2005. 10. 10
장 소 : 중원문화정보센터 시청각실
- 박상건, '남이흥(南以興)장군의 생애(生涯)와 충장 정신(忠壯精神)'
- 정성희, '정묘호란 시기 안주성 전투와 남이흥 장군'
- 한춘섭, '삼봉 이극중의 인물 알기'
- 유주희, '이극증의 생애와 정치활동'

제11회 학술회의 - 삼족오와 성남문화

발행일 : 2006. 10. 14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표일 : 2006. 10. 14
장 소 : 분당구청 대 회의실
- 손환일, '연성군 이곤 묘비 삼족오의 위상과 가치'
- 이형구,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삼족오 신앙에 대하여'
  (발해 연안 鳥類 숭배 사상과 련관하여)
- 허흥식, '삼족오의 동북아시아 기원과 사상의 계승'
- 김주미, '朱雀旗와 日旗를 통해 본 日象文의 변천'

제12회 학술회의 - 판교의 문화와 전통

발행일 : 2007. 10. 11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표일 : 2007. 10. 11
장 소 : 분당구청 대 회의실
- 현영조, '판교의 전통적 경관에 관한 연구'
- 서승갑, '조선시대 교통망에서 본 판교'
- 신익철, '판교와 한시'
- 최은수, '복식류에 표현한 금박에 관한 소고'

제13회 학술회의 - 판교·도촌지구 발굴문화재의 보존방안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행일 : 2008. 10. 17
- 윤선영, '판교지구 문화유적 발굴의 성과'
- 안성민, '판교지역 문화유적의 시대구분과 문화사적 의미'
- 김주홍, '성남지역 문화재 분포현황과 보존의 방향'
- 윤종준, '성남의 역사적 특징과 문화유적 보존방안'

제14회 학술회의 - 성남 모란의 과거와 현재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행일 : 2009. 5. 29
- 윤종준, 모란의 과거와 미래
- 이수철, 모란 민속 5일장의 사회사적 의미
- 이상열, 모란시장의 발전 방향 모색
- 손환일, 간판을 통해 본 역사와 문화

제15회 학술회의 - 일제하 성남(광주)지역 신간회 연구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행일 : 2010. 8. 15
- 기조발표 / 이만열, 신간회 활동의 역사적 의의
- 김인식, 신간회와 민족협동전선운동
- 조성운, 일제하 광주(성남)지역 신간회의 조직과 활동
- 성주현, 일제하 성남(광주)지역 신간회 인물들

제16회 학술회의 - Smart 성남, 도시 만들기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행일 : 2011. 10. 20
- 기조발표 / 곽정근, 성남시 주민 중심의 도시 재생 활성화 방안
- 최만순, 성남시 도시 변천과 공간구조 분석을 통한 공간 정책 방향 연구
- 전봉구, 성남시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과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
- 현영조, 남한산성의 전통적 경관과 고건축

제17회 학술회의 - 한성백제시대 남한산성 문화권의 위상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행일 : 2012. 7. 4
기조발표 / 조유전, 학술회의 개최에 즈음하여
양기석, 백제사 속의 성남
서정석, 위례성, 한산, 한성에 대하여

최맹식, 백제 한성시기 기와에 관한 소고
한동억, 성남지역의 지명유래에 나타난 역사

제18회 학술회의 - 한성백제시대 남한산성 문화권 위상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행일 : 2013. 7. 4
- 기조발표 / 이남규, 한성백제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의 성과와 전망
- 최병식, '서울 강남 대모산성의 역사적 성격'
- 정재윤, '近肖古王代 百濟의 위상'
- 진영욱, '판교 삼국시대 유적발굴의 성과와 특징'

제19회 학술회의 - 성남시 문화유산의 발굴과 전승방안-

발행인 : 김대진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
발표일 : 2014. 9. 19
- 기조발표 / 한동억, "성남시 문화유산의 발굴과 전승방안"
- 손환일, "성남시의 문화재 현황과 보존, 전승 과제"
- 허미형, "성남시 문화유적의 현주소"
- 서굉일, "성남시 근현대 문화유산 발굴과 전승"

제20회 학술회의 - '광복 70주년 기념「성남지역 독립운동사」'

발행인 : 김대진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
발행일 : 2015. 10. 14
- 기조발표 / 서굉일, 성남지역 독립운동사 연구현황과 기념사업 방향
- 박민영, 성남지역 항일 의병전쟁의 역사적 의미
- 한동억, 성남지역 3.1만세운동
- 서승갑, 신간회 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여러 계파
- 윤종준, 성남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활용 방안

제21회 학술회의 - '낙생행궁 기록을 통해 본 성남의 역사'

발행인 : 김대진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
발행일 : 2016. 10. 26
- 기조발표 / 서굉일, 국왕의 지방행차와 낙생행궁의 문화적 의의
- 홍대한, 행궁운영 제도와 행행 연구
- 김선희, 국왕의 지방 행차와 낙생행궁 고찰

- 허중민, 조선시대 행궁의 입지와 공간 구성

제22회 학술회의 - '성남 판교의 역사 재조명'

발행인 : 김대진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
발행일 : 2017. 10. 31
- 기조발표 / 조병로, 성남 판교의 역사 재조명
- 유병상, 1811년 조선통신사 판교참 관련 기록의 가치
- 홍대한, 역원제도의 운영과 성남 판교
- 서승갑, 판교 역사 복원과 문화행사 추진방안

제23회 학술회의 - '지역문화 창달의 중심 성남문화원'

발행인 : 김대진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2018. 10. 31
- 기조발표 / 조남두, 성남문화원 40년의 성과와 지역문화 창달의 중심
- 홍대한, 문화원 사업의 교육적 활용과 위상제고 방안
- 윤종준, 성남학연구소 25년의 연구성과 분석과 역사적 정체성
- 최명숙, 역사인물 추모사업과 백일장 기념행사의 성과와 발전방안 제언

제24회 학술회의 - '성남지역 독립운동과 기념사업 추진방안'

발행인 : 김대진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2019. 10. 30
- 기조발표 / 박 환, 성남지역에서 전개된 독립운동과 기념사업 추진방안
- 성주현, 제암 한순회와 천도교의 민족운동
- 조성운, 성남지역에서 전개된 3.1운동
- 서승갑, 일제의 강제수탈과 독립운동의 전개

제25회 학술회의 - '광주대단지 주민생활 공간과 도시형성'

발행인 : 김대진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2020. 11. 4(수) 14:00
- 기조발표 / 안창모(경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광주대단지 조성과정 그리고 오늘
- 주제발표, 최만순, 성남대단지의 형성과정과 이주정책에 대한 연구
  정춘환, 광주대단지 도시, 건축형태 기록을 위한 방법
  윤종준, 성남 본도심지에서 사라진 문화유산

제26회 학술회의 - 광주대단지(성남)의 문화재 현황과 활용방안

발행인 : 김대진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2021. 11. 1
기조발표 / 백 남 욱(경기향토문화연구소 부소장), 광주대단지(성남)의 문화재 현황과 활용방안
주제발표 / 서승갑, 광주대단지(성남) 무형문화유산으로 본 성남 정체성
윤종준, 성남시 도시발전 과정의 문화유산 보호실태와 과제
홍대한, 광주대단지 건설 이후 문화재 현황과 활용방안 연구
종합토론 / 문수진, 조남두, 서철수

학술 토론회

제1회 학술토론회 - 송산 조견(松山 趙狷) 인물 연구

발행일 : 1999. 7. 22
발행인 : 남선우
편집인 : 평양조씨 송산공5파종회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표일 : 1999. 7. 22
장 소 : 성남삼원부페
- 문수진, '고려말기 정세(高麗末期 政勢)'
- 한춘섭, '송산 조견 인물 연구(松山 趙狷 人物 硏究)'
- 부록 : 송산 조견 선생의 자료모음

제2회 학술토론회 - 판교지역 연성군 이곤 금석문 연구

발행일 : 2004. 2. 25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표일 : 2004. 2. 25
장 소 : 낙생농업협동조합 강당
- 허흥식, '향토사와 문중에서의 역할'
- 한춘섭, '연이, 연성군의 가계연구'
- 손환일, '연성군 이곤 묘비의 양식. 문양. 서체에 관하여'

- 이민식, ‘연성군 문중의 금석문 분포현황과 성격’

제3회 학술토론회 - 조선 초기 광주이씨 인물연구

발행일 : 2005. 11. 25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표일 : 2005. 11. 25
장 소 : 중원문화정보센터 시청각실
- 김문택, ‘탄천 이지직의 관직생활과 청백리’
- 배 성, ‘이극규의 생애와 정치활동’
- 김학수, ‘이극기의 가계와 관직활동’
- 박병련, ‘조선전기 士林/勳舊 葛藤과 士林이데올로기의 政治的 政當化
- 한춘섭, ‘廣李’ 門中 武人 列傳’

제4회 학술토론회 - 전주이씨 신종군 이효백 연구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2008. 2. 27
- 이용규, ‘신종군 이효백의 가문과 생애’
- 윤종준, ‘신종군 이효백의 시대적 배경’
- 손환일, ‘신종군 이효백 묘소의 조성물’

제5회 학술토론회 - 동천 남상목 의병장 공훈 재조명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2008. 4. 4
- 김상기, ‘남상목 선열의 의병운동의 역사적 배경’(기조강연)
- 윤종준, ‘남상목 의병부대의 정미의병과 무장투쟁’
- 서승갑, ‘동천 남상목 의병장의 사생취의(捨生取義) 정신과 기념사업 추진 방략’

제6회 학술토론회 - 청주한씨 청연공파 세장지 석조물 연구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표일 : 2008. 10. 10
- 문수진, ‘조선의 건국과 청주한씨의 성장’
- 손환일, ‘율동 청주한씨 세장지의 석조물’
- 손미숙, ‘한지원 묘역의 석물 고찰’
- 권영애, ‘한명욱 묘역의 석조물에 대하여’
- 이재목, ‘한전 묘역의 석물과 서체고찰’
- 한동억, ‘율동 청주한씨 가계정리’

제7회 학술토론회 - '성남지역 독립운동사 재조명'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표일 : 2009. 8. 15
- 한동억, 성남지역 3·1운동의 전갱양상과 성격
- 윤종준, 성남출신 의병장들의 활동과 역사적 의의
- 서승갑, 신간회 광주지회의 활동과 성격
- 강진갑, 성남지역 독립운동사를 주제로 한 문화콘텐츠 활용방안

제8회 학술토론회 - 조선 초기 평양서윤 김순성 묘역의 가치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표일 : 2009. 11. 18
- 문수진, 조선의 건국과 광산김씨의 성남세거
- 윤종준, 평양서윤(平壤庶尹) 김순성(金順誠)의 관직이력에 대한 고찰
- 손미숙, 평양서윤 김순성 묘역 조성물의 중요성과 가치
- 손환일, 조선 초기 <金順誠 墓碑> 서체의 중요성과 가치

제9회 학술토론회 - 한성 백제시대 남한산성 문화권의 위상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표일 : 2011. 07. 04
- 김기섭, 백제의 건국과 영토 확장
- 백남욱, 백제 한성시대의 남한산성
- 강나리, 남한산성 역사주제 공원 개발과 세계유산

제10회 학술토론회 - 덕수 이씨 의정공파 세거연구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표일 : 2011. 12. 06
- 문수진, 덕수 이씨 문중의 가계와 세거연구
- 윤종준, 덕수 이씨 의정공파의 국가 공헌
- 손환일, 조선 중기의 서체
- 이희순, 조선 초기의 서체
- 손미숙, 조선 중기 묘역의 석물 고찰

제11회 학술토론회 - 중·한 文學交流의 成果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표일 : 2013. 05. 20
- 리창인, 전통 문화 교류의 참신한 모습
- 최룡관, 시조 우물을 파주고, 물이 넘치게 한 사람
- 림금산, 중·한 문화교류의 의미
- 김재국, 중·한 시조문학사에 남긴 성과

제12회 학술토론회 - '평양조씨 석실공 연구'

발행인 : 김대진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표일 : 2015. 03. 27
- 문수진, 조선초 평양 조씨 조견, 조철산의 위치
- 윤종준, 두문동 72현과 평양 조씨 삼세삼충 연구
- 손환일, 석실 조철산, 그의 생애와 묘역
- 손미숙, 석실 조철산 묘역 석물의 중요성과 가치

제13회 학술토론회 - '전주이씨 덕양군파 참판공 이순제 연구'

발행인 : 김대진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2019. 9. 3
- 한동억, 전주이씨의 성남입향과 참판공의 가계와 정신
- 손환일, 조선시대 참판공 이순제 묘비의 서체
- 손미숙, 참판공 이순제 묘역의 석물
- 윤종준, 전주이씨 참판공 이순제 비문의 충효유훈

학술세미나, 강연 등

천림산 봉수지 원형 복원을 위한 시민 종합 토론회

발행일 : 2006. 7. 4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표일 : 2006. 7. 4
장 소 : 성남문화원 3층
- 경기도 기념물 제179호인 천림산 봉수지 원형 복원을 위해 타 지역 봉수 터를 답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 취합과 동시에 시민들의 봉수 원형 복원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향후 활용계획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한 토론회

성남지역 3.1만세운동 기념 학술토론회 - 성남지역 3.1운동의 역사적 의미 재조명

발행인 : 김대진
발행처 : 성남3.1운동기념사업회
발행일 : 2008. 3. 1
- 한춘섭, 기조연설 '성남3.1운동 정신의 계승'
- 서승갑, '성남지역3.1운동의 전개 양상과 역사적 의미'
- 한동억, '성남지역3.1운동 지도자들의 가계와 독립정신'

학술세미나 논문집(천림산 봉화 고증을 위한 학술세미나)

발행일 : 1999. 10. 1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표일 : 1999. 10. 1
장 소 : 성남문화원 대강당
- 남도영, '한국봉화의 기원과 연구현황'
- 이존희, '조선시대 봉수제의 운영과 문제점'
- 조병로, '천림산 봉수의 연혁과 위치비정'
- 이 재, '경기 봉화유적 조사 및 사례연구'
- 김주홍, '천림산 봉화터의 고고학적 실증'
- 방상현, '천림산 봉수군 신분과 생활'

강정일당 추모 詩낭송집

발행일 : 2005. 7. 7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 재덕을 겸한 비범한 여류문인으로 평가받는 성남의 향토유적 제1호 강정일당. 구송 문학으로서 낭송자와 청중들이 한 마음이 되어 강정일당의 문학을 감상하며, 서로간의 정신을 풍요롭게 해주는 낭송회의 낭송집

강정일당 향토인물에 대한 추모 강연회

발행일 : 2005. 7. 20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 성남시 승격 32주년을 기하여 성남시민들에 의해 추앙된 향토유적 제1호 강정일당의 인물, 사상, 작품에 대한 연구

천림산 봉수지 원형 복원을 위한 워크샵 자료집

발행일 : 2006. 5. 15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연구소
발표일 : 2006.5.16~5.17
- 성남시 금토동 관내에 조선 초기 봉화터로 사용되던 천림산 봉수지의 복원과 한국 봉수에 관한 연구, 조사 자료집

韓·中 文化交流

발행일 : 2007. 5. 20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인 : 한춘섭
- 손환일, '삼족오(三足烏) 문양의 시대별 변천'
- 김주미, '日旗를 통해 본 日象文의 형성과 展開'
- 정 무, '심양 서탑지역의 유래'
- 이행준, '중국 태양조'

편집위원

김대진(성남문화원장 겸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최명숙(소장, 전 가천대학교 교수)
조남두(신구대학교 명예교수)
김주홍(문화재청 사적분과 전문위원)
윤종준(성남학연구소 상임위원)

제27회 학술회의

6.25전쟁시 의사단(義死團) 활동과 추모사업 추진방안

인　쇄 : 2022년 10월　20일
발　행 : 2022년 10월　24일
발행인 : 김　대　진
발행처 : 성남문화원
기획 및 편집 : 김정진. 윤종준. 윤규상. 허지연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15번길 7(신흥동 6926번지)
전　화 : 031-756-1082
홈페이지 : http://www.seongnamculture.or.kr

이 논문집은 성남시 문화예술 지원금으로 제작함 <비매품>